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4
02167126320
3
KOREAN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넬슨 회장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라고 권고하다; 인종 차별을 비판하다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과 감리 감독단이 발표되다

6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다



사진: 질레 제5주(발파라이스) 로나르바에즈; 작은 사진: 사모아 아피아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교회 회원들이 연차 대회를 시청하기 위해 집회소에 모이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그 대신 이번 대회는 50여 개국의 전국 및 지역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이로써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대회를 시청할 수 있었다.



사진: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산루카스; 작은 사진: 브라질 상파울루

러셀 엠 빌슨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앞으로 여섯 달 동안 경전을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성약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토요일 오전 모임

- 6 **앞으로 나아가며**
러셀 엠 넬슨 회장
- 8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2 **그분과 같이 됨**
스cott 디 와이팅 장로
- 15 **보는 눈**
미셸 디 크레이그
- 18 **의로움과 단합으로 맺어진 마음**
쿠엔틴 앨 쿡 장로
- 22 **주님께 추천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26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30 **총관리 직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직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32 **지속 가능한 사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35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음**
스티븐 제이 런던
- 38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42 **먹을 것이 있더니**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 45 **하나님 아들의 훌륭한 선물**
매튜 에스 홀랜드 장로
- 48 **그리스도의 문화**
윌리엄 케이 잭슨 장로
- 5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여성 총회

- 55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연습니다**
쉐런 유뱅크
- 58 **계속 변화하십시오**
베키 크레이븐
- 60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 67 **시온의 자매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0 **담대하라, 기뻐하라**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 73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77 **이러므로 너희는 ...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엠 러셀 블라드 회장
- 80 **잠잠하라 고요하라**
리사 엘 하크니스
- 82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찾으라**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86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 88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닐 엘 앤더슨 장로
- 92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96 **시험받고 입증하고 연마되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99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모두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제러미 알 야기 장로
- 102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106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밀튼 카마르고
- 109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데일 지 랜던 장로
- 112 **지속적인 권능**
켈리 알 존슨 장로
- 115 **주님을 기다리며**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 118 **새로운 일상**
러셀 엠 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120 **교회 소식**
- 127 **와서 나를 따르라—연차 대회 메시지에서 배우기**



일본 오사카

제190차 반연차 대회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패트릭 키아론 장로
 폐회 기도: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음악*: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영원하고 거룩한 진리”, 『찬송가』, 19장.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윌버그 편곡.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43쪽, 카든 편곡.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자브리스크
 편곡. “서로 사랑해”, 『찬송가』, 193장,
 윌버그 편곡.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폐회 기도: 조이 디 존스
 음악: 여러 합창단.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생크 편곡. “Beautiful
 Savior,” *Children’s Songbook*, 62-63, arr.
 Kasen. “신앙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157장.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애쉬비 편곡.

2020년 10월 3일 여성 총회

사회: 보니 에이치 코든
 개회 기도: 리즈 다저
 폐회 기도: 캐스린 레이놀즈
 음악: 여러 합창단. “As Zion’s Youth in
 Latter Days,” *Hymns*, no. 256, arr. Kasen.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17쪽, 스타헬리 편곡.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고츠 편곡.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랜들 케이 배넷 장로
 폐회 기도: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음악: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Awake
 and Arise,” *Hymns*, no. 8.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윌버그 편곡.
 “If the Savior Stood Beside Me,” DeFord,
 arr. Cardon.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찬송가』, 53장, 머피 편곡. “For I Am Called
 by Thy Name,” Gates.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폴 브이 존슨 장로
 폐회 기도: 잰 이 뉴먼
 음악: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룡허스트 편곡. “Softly and Tenderly,”
 Thompson, arr. Wilberg;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찬송가』 74장, 윌버그 편곡.
 *각 모임의 음악은 사전에 여러 지휘자의
 지휘와 오르간 반주자의 연주 아래
 녹음되었다.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이내에 배부 센터에서 영어
 영상 및 음성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연차 대회
 자료에 관한 정보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지

가나 아크라 사진: 퀘쿠 오벵.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코디 벨, 메이슨
 코벌리, 존 로이드, 레슬리 닐슨, 데이브
 와드. 추가 사진: 벤슨 아루도, 알렉산드르
 보르헤스, 니콜라스 세레이 부스타만테,
 클레이튼 찬,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마리아 카이자기, 줄리언 클렘, 예술리 라슨,
 그레그 마르티네즈, 조엘 마울람, 멜라니
 미자, 퀘쿠 오벵, 사야카 오쿠보, 마르가리타
 파시코바, 에런 톰슨, 티지아노 페제티,
 엘리스 프라이스, 요나스 레비키, 나탈리아
 테오.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2020년 11월호 제57권, 제11호

리아호나 1672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펑크

고문: 베키 크레이븐, 쉘런 유뱅크,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윌터 에프 곤잘레스, 래리 에스 캐처, 쟈 이 뉴먼, 아드리안 오호야, 마이클 티 링우드, 번 피 스탠필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에니시 시 다빌라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애드워드, 매튜 디 플리튼, 게릿 에이치 가프, 존 라이언 제슨, 살럿 라카발, 마이클 알 골즈, 에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크,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플라 소사, 차클 워드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몰리 홀트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클린 힐클리, 에릭 피 존슨, 수전 로프그렌, 스킷 엠 무이, 일레니 레기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케이 니를 위르호스트

디자인 인턴: 해일리 와그너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얀문 해리스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닐슨, 머리사 엠 스미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닐슨 곤살레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56호, 제57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20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철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출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10,700원, 권당 가격은 1,1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9 Vol. 43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연사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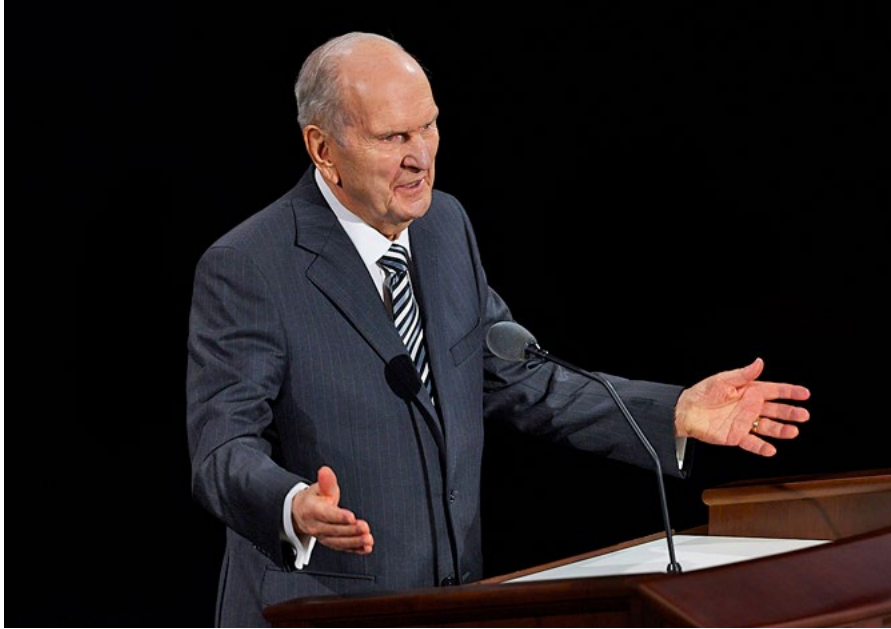
- 게리 이 스티븐슨, 102
- 게릿 더블류 공, 38
- 닐 엘 앤더슨, 88
- 달린 에이치 옥스, 26, 70
-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42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8
- 데일 지 랜런드, 109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2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51
- 러셀 엠 넬슨, 6, 73, 92, 118
-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22
- 리사 엘 하크니스, 80
- 메튜 에스 홀랜드, 45
- 미셸 디 크레이그, 15
- 밀턴 카마르고, 106
- 베키 크레이븐, 58
- 쉘런 유뱅크, 55
- 스크로트 디 와이팅, 12
- 스티븐 제이 린드, 35
- 엠 러셀 벨라드, 77
- 올리세스 소아레스, 82
- 윌리엄 케이 잭슨, 48
- 제러미 알 야기, 99
- 제프리 알 홀랜드, 115
-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86
- 켈리 알 존슨, 112
- 쿠엔틴 엘 쿡, 18
-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60
- 헨리 비 아이어링, 30, 67, 96

주제 색인

- 간증, 6
- 개심, 58, 86
- 개인의 가치, 15
- 개인적인 계시, 106
- 개인적인 성장, 12, 58, 96
- 개혁자, 70
- 결심, 12
- 겸손, 109
- 경전, 106
- 계시, 73
- 교회 성장, 6
- 교회 출판물, 38
- 교회 회원, 38
- 구원의 계획, 8, 32, 48, 70, 96, 115
- 권능, 55, 77, 112
- 그리스도의 빛, 32
- 기도, 77, 106
- 기독교, 88
- 기쁨, 35, 45, 70, 99
- 기술, 51, 102
- 낙관주의, 118
- 다양성, 18
- 다툼, 26
- 단합, 18, 26, 55, 67
- 덕성, 32, 82
- 두려움, 80
- 물문경, 38, 73
- 문화, 48
- 미국 헌법, 18, 26
- 법률, 26
- 사랑, 15, 18, 26, 32, 38, 109
- 상호부조회, 55, 67
- 선교 사업, 6, 38, 51
- 선지자, 42, 51
- 선택의지, 92
- 선행, 38
- 성약, 22, 58, 92, 112
- 성역, 86, 102
- 성전 사업, 22
- 성전, 6, 22, 102, 112, 118
- 성찬, 35
- 속죄, 35, 45, 60, 88
- 순수함, 82

- 순중, 22
- 시온, 18, 32, 55, 67
- 식량 비축, 42
- 신앙, 60, 73, 77, 80, 88, 99, 112, 115
- 십일조, 42
- 안전, 73
- 어린이와 청소년, 35
- 여성, 67, 70, 73
- 역경, 6, 8, 38, 42, 45, 51, 60, 70, 77, 80, 96, 99, 102, 115
- 예수 그리스도, 6, 12, 15, 18, 26, 32, 35, 45, 48, 55, 58, 70, 80, 82, 88, 92, 96, 109, 112
- 예언, 38
- 우정 증진, 86
- 유혹, 82
- 육에 속한 사람, 82
- 의로움, 18, 82
- 의식, 22, 102
- 이스라엘의 집, 92
- 인내, 99, 115
- 인도, 77
- 인종 차별, 26, 92
- 차별, 42
- 자비, 55, 109
- 재림, 67, 77, 88
- 제자 됨, 15, 35, 88, 99, 118
- 조셉 스미스, 38, 55, 70, 73, 77, 96
- 죄, 45, 82, 109
- 준비, 8, 42, 73
- 진리, 32
- 집합, 92
- 천사들, 86, 88
- 축복, 38, 51, 102, 106, 115, 118
- 충실함, 8, 73, 96
- 치유, 45, 60
- 친절, 15, 55
- 평화, 80
- 필멸의 삶, 70
- 하나님 아버지, 38, 51, 92, 115
- 함당성, 22
- 회개, 12, 45, 58, 60, 109

제190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2020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열린 연차 대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현재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단합과 사랑, 희망과 치유, 신성한 목적 안에서 누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도록 선택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몰몬서 9:11]” —러셀 엠 벨슨 회장(92쪽 참조)

여러 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면, 그분은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베키 크레이븐(58쪽 참조)

이번 대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다시 한 번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연사들은 희망을 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관점을 넓힐 수 있었다.

“필멸의 세상이라는 학교에서도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오직 힘든 경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 배우고 있기를 간구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8쪽 참조)

사회적 불안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지도자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을 규탄했다. 그들은 후기 성도인

우리에게 의로움 속에서 하나가 되고, 다양성 안에서 단합을 찾으며, 도덕적이고 사랑이 깃든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분열이 특히 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축복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18쪽 참조)

여러분이 이번 호를 통해 대회를 돌이켜 보고 앞으로 몇 달에 걸쳐 공부하는 가운데, 새로운 통찰과 더불어 여러분이 처음 느꼈던 희망과 영감을 다시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 ■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업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0차 반연차 대회 모임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다른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과 함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기술 덕분에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 되어 모이는 이 위대한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는 이전 어느 대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 역시 그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 급속히 번진 산불,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합니다. 또한 현재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업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화상 모임 등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들은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보상을 얻기 마련입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올무에

우리의 선교사들과 선교부 지도자들은 매우 유능하고 융통성 있게, 참으로 놀랍게 대처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고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으나, 많은 선교부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성전을 단야야 했고 몇몇 건축 프로젝트는 잠시 연기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두 나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20곳의 새로운 성전이 기공될 예정입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새로운 와드와 스테이크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150개 국가에서 895개의 감염병 대응 프로젝트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많은 가정이 더 나은 복음 공부를 통해 간증과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화상 통화를 통해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모이니 아이들과 훨씬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모두가 돌아가며 와서 나를 따르라에 관한 자기 생각을 나누지요. 가족의 필요 사항을 더 잘 알게 되었기에 가족 구성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시기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험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고, 자주 회개하고, 배우며, 성장하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은 발전을 갈구합니다. 발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굳건히 성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성스러운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¹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영감받은 종들이 전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하신 한 가지 약속을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아노니,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악마의 모든 교활과 ... 간계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리로다.]”²

저는 여러분께서 이 연차 대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구하며,³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88 참조.
2. 힐라맨서 3:29; 강조체 추가.
3. 니파이후서 1:15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아브라함서 3:25)

지금이야말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연차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 머리와
마음에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동안 성신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의 중요성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
20년 이상 동안 대학교수와 교육 행정가로
일했습니다. 교수로서의 저의 주된
책임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알게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출제하고, 성적을 매기고, 학생들의 성적에
관해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이미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리 썩 좋아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시험은 학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시험은 특정
주제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실제로 아는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의 학습과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멸의 세상이라는
학교에서도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학교 시험과 같은 시험을 말할 때
사용되는 “테스트(test)”라는 영어 표현을
영어 표준 경전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와 헌신 그리고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능력을 적절하게
입증하는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시험하다(prove)”, “살피다(examine)”,
“단련하다(try)”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그분께서 필멸의
시험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 “시험하다”,
“살피다”, “단련하다”라는 단어를 과거와
현대 경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¹

시편의 저자 다윗의 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²



미국 유타주 프로보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또, 주님은 1833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합당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에 거하려 하는지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로 내 마음에 법령으로 정하여 놓았음이라. 주가 이르노라.”³

현 시대의 시험과 단련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여러모로 우리를 시험하고, 살피고, 단련했던 2020년은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해와 달랐습니다. 오직 힘든 경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개인과 가족으로서 배우고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시라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는 진리를 더 충분히 인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⁴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시험과 단련의 상황이 닥치면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의 원리이며,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원리입니다.

시험과 준비

구주의 제자인 우리는 이런 명을 받습니다.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⁵

또한, 이런 약속도 받습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원수의 힘에서 벗어나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으로 내게 집합하게 하려 하여”⁶

이런 성구들은 우리 생활과 가정을 현세적으로 또 영적으로 조직하고 준비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합니다. 필멸의 세상에서 시험하는 경험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⁷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지적 및 신체적, 그리고 영적 및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준비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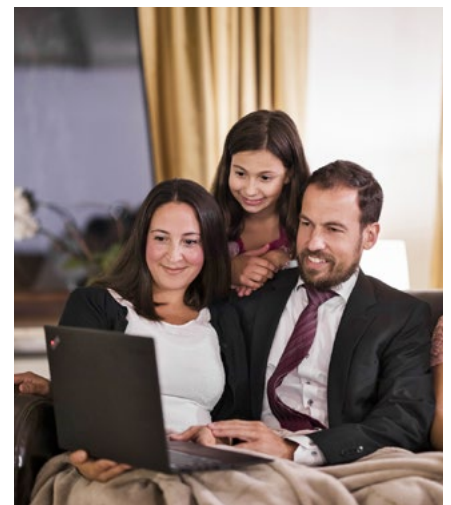
몇 달 전의 어느 날 오후, 아내와 저는 우리 집 비축 식량과 비상용품을 점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고 있었고, 유타에 일어난 연속된 지진 때문에 저희 집이 마구 흔들렸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대비하라는 선지자들의 권고를 신혼 때부터 따라왔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지진의 와중에 우리의 준비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주 시기적절한 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고 없이 온 이 시험들에 몇 점이나 받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 필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식품 창고였던 벽장에서 수십 년 묵은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몇 용기를 열고 속을 살펴보면 또 다른 세계 대유행병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물질은 폐기했고 세계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을 제거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몇몇 교회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들이 비상 계획과 물품, 비축 식량, 72시간 키트나 관련 주제에 관해 연차 대회에서 최근에 또 강조해서 말한 적이 없었기에 그런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 뮌헨



파테말라 파테말라스티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준비하라는 권고를 수십 년간 거듭해서 밝혀 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한결같이 주어진 선지자의 권고는 단발성의 경고가 낼 수 없는 강력한 명확함을 가진 훨씬 큰 경고 음성을 만들어 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현세적 준비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마련이듯이, 영적인 안일과 안주라는 질병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아주 해로운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준비를 미루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량이 오는 날에 미련한 처녀 다섯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에 적절히 준비하지 못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량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량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⁸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⁹

이 시험에서 적어도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듣기만 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¹⁰

저에게는 법학 대학원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썸은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그가 수강한 모든 과목의 필기를 복습하고, 요약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매주 말, 그리고 매달 말에 수강 과목 전체에 대해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법률을 달달 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말 고사가 다가왔을 때, 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말 고사 기간이 법에 대해 배우는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준비는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낳습니다.

법학 공부에 대한 썸의 접근법에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주님의 주요한 방법의

하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¹¹

저는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¹²”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 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¹³ 생활방식이 바뀌고 제한 상황 속에 있던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생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험과 힘써 앞으로 나가

사고로 죽은 한 젊은 선교사의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부친이 장례식에서 말씀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와 예기치 않게 이별하게 된 비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나 시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형제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의 사망 이유와 시기를 알고 계시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가족이 몹시 슬프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확신의 말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 용감한 가족은 그런

고통을 통해 영원한 중요성이 담긴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¹⁴

충실함은 어리석음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¹⁵ 우리는 제한된 필멸의 능력을 넘어 펼쳐지는 영원한 관점과 비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집합하여 거룩한 곳에 서서”¹⁶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 움직이지”¹⁷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총장으로 일하던 1998년 12월에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매주 가지는 영적 모임에서 말씀하기 위해 학교에 오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모임이 있기 전에 학생 몇 명을 초대해서 홀런드 장로님을 직접 만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 갈 무렵, 홀런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해 주신다면,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현상이 커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도 중간 지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길에서 중간

지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흐르는 강물을 타고 간다면, 어디론가 가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대세를 좇고, 유행을 따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법을 지금 배우기 바랍니다.”

홀런드 장로님이 제 질문에 대답하신 이후로 22년간의 사회적 동향과 사건들을 보면 두 세력 간의 대립 심화 현상에 관한 그분의 의견이 예언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의 간극이 넓어지는 것을 예견하시면서, 홀런드 장로님은 편안하게 한 발은 회복된 교회에 걸치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시절이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의 종이신 장로님은 젊은이들에게 선택하고, 준비하고, 구주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젊은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에서 시험받고, 살림을 받고, 단련받는 경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이를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약속과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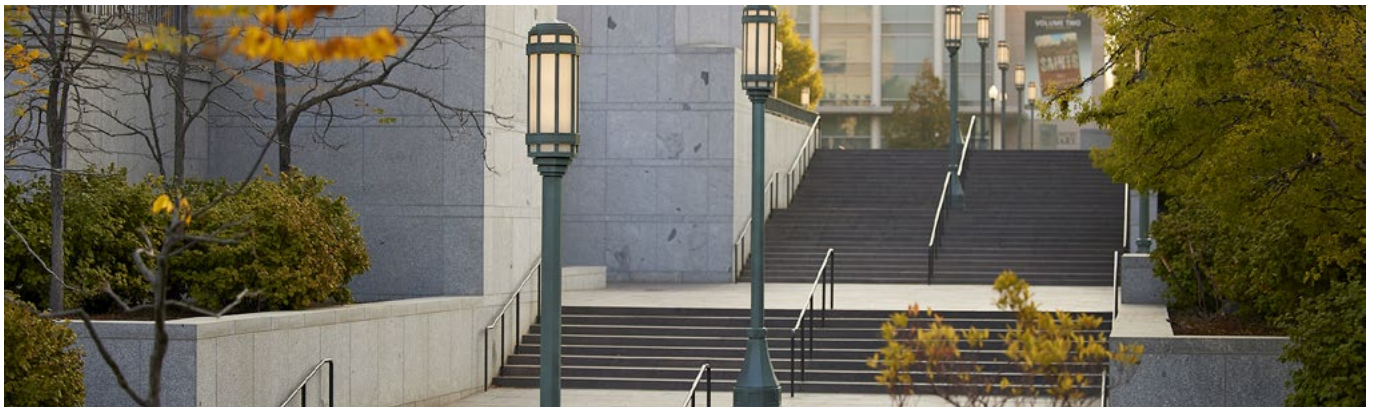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약속드리건대, 우리가 준비하고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필멸의 생에서 치르는 궁극적인 시험에서 같은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¹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살아 계신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이 모든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아브라함서 3:25; 강조체 추가.
2. 시편 26:2~3; 강조체 추가.
3. 교리와 성약 98:14; 강조체 추가.
4. 니파이후서 2:2.
5. 교리와 성약 88:119; 강조체 추가.
6. 교리와 성약 38:30~31.
7. 누가복음 2:52.
8. 마태복음 25:3~4; 6~11.
9. Joseph Smith Translation, Matthew 25:12 (in Matthew 25:12, footnote a).
10. 야고보서 1:22~25 참조.
11. 니파이후서 28:30.
12. 학개 1:5, 7.
13. 고린도후서 13:5.
14. 교리와 성약 105:6 참조.
15. 니파이후서 31:20.
16. 교리와 성약 101:22.
17. 교리와 성약 87:8.
18. 마태복음 25:21.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분과 같이 됨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모두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자”가¹ 되어야 한다는 구주의 훈계는 힘겹고 도달할 수 없는 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경사진 오르막도 없고 성장도 거의 없는 길을 걷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쉽사리 선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덜 태우려 할 때, 우리는 “확실히, 이 가르침은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것이야”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필멸의 상태에서도 “[그분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그저 비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일 그것이 이생에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그분과 다시 함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어떨까요? “나와 같은 자”가 실제로 정확하게 구주께서 의미하신 바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을 바꿀 수 있도록 그분의 기적적인 권능을 우리 삶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꺼이 기울이시겠습니까?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과 같이

되라고 명하신 바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반드시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보다 우리의 대업이기도 한 그분의 대업에 대한 성의와 열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찬사를 보내지만,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² 젊은 성직자인 찰스 엠 웰턴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들은 십자가처럼 거칠고 무거운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³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신 것처럼, 사실상 모든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⁴ 우리는 진보함에 따라 더욱 완전해지고, 완성되며, 완전히 발전하게 됩니다.⁵ 그러한 가르침은 어느 한 종파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의사소통을 고려하며,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각자가 평강의 왕을 더욱 완전히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말고는 깨진 관계나 분열된 사회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⁶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속성을 얻음으로써 그분처럼 되기 위한 사려 깊고, 신중하며, 의도적인 추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십시오

몇 년 전, 아내와 저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등반로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정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그곳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타면서 우리는 점차 피로와 근육통, 그리고 고도의 영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미국 유타주 오렘

내딛는 다음 발걸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정상에 오르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 다음 발걸음은 내디딜 수 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겹던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끝에 결국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한 이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라는 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 이해는 육에 속한 사람을 넘어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결부되어야 합니다.⁷ 그 소망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알아야 하고,⁸ 경전과 예배 모임, 그리고 다른 거룩한 장소에서 그분의 속성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속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탐구에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속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⁹ 우리가 바라는 구주의 성품과 비교해서¹⁰ 그분과 우리의 현재 위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발전하려면 그런 정직함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정직은 그분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또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동그스름하거나 훨씬 더 날씬하게 나오는, 놀이공원 도깨비집의 왜곡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신뢰하는 친구와 가족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조차도 사랑과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상황을 불완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여쭙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므로, 우리의 약점을 친절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¹¹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아마도 여러분은 더 큰 인내, 겸손, 자애, 사랑, 소망, 근면, 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¹²

얼마 전에 저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랑이 많으신

한 교회 지도자께서 제가 어떤 속성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왜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그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지도자의 제언에 동의하면서도, 다행히도 자비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신은 그들의 권고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활동”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¹³

여러분이 정직하게 평가를 했고 등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사랑을 담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릴 것을] 선택합니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사실상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¹⁵

찾아내고 행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변화하고 회개하기로 다짐했고, 기도과 정직한 숙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과의 상담을 통해 인도를 구했으므로, 여러분이 특별히 초점을 둘

속성을 하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갑싸게, 갑자기 얻는 것이 아니라,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의 자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주시는 은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얻으려는 노력에는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구하려는 진심 어린 간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이러한 은사를 구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다면 실망과 좌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속성에 중점을 둔다면, 그 속성을 얻기 위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속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애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사랑과 겸손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근면과 소망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속성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쏟는 커다란 노력은 항구의 모든 배를 띄울 만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기록하고 지속하십시오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의 속성 중 한 가지를 마음속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경전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성역,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이 속성의 예를 볼 때면, 그야말로 경전은 새로운 것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속성을 인식하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팎에서 그분을 닮은 속성을 지닌 여러 훌륭한 분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속성들이 그분의 사랑이 깃든 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반하기 전에는 준비가 필요하며 등반하는 동안에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듯이, 이 여정에서도 진정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 같이 되고자 애쓰는 진정한 기독교도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¹⁶

이제 간단하게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과 같이 되라는 계명은 여러분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합당하지 않다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필멸의 경험은 진보와 시도, 실패,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와 제가 눈을

감고 마법처럼 후지산 정상으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며 사랑받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다음 생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모두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고] ...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듯이 보이는]” 이 시대에,¹⁷ 유일한 대책이자 해결책은 구주,¹⁸ 모든 인류의 구속주,¹⁹ 세상의 빛²⁰과 같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내가 곧 길”²¹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성한 도움과 힘을 통해 그분과 같이 되는 일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²² 제가 이것을 아는 부분적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서 그분의 속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3니파이 27:27. 이와 관련된 구주의 훈계는 다음 경전 구절들을 참고한다. 마태복음 5:48(“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한1서 2:6(“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미셸 디 크레이그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보는 눈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보시듯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봄

저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사를 섬기던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이른 아침, 이 청년이 일어나 나가 보니 많은 군사가 성읍을 에워싸고 그들을 멸망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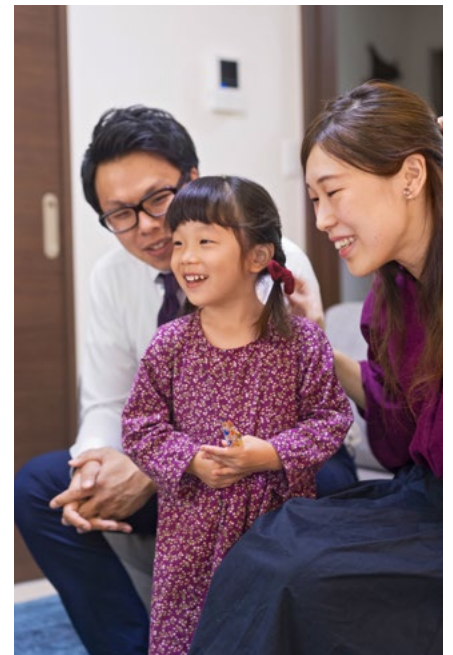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리라.”

엘리사는 이 청년에게는 진정과 안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¹

이 사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려고 애를 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위되어 있다고 느끼는, 즉 필멸의 시련 앞에 무릎 꿇은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일본 와카야마

-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모사야서 3:19(“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기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엘마서 5:14(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제3니파이 12:48(“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 Neal A. Maxwell, *Even As I Am* (1982), 16.
 - Charles M. Sheldon, *In His Steps* (1979), 185.
 - 교리와 성약 93:12~17 참조.
 - 마태복음 5:48 참조.
 - 이사야 9:6; 니파이후서 19:6 참조.
 - 고린도전서 2:14; 모사야서 3:19 참조.
 - 마태복음 7:23; 25:12; 모사야서 26:24 참조;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02~105쪽.
 - 교리와 성약 93:2 참조.
 - 모로나이서 7:12~19 참조.
 - 이더서 12:27 참조.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rev. ed. (2019), 6장.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구주의 다른 속성에 대한 참조 성구들은 경전 곳곳에 나와 있다. 다음 성구들은 몇 가지 예이다. 모사야서 3:19; 엘마서 7:23; 신앙개조 제13조.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15쪽 참조.
 - 러셀 엠 벨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8쪽.
 - 경전 안내서, “은혜” 참조,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 See Sheldon, *In His Steps*, 246: “만약 우리가 내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의가 단순히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관대하며, 재미있는 친구들과 안락한 것들에 둘러싸여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그럴듯하게 사는 동시에, 세상에서 겪는 죄와 골칫거리에 대한 큰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므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내리는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확실히 우리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믿음과 눈물과 고뇌의 흐느낌으로 길을 걸으시고 굵은 빗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 교리와 성약 88:91.
 - 이사야 43:3 참조.
 - 요기 19:25 참조.
 - 요한복음 8:12 참조.
 - 요한복음 14:6.
 - 니파이전서 3:7 참조.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늘 부모의 아들과 딸로서 “신성한 성품과 영원한 운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이는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해함으로써 그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상당수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 우리 모두 더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깊이 이해받는 것입니다.”³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깊이 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보시며,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어부와 죄인, 세리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괴로움을 넘어서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⁴

바쁘게 사는 중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필요 사항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⁵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저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자주 생각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고 있나? 두번째는 해야 하는 것을 하도록 무엇을 하고 있나입니다.⁶

몇 달 전, 성찬식에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릴 때 핸드폰 보는 일을 그만두거라.” 줄 서 있을 때면 저는 거의 자동으로 핸드폰을 보곤 했습니다. 못 봤던 이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SNS를 살펴보는 등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점에서 계산대 앞의 긴 줄에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 앞에서 있는 노신사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카트는 고양이 사료 몇 캔이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되긴 했지만 “고양이를 키우시나 봐요.”라고 제 나름으로는 재치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폭풍우 예보가 있어서 고양이 사료를 미리 사 놓으려 왔다고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그분은 저를 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분께 생신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넌 뒤, 제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은 덕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진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공감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것에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여리고로 가는 길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 피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⁷ 하지만 저는 너무나 자주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을 봄

최근에 저는 로즐린이라는 한 청년에게서 깊이 보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년간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 비탄에 빠져 있었던 제 친구가 들려준 것입니다. 아이들이 전남편 집에 가 있던 때에, 친구는 교회에 혼자 참석한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에서 혼자 앉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야. 그 첫 일요일에 교회로 걸어 들어가며 나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눈물이 나오기 직전이었지.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비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어.

우리 와드의 한 청녀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어. 나는 미소 짓는 척했지. 그 아이도 나에게 미소를 보냈어. 그 아이 표정에 걱정이 묻어나더라고.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어. 난 긍정적인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을 거고 울어 버릴 게 뻔했으니까. 난 무릎을 내려다보며 눈이 마주치는 걸 피했어.

성찬식 모임 한 시간 동안 그 아이가 이따금 뒤를 돌아 나를 보는 걸 눈치챘어. 모임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는 곧바로 나에게 다가왔어. 난 ‘안녕 로절린’이라고 작게 이야기했어. 그 아이는 두 팔로 나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어. ‘스미스 자매님, 오늘 힘드시지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예상했던 것처럼, 눈물이 흘렀고 그 아이는 나를 다시 안아 줬어. 그 아이와 헤어져 걸어가면서 나는 ‘어쩌면 잘해 낼 수 있을 거야.’라고 혼잣말을 했어.

내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16살 된 이 다정한 청녀는 그해 내내 일요일이면 나에게 와서 나를 안아 주며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었어. 그것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내 기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이의 포옹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었어. 나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써 주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흔쾌히 주고자 하시는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깊이 보려면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고**, 그런 다음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즉 무한하고 신성한 잠재력을 지닌 그분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영의 속삭임에 따라 사랑과 봉사로, 그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확신하며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믿을 수



브라질 상파울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따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그 빈 의자에 홀로 앉아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자 했던 20년의 노력이 부질없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진정과 안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문득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했지? 보상을 받으려고, 아니면 다른 이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것도 아니면 바라는 결과를 얻으려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곰곰이 생각해 본 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구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나는 그분의 복음을 사랑해.” 주님은 그녀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각의 변화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실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지쳐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보시듯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위대한 날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기]를”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 열왕기하 6:15~17.
- 청녀 주제, ChurchofJesusChrist.org.
- David Brooks, “Finding the Road to Character” (Brigham Young University forum address, Oct. 22, 2019), speeches.byu.edu.
- 마가복음 5:1~5 참조.
- “우리는 장차 신과 여신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재미없고 또 지루했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당장이라도 옆드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There are no ordinary people” (C. S. Lewis, *The Weight of Glory* [2001], 45–46).
- 김 비클라크, “불에 둘러싸여서”[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위성 방송, 2015년 8월 4일], lds.org/broadcasts).
- 누가복음 오전 10:30~32 참조.
- 모로나이사서 7:48.
- 모로나이사서 7:48; 강조제 추가.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로움과 단합으로 맺어진 마음

교회 역사에서 200주년을 맞이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롭게 살며
단합하는 데 헌신합시다.

의로움과 단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¹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고자 의롭게 애쓸 때, 사회는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며, 더 단합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음 실화를
좋아합니다.

젊은 장군 토머스 엘 케인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나부를 떠나야 했을

때, 연방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지켜 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옹호했습니다.²

1872년에 케인 장군은 재능 있는
아내 엘리자베스 우드 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펜실베이니아의 집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브리검 영 일행과 함께 유타주 남부

세인트조지로 여행을 했습니다. 유타에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엘리자베스는
그곳의 여성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실을 알고
나서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유타주에서는 여성이 생계를 위해
어떤 직업이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³ 또한, 교회 회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⁴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필모어에 있는
토머스 알 킹과 마틸다 로비슨 킹 부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⁵

엘리자베스는 마틸다가 영 회장과 그의
일행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다섯 명의 원주민들이 방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합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킹
자매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담요를 깔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킹 부부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어머니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고 물었습니다.

마틸다의 아들은 “어머니께서는 먼저
오신 분들을 위한 음식밖에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위한 음식도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그저 부엌 문가에서 남은
음식을 주실까?”⁶ 하고 물었습니다.

마틸다의 아들은 “어머니는 아주머니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식탁에서 음식을 대접하실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틸다는 그렇게 했으며,
“원주민들은 매우 예의 바르게
식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안주인이
자신의 생각을 단숨에 뒤집어 놓았다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야알레마나

설명했습니다.⁷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품위 있게 대할 때 단합이 강화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과거에는 모든 관계가 완벽했다거나, 모든 품행이 그리스도와 같았다거나, 모든 결정이 공정했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종교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배우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마음과 뜻이 의로움과 단합으로 맺어지고,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⁸

의로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한다는 뜻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⁹ 의로움은 성약의 길을 구성하는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며,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축복해 줍니다.¹⁰

의롭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의 모든 축복을 지금 누리지는 못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축복받지 못하거나 소망하는 다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충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¹¹

단합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계명을

틀림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¹² 단합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맺어진 시온의 백성을 의미합니다.¹³

저는 경전에 나오는 대조적인 기록들과 그 교훈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1820년에 처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신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몰몬경의 제4니파이에는 구주께서 고대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지 200여 년이 흐른 시점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4니파이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이런 의로움 때문에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¹⁴

단합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¹⁵

안타깝게도 제4니파이에는 “제이백일년”에 죄악과 분열로 의로움과 단합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극적인 변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¹⁶ 그때 일어난 타락이 점점 깊어져 그 후에 너무나 악해졌으므로 결국 위대한 선지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한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것처럼 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을 멈추시기를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으리요?”¹⁷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으나, 세상은 제4니파이에서 묘사된 의로움과 단합으로 축복받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분열이 특히 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로움과 단합을 이루려고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미국 유타주 프로보

축복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200주년을 맞이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주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롭게 살며 단합하는 데 헌신합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더 정중함을 보이며, 인종과 민족 간에 조화를 이루고 상호 존중합니다.”¹⁸ 이 말씀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이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교리를 통해 우리는 단합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으며 다양성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단합과 다양성은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단합할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스페인어와 통가어, 사모아어, 타갈로그어, 북경어를 사용하는 회중들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와드들도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사랑과 의로움과 단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와드와 지부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회중을 제외하고는, 인종이나 문화권에 상관없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경계가 정해집니다.¹⁹

회원 기록에는 인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약 550년 전인 몰몬경의 초반부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계명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며 주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²⁰

구주의 성역과 메시지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관되게 선언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의 교리에 따라,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 국가인 미국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작성한 미국의 헌법²¹과 관련 문서들²²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서들은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였으며 의롭고 거룩한 원칙에 따른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합니다.²³ 그 원칙들 중 두 가지는 선택의지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헌법을 제정하되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일으켜 세운 현명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이 땅을 구속하였느니라.”²⁴

이 계시는 1833년,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이 큰 탄압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폭도들은 그들을 잭슨군에 있는 집에서 쫓아냈고, ... 교회 [회원들에] 대한 죽음의 위협도 많았다.”²⁵

당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시기였습니다. 미주리의 많은 주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잔인한 적으로 여겼고, 그 땅에서 몰아내려 했습니다. 더욱이 미주리주 정착민 대부분이 노예 소유주였기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교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자 열망했습니다.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도 경전에는 누구도 서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²⁶

결국 성도들은 미주리주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났고²⁷, 서부로 이주해야 했습니다.²⁸ 성도들은 의로움과 단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번영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주의 증보 기도를 좋아합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며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²⁹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8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된 첫 해에 주님께서는 전쟁과 악함에 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³⁰

우리 교회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서신은 심오합니다.³¹ 로마의 초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기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었고 “해방을 얻었으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³²

로마의 이방인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경험으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 양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상충하는 면들을 열거합니다.³³ 기본적으로, 그는 그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신념과 문화에서 기인한 문화적 장애를 멀리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권고합니다.³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는 이방 문화 또는 유대 문화 그 어느 쪽도 아니며, 개인의 피부색이나 거주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그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충하는 측면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회원들과 새로운 개종자들은 종종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휘장 양면에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라는 벨스 회장님의 권고를 따르려 한다면, 바울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만큼이나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서 단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와 교리를 따르는 원리를 확립하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³⁵ 성전 의식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합시키며, 우리는 성전 의식을 통해 영원히 중요한 모든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개척자 회원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생을 치렀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열망하며 신앙을 세우고 구주와 하나가 되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구주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³⁵ 이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향한 분명한 요청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는 시온의 백성이 되고자 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³⁶



칠레 발파라이소 케브라다 데 알바라도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단합하여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2. 토머스 케인이 회원들을 위해 행한 봉사는 “잔인하고 적대적인 다수가 소수 종교인에게 가한 불의를 목격할 젊은 이상주의자의 이타적인 희생 행위”로 일관되게 묘사되어 왔다. (introduction to Elizabeth Wood Kane, *Twelve Mormon Homes Visited in Succession on a Journey through Utah to Arizona*, ed. Everett L. Cooley [1974], viii).
3. See Kane, *Twelve Mormon Homes*, 5.
4. See Kane, *Twelve Mormon Homes*, 40.
5. See Lowell C. (Ben) Bennion and Thomas R. Carter, “Touring Polygamous Utah with Elizabeth W. Kane, Winter 1872–1873,” *BYU Studies*, vol. 48, no. 4 (2009), 162.
6. 엘리자베스는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이 원주민들에게 그제 남은 음식을 주거나 자기 손님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을 취급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7. See Kane, *Twelve Mormon Homes*, -65. 여러 명의 추장을 비롯해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교회 회원이 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See also John Alton Peterson, *Utah's Black Hawk War* (1998) 61; Scott R. Christensen, *Sagwitch: Shoshone Chieftain, Mormon Elder, 1822–1887* (1999), 190–95.
8. 이 경령의 시대에 “의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아지고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이르리라.” (교리와 성약 45:71).
9. 교리와 성약 105:3–5 참조. 경전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의로움의 필수 요소로 꼽았다.
10. 엘마서 36:30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2:20, 모사이야서 1:7 참조. 엘마서 36:30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 이제 이는 그의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11. 모사이야서 2:41. 로렌조 스노우 회장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있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 말한다면, 만일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할 기회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2012], 130. 모사이야서 2:41; 또한 리처드 지 스크트,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성도의 빛』, 1996년 11월호, 75쪽 참조.
12. 요한1서 5:2 참조.
13. 모사이야서 18:21; 또한 모세서 7:18 참조.
14. 제4니파이 1:16.
15. 제4니파이 1:15.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 추천됨

“주님께 추천”되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16. 제4니파이 1:24.
17. 모로나이서 9:13~14.
18. Russell M. Nelson, in “First Presidency and NAACP Leaders Call for Greater Civility, Racial Harmony,” May 17, 2018,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see also “President Nelson Remarks at Worldwide Priesthood Celebration,” June 1, 2018,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19. 교리와 성약 90편 11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 자기 자신의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 따라서 보통으로 회중의 언어가 다르면 독립 단위 조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니파이후서 26:33.
21. Se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22. See 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mendments I - X (Bill of Rights).
23. 교리와 성약 101:77, 강조체 추가.
24. 교리와 성약 101:79~80.
25. 교리와 성약 101편, 머리말
26.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년」(2018), 172~174쪽; James B. Allen and Glen M. Leonard, *The 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2nd ed. (1992), 93-94; Ronald W. Walker, “Seeking the ‘Remnant’: The Native American during the Joseph Smith Period,” *Journal of Mormon History* 19, no. 1 (spring 1993): 14-16.
27. 「성도들」, 제1권 359~383쪽 참조, William G. Hartley, “The Saints’ Forced Exodus from Missouri,” in Richard Neitzel Holzapfel and Kent P. Jackson, eds.,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Seer* (2010), 347-89; Alexander L. Baugh, “The Mormons Must Be Treated as Enemies,” in Susan Easton Black and Andrew C. Skinner, eds., *Joseph: Exploring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Prophet* (2005), 284-95.
28.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1846~1893년」(2020), 3~68쪽 참조, Richard E. Bennett, *We’ll Find the Place: The Mormon Exodus, 1846-1848* (1997); William W. Slaughter and Michael Landon, *Trail of Hope: The Story of the Mormon Trail* (1997).
29. 요한복음 17:21.
30. 교리와 성약 38:27.
31. 로마서는 포괄적으로 교리를 선포하고 있다. 로마서에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속죄에 대한 언급이 담겨 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회원들로 가득한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할 때에, 나는 다양한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로 모은 로마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32. F. W.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1898), 446.
33. See Farrar, *The Life and Work of St. Paul*, 450.
34. 로마서 13장 참조.
35. 델린 에이치 옥스, “복음 문화,” 「리아호나」, 2012년 3월호, 22~25쪽 참조; 또한, 리차드 지 스코트, “행복의 걸림돌을 제거함”, 「성도의 빛」, 1998년 5월호, 85~87쪽 참조.
36. 모세서 7:18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연차 대회를 위해 이렇게 가상으로 함께 모일 기회를 고대해 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어느 해와 달랐습니다. 제게 있어서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헌납하라는 제일회장단의 임무 지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반 성전 건물의 장엄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외적인 모습보다도, 그 성스러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들의 위엄을 항상 소중히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 회원들은 회복이 주는 최고의 축복 중 하나인 주님의 집 헌납 행사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고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왔으며, 그들의 마음은 우리를 승영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의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상태로 왔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성전은 세상의 방식보다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있는 168개의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모든 후기 성도 성전은 영생을 믿는 우리 신앙의 표상이자, 우리 가족 및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영생에서 느낄 기쁨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하는 것은 신화와 영원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더하고, 진리에 따라 생활하며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더 강하게 하며 또한 우리 주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킵니다.

교회의 모든 성전 외벽에는 “주님께 기록함”이라는, 성전에 합당한 문구가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이며 세상과 분리된 성소입니다. 주님의 영은 그 성스러운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감싸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손님으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해야 할 표준을 정하십니다.

제 장인어른이신 블레인 트위첵은 제가 이제껏 만나 본 가장 훌륭하신 분들 중 한 분으로, 제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 필멸의 여정을 마치실 무렵, 아내와 저는 함께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장인어른의 감독님께서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드의 충실한 회원에게 성역을 베풀러 이곳에 오시다니, 정말 훌륭한 감독님이시구나.”

저는 장인어른께 말했습니다. “저렇게 방문하시다니 훌륭한 감독이시네요.”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오셨다네. 내가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하고 싶어서 감독님께 와 달라고 부탁했지. **주님께 추천되어** 저세상으로 가고 싶었거든.” 장인어른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추천되어”라는 표현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 표현은 교회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접견을 갖는 것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교회 초기에는 성전 추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1891년까지는 교회 회장이 직접 각각의 추천서에 서명했습니다.¹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성전 추천서 접견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추천서는 점검포나 건물 출입증, 또는 특별한 좌석을 위한 입장권이 아닙니다. 성전 추천서에는 더 높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특권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접견하는 동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 관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볼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과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기꺼이 지지하는 여러분의 마음, 복음 교리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이 성취한 일들, 정직, 순결, 정절, 순종, 지혜의 말씀과 십일조의 법, 또 거룩한 안식일의 법을 준수하는 여러분의 성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는 생활의 반석이 되는 원리입니다.

성전 추천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또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겸손, 온유, 굳건함, 자애, 용기, 연민, 용서 및 순종을 사랑하려 노력한다는 깊고도 영적인 의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성스러운 문서에 서명할 때, 여러분은 그와 같은 표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전 추천서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권리와 의식을 받을 수 있는 하늘 문을 여러분과 다른 이들에게 열어 주며, 여기엔 침례와 엔다우먼트, 결혼, 그리고 인봉이 포함됩니다.

“주님께 추천”된다는 것은 성약을 지키는 후기 성도로서 기대되는 바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는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될 날을 위한 고귀한 준비로 여기셨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 여호와께서 불불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²

성전 문에서 신을 벗는 것은 영적 성장으로부터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쾌락을 내려놓고, 소중한 필멸의 생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쳐 놓으며, 논쟁적인 행동을 극복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한 시간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우리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체를 경건하게 다뤄야 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노래 가사는 참으로 진리입니다. “내 몸은 성전이니 열심히 보살펴야 하네.”³ 주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⁴ 주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신 다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⁵ “주님께 추천”되기 위해 우리는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이 제14대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⁶ 저는 제한 사용 추천서가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알려 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헌터 회장님의 말씀에 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94년 6월 4일은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성전 추천서가 제 지갑 속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날입니다. 그 말씀 이전의 성전 추천서는 제게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성스러운 집에 들어가게 해 주는 수단이었으나, 헌터 회장님의 말씀 이후로는 추천서 소지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추천서는 제가 하나님께의 선지자에게 순종한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⁷

만일 아직 추천서를 받지 못했거나 추천서의 기한이 만료된 분이 있다면, 초기 성도들이 1845년과 1846년에 나무 성전 문 앞에 줄지어 섰던 것처럼 감독실 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⁸ 당시 충실한 성도 중에는 제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도시를 버리고 서부로 가야 했지만, 성스러운 경험들이 성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오와의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사라 리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신앙이 없었다면, ... 우리의 여정은 마치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⁹ 성전에서 약속된 영감과 평안 없이 이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지식과 신앙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추천”되는 과정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영이 풍성하게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그분의 표준이 여러분에게 “양심의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¹⁰

청소년 지도자, 장로 정원회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 형제 성역자와 자매 성역자들이 여러분의 준비를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과 그분 곁에서



미국 유타주 프로보

봉사하는 저희에게 있어 성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영감받은 결정은 “고통스러웠”으며, 저희는 “염려로 마음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자문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께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브리검 영, 윌포드 우드럽, 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이르는 다른 회장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¹¹

이제는 감사하게도 점진적으로 성전을 다시 운영하게 되어, 제한된 규모로 인봉과 엔다우먼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 자체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성전에 갈 수 있든 없든, 성약의 길에서 확고부동하게 머물기 위해서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가 필요함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지난해 말, 아내와 저는 뉴질랜드에서 많은 청년 독신 성인에게 말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밀턴 성전은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오클랜드 성전은 여전히 기공식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청년 독신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거나 갱신하라고 권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비록 성전에 가서 추천서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정결하고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된 그들 자신을 주님 앞에 보일 수는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삶에 대한 확고한 결심으로 인해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이며, 또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찾고, 의식을 받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제출할 때 우리는 성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운영이 중단되었더라도, 가족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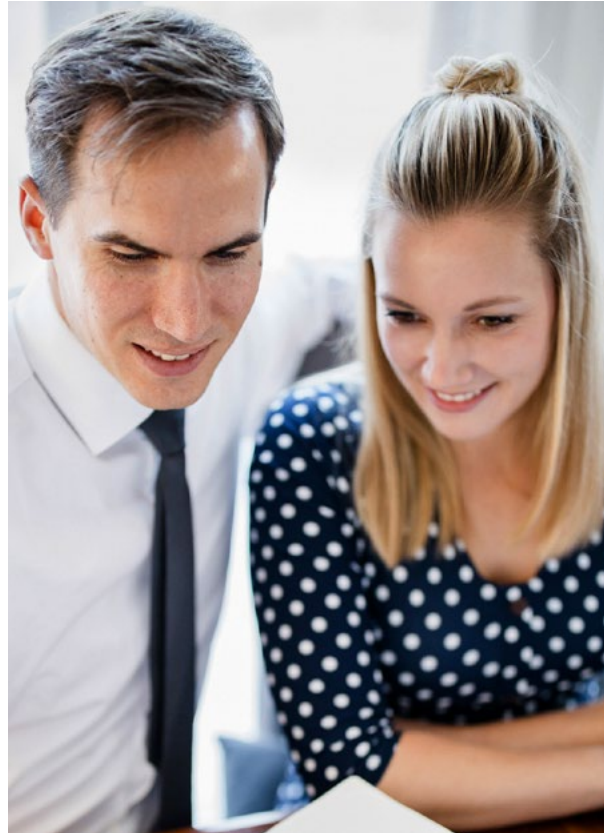
영을 품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주님께 추천”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부 집행 책임자로 봉사할 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주님께서 나무 성전에 관해 말씀하신 다음 성구를 자주 언급하시곤 했습니다. “나의 성전의 일과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모든 일을 계속하고 그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부지런함과 너희 불굴의 정신과 인내심과 너희 일을 배가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결단코 너희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¹²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원한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시험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 불굴의 정신과 인내심”으로¹³ 성전에서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 추천”되려면 그런 성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계속해서 성전 성약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그에 관해 계속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성전이 온전히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키우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전 학습과 가족 역사 탐구, 신앙의 기도를 확장시켜 성전 추천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노력을 배가하려 노력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성신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며, 여러분이 맺은 성스러운 성약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께 추천”되었음을 알기에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In James R. Clark, comp.,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833-1964* 6 vols. (1965-75), 3:229.
2. 출애굽기 3:5.
3. “My Body Is a Temple,” *The Children Sing* (1951), no. 99.
4. 제3니파이 27:20.
5. 제3니파이 27:27.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터블유 헌터*(2015), 263쪽.
7. *Teachings of Russell M. Nelson* (2018), 373.
8.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2018), 582~71쪽 참조.
9. Sarah P. Rich, *Autobiography, 1885-1890*,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66.
10. 모사이사서 4:3.
11. Sarah Jane Weaver, “President Nelson Talks about the ‘Painful’ Decision to Close Temples amid COVID-19,” *Church News*, July 27, 2020.
12. 교리와 성약 127:4.
13. 교리와 성약 127:4.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다른 사람의 가치에 대한 비전이 생기며,
편견을 딛고 일어설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에서 말씀드리는 몇 가지 예시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 제가 가르칠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우리는 정치적 관계와 정책에 있어 분노와 증오가 만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울여름, 일부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의 경계를 넘어 파괴적인 행위에 가담했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느꼈으며, 현재 진행되는 몇몇 공직 선거 운동에서도

그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증오 중 일부는 교회 모임에서 정치적인 발언과 불친절한 언급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 정부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정책을 두고 일어나는 의견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 논쟁하거나 비판하는 여러 상황에서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주의 가르침 가운데 분명 잘 알려져

있지만 좀처럼 실천되지 않는 한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3~44)¹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원수를 미워하도록 가르침 받았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로마의 통치와 잔혹함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와 정치적 관계에 관한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주께서는 그와 같이 명하십니다. 물론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버지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제3니파이 11:29)

원수와 적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 그 정도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능력 이상의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²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마태복음 22:37, 39) 두 가지 큰 계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사모아 아피아



가나 아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태복음 7:7)³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법 또한 따라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성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행히도
구주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율법과 인간이
만든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과연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으로 적들이
구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자, 그분은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사의 형상을 가리키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누가복음 20:25)⁴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통치하에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의 법을 따라야
하고(가이사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떻게
하면 적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노여움으로 다투”지 말라는 구주의
가르침은 그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악마는

분쟁의 아버지이며, 노여움으로 다투도록
사람을 유혹하는 이가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는 개개인과 무리 속에서 적대감을
키우고 증오하는 관계를 부추깁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분노는 “사탄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사탄의
영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⁵ 분노는 분열과
적대감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어긋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적의를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적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한 뮤지컬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또 다른 단순한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을 더
잘 알아 가려 힘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때 낯선
이에 대한 불신이나 적대감은 사라지고
우정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⁶

적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랑의 힘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많은 선지자의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온 인류를 향해 우리의 친절을
보여 줍시다.”⁷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전 세계의 남녀가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질시와 교만이 없는 사랑이며,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
편협이나 증오나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국적,
재정 상태, 교육 또는 문화와 관계없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살도록 권장해 줍니다.”⁸

또한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전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⁹

원수를 사랑하는 일의 기본은 우리가 속한 다양한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혁명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분이 혁명이나 위법을 가르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나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계시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의 법을 어기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런즉 ... 현존하는 권세에 복종하라.”(교리와 성약 58:21~22)

초기 성도들이 미주리주 정부 관리들의 심각한 박해로 고통을 받은 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작성했던 신앙개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1:12)

이것은 우리가 법의 힘으로 집행되는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법률에 순종하며, 법을 바꾸기 위해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함을 뜻합니다. 또한 선거의 결과를 평화롭게 수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거의 결과에 실망한 사람들이 선동하는 폭력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며 평화롭게 살아갈 기회와 의무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주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원리와 더불어 율법의 몇몇 기본 원리들은 최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의 내용상 또는 집행상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거기에 촉각을 집중시키기 위한 공인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함은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집단으로서의 공적인 행동과 타인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속에 인종차별과 또 그와 관련된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전미 유색인 권리 향상 연합(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NAACP)의 테리사 에이 디어 목사는 설득력 있는 개인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인종차별은 증오, 억압, 수동적인 태도, 무관심,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¹¹ 시민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인종차별 근절에 힘을 보태고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반대편 극단에서는 시위 및 그에

따른 불법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사람 중 일부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시위는 평화적인 시위라는 사실을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위자들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고 훼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정부의 적법한 경찰 권력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혁명이나 무정부 상태를 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경찰, 시위대, 지지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닌 권리의 한계와 현존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를 의무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폭도의 법으로 바로잡아야 마땅할 부당함은 없다.”라고 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은 옳았습니다.¹² 폭도의 힘으로 부당함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향력 있는

정부와 공식적인 경찰이 부재한 무정부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기보다는 오히려 훼손되고 맙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시위가 그토록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라면 몰라도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 간의 적대심과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인종차별 근절에 관하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의 시위에서 전면이 부각된 흑인 미국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미나 아시아계, 그리고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는 인종차별에 관한 슬픈 역사가 있으며, 우리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은 국적과 인종이 다양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들을 한데 묶어 주었던 목적의식은 특정 종교를 설립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민자들 본국의 다양한 문화 중 하나 또는 어느 한 종족의 종족 중심주의를

영속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세웠던 세대는 새로운 헌법과 법률을 통해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헌법이 완벽했거나, 당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역사의 첫 200년은 헌법과 법률의 많은 부분에 개선이 필요했음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예컨대 여성의 투표권이 그러했고, 특히 노예제의 폐지와 더불어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자유로운 이들이 누리는 권리를 모두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두 학자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성과 분열이 존재하는 사회를 통합할 특출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

미국의 시민은 민족 주체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미국인은 그 둘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열쇠가 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애국심이다. 우리는 이념적 이견과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그리고 헌법을 통해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¹³

오래전 영국의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열린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를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국익이며, 우리는 이 유익을 좇을 의무가 있습니다.”¹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문제에서 “영원한” 유익을 좇을 훌륭한 세속적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주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서는 우리가 좇을 또 다른 영원한 유익을 알려 줍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헌법과 많은 나라의 기본적인 법률에 영감을 준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일시적인 “동맹” 대신 확립된 법에 충실하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가운데 적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다른 모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성한 비전이 생기며, 편견과 인종차별을 딛고 일어설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 나라의 여러 주를 다니며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세계 이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법을 개선하고자 힘쓰는 동시에 적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또한 누가복음 6:27-28, 30 참조.
2. 고든 비 헝클러,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

-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61, 64쪽; see also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230.
3. 또한 교리와 성약 6:5 참조.
4. 또한 마태복음 22:21; 마가복음 12:17 참조.
5. 토마스 에스 몬슨,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나의 형제여”,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8쪽.
6. See Becky and Bennett Borden, “Moving Closer: Loving as the Savior Did,” *Ensign*, Sept. 2020, 24.
7.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517. 마틴 루터 킹 2세(1929~1968)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폭력을 폭력으로 돌려주면 폭력이 배가되며, 이미 별 하나 없는 밤에 더욱 짙은 어둠을 더한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Where Do We Go from Here: Chaos or Community?* [2010], -65)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2015), 263쪽.
9. 러셀 엠 넬슨,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1쪽; see also *Teachings of Russell M. Nelson* (2018), 83.
10. See “A House Divided,” *The Economist*, Sept. 5, 2020, 17–20.
11. Theresa A. Dear, “America’s Tipping Point: 7 Ways to Dismantle Racism,” *Deseret News*, June 7, 2020, A1.
12. Abraham Lincoln, address at the Young Men’s Lyceum, Springfield, Illinois, Jan. 27, 1838, in John Bartlett,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18th ed. (2012), 444.
13. Amy Chua and Jed Rubenfeld, “The Threat of Tribalism,” *Atlantic*, Oct. 2018, 81, theatlantic.com.
14. Henry John Temple, Viscount Palmerston, remarks in the House of Commons, Mar. 1, 1848; in Bartlett,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392; emphasis added.



인도 뱅갈루루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및 본부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러셀 매리언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델린 해리스 옥스를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린 해리스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엠 러셀 벨라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그리고 울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하는 장로님들을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직에 임명했습니다.



일본 치바

엘 휘트니 클레이튼, 엔리케 알 팔라베야, 리처드 제이 메인즈.

이분들과 그들의 가족 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엘 토드 버지 장로님을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딘 엠 데이비스 감독님과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님을 각각 감리 감독단 제1보좌와 제2보좌에서 해임했습니다.

이 형제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했습니다. 루벤 아코스타, 르네 알 알바, 알베르토 에이 알바레스, 블라디미르 엔 아스타쇼프, 호세 바타야, 브렛포드 시 보웬, 세르히오 루이스 카르보니, 아만도 카레온, 에스 마크 클레이 이세, 지 도미니크 데카에, 오스발도 알 디아스, 마이클 엠 더들리, 마크 피 더럼, 이 자비에르 에스피노자, 제임스 이 에반슨, 파스쿠알 에프 포르투나토, 샘 엠 겐베즈, 파트리시우 엠 지우프라, 레너드 디 그리어, 대니얼 피 홀, 토루 하야시, 폴 에프 힌즈, 아돌프 제이 조한슨, 위시트 카나컴, 구승훈, 페드로 엑스 라리엘, 조니 엘 레오타, 호세 이 마라빌라, 요엘 마르티네즈, 조아킹 제이 모레이라, 아이작 케이 모리슨, 에두아르도 에이 노람부에나, 페르디난드 피 판간, 자이루스 시 페레즈, 스티븐 엠 피터슨, 제이 디 피멘텔, 에드발도 비 핀토 이세, 알렉시 브이 사마이킨, 케이 데이비드 스코트, 룰론 에프 스테이시, 칼 엠 털먼, 윌리엄 알 티테라, 카를로스 알 톨레도, 세사르 이 비야르, 데이비드 티 와너, 게리 케이 와일드, 윌리엄 비 오안.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인도 벵갈루루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가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되고 명예 칠십인으로 임명되었으며, 칠십인 회장단에서도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은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지를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딘 엠 데이비스를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텔을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엘 토드 버지를 감리 감독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로리안

피 발리레무와, 조너선 더블유 벵커, 엔리케 알 마요르가, 콘스탄틴 톨로미프.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직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한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지속 가능한 사회

충분한 수의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이 풍족히 채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주에 관한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준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유엔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속한 인류와 세상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의제에는 2030년까지 달성할 17개의 목표가 포함되었는데, 빈곤 종식,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양질의 일자리 등이 그 예입니다.¹

지속 가능한 발전은 흥미롭고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번영하는 사회는

구성원의 행복, 진보, 평안, 그리고 복지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경전의 기록에서는 것처럼 번영했던 사회의 예를 두 가지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고대의 위대한 족장이자 선지자였던 에녹은 의를 전파했으며,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²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³

“그리고 주가 그 땅을 축복하니, 그들이

산 위에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더라.”⁴

1~2세기에 걸쳐 서반구에 살았던 백성인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도 번영한 사회에 관한 매우 좋은 예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역을 베푸신 뒤, “[그들은] 저들의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좇아 행하며,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습니다]. ...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⁵

예로 든 이 두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은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덕분이었습니다.⁶ 그들은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서로 물질적, 영적 복리를 보살폈습니다. 교리와 성약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사회였습니다.⁷

안타깝게도, 쿠엔틴 엘 쿡 장로님께서 오늘 오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물문경의 제4니파이에 그려진 이 이상 사회는 이백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번영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의 평안과 번성을 지탱하는 기본 덕목을 저버린다면 결국 쇠락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여 “여러 계급으로 나뉘기 시작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⁸

또한, “삼백 년이 지나[자],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심히 간악”해졌습니다.⁹

그다음 한 세기가 끝나 갈 무렵에는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때 조화를 이루었던 그 나라는 부족 간의 싸움으로 몰락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한때 번영했으나 이후 몰락한 사회들의 예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고 “사람의 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재앙이 엄습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창조하신 신성한 존재를 무시하고, (다른 표준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는 한편) 부와 권력, 세상의 칭송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사람들은 베냐민 왕의 말과 같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의 영광의 지식 안에서, 곧 바르고 참된 것의 지식 안에서 자라”고자 힘씁니다.¹⁰

가족과 종교라는 제도는 개인과 공동체에 영속적인 사회를 지속시키는 덕목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전에 뿌리를 둔 이러한 덕목에는 고결성, 책무와 책임감, 동정심, 결혼 및 결혼 생활 안에서의 정절, 다른 사람과 그 소유물에 대한 존중, 봉사, 일의 필요성 및 존엄성 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명예 편집장인 제라드 베이커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자신의 아버지 프레더릭 베이커를 기리며 올해 초 칼럼을 썼습니다. 베이커는 아버지가 장수하는 이유를 서술하는 듯하다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다들 장수의 비결을 알고 싶겠지만,

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든,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더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장수 비결을 분명히 안다.

아버지는 주로 권리가 아닌 의무로, 개인적 특권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삶이 규정되던 시대를 사신 분이다.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주요 원리는 가족과 하나님, 국가에 대한 책임 의식이었다.

가족 붕괴의 참혹한 결과가 만연하는 시대에, 아버지는 46년간 함께한 아내에게 헌신하는 남편이었고, 여섯 자녀에게는 충실한 아버지였다. 자녀를 잃는 끔찍한 비극으로 고통받을 때도,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며 활력을 잃지 않으셨다. …

종교를 갖는 것이 점점 더 흔치 않은 일이 되어 가는 시대에, 내 아버지는 참되고 충실한 가톨릭 신자로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셨다. 사실 나는 이따금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셨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아버지보다 생을 마감할 준비가 더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세상적으로도 분에 넘치는 성공을 거둔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과 감사는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감정 없이, 보상은 물론 인정에 대한 기대도 없이, 단순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덕한 삶을 사는 즐거움으로 한 세기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창가 인디언 보호구역

걸어오신 분이니 말이다.”¹¹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종교와 종교적 신앙이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¹² 종교적인 믿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늘의 영향력 없이 그렇게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영향력이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니라.]”¹³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존재하는 시공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양심이라 불리곤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탓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에서 개인적인



브라질 파라나 피냐이스

덕성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이 분리되어 버리면, 식물이 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문화와 전통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에서 덕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가장 높은 신이라 여기고 자신의 욕구와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을 가장 큰 선으로 여기며 추구한다면, 머지않아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동의 여부가 성적인 행위의 유일한 제약인 사회가 있다면 이는 붕괴하는 사회입니다. 간음, 성적 난잡함, 혼외 출산,¹⁵ 선택적 유산 등의 쓴 열매는 계속되고 있는 성 인식에 대한 혁명 같은 변화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가 늘고, 그것이 수 세대에 걸쳐 계속되며, 부부가 함께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가정의 실패를 보상하는 임무를 맡으며 심각하게 열악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등이 건강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역행하며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¹⁶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 더해, 개인이 비통과 절망에 빠지는 예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죄지는 이와 무죄한 이가 모두 정신적, 감정적 파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교훈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

요컨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떨며, 노하는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진저!”¹⁷

그에 반해 우리는 우리 자녀와 모든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더 나은 길, 즉 바울이 언급했던 “가장 좋은 길”을 알려 줍니다.¹⁸ 그 길을 따라가면 지금은 개인적인 행복과 공동체의 복지를, 앞으로는 영원히 이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그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표시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계명은 그분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속죄를 이루시고자 고난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모든 인류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서, 삶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¹⁹

물론정에서 “판사 치세” 9년에 들어서면서, 선지자 엘마는 교회의 지도자 직분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대판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백성들, 특히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 커지는 교만과 핍박, 탐욕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²⁰ 스티븐 디 나달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엘마의] 영감받은 결정은 그

백성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을 만들거나 강제하고자 힘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려 했고, 그들이 구속의 계획을 이해함으로써 행동을 바꾸게 하려 했습니다.”²¹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을 위해 이웃과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봉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깃든 진리를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선조들이여
친구와 원수를 모두 사랑하며
사랑이 가르쳐 주었듯
말씀과 윤택한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리²²**

충분한 수의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결정하고 삶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이 풍족히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²³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심이라.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보라, 누구에게 그가 소리쳐 이르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이르시기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겹과 꿀을 사라 하시느니라.”²⁴



스티븐 제이 런드
본부 청남 회장

“엄숙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이를 선포하며,²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See “The 17 Goal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ebsite, sdgs.un.org/goals. [옮긴이-한국어 번역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포털을 참고함. <http://ncsd.go.kr/unsdgs>]
 2. 모세서 7:19.
 3. 모세서 7:18.
 4. 모세서 7:17.
 5. 제4니파이 1:12, 16.
 6. 마태복음 22:37, 39.
 7. 교리와 성약 82:19.
 8. 제4니파이 1:26.
 9. 제4니파이 1:45.
 10. 모사이야서 4:12.
 11. Gerard Baker, “A Man for All Seasons at 100,” *Wall Street Journal*, Feb. 21, 2020, wsj.com.
 12. See Ronald F. Inglehart, “Giving Up on God: The Global Decline of Religion,” *Foreign Affairs*, Sept./Oct. 2020, foreignaffairs.com; see also Christine Tamir, Aidan Connaughton, and Ariana Monique Salazar, “The Global God Divide: Majorities in Emerging Economies Connect Belief in God and Morality,” Pew Research Center, July 20, 2020, pewresearch.org.
 13. 교리와 성약 93:2; 또한 모로나이서 7:16, 19 참조.
 14. 보이드 케이 패커, “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4월호, 10쪽; See also D. Todd Christofferson, “Truth Endures,” *Religious Educator*, vol. 19, no. 3 (2018), 6.
 15. 이 예시에서 “쓴 열매”는 자녀들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소중하며, 모든 생명은 출생 환경에 관계 없이 값이 없지 않을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이다.
 16. See, for example, Pew Research Center, “The Changing Profile of Unmarried Parents,” Apr. 25, 2018, pewsocialtrends.org; Mindy E. Scott and others, “5 Ways Fathers Matter,” June 15, 2016, childtrends.org; and Robert Crosnoe and Elizabeth Wildsmith, “Nonmarital Fertility, Family Structure, and the Early School Achievement of Young Children from Different Race/Ethnic and Immigration Group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15, no. 3 (July–Sept. 2011), 156–70.
 17. 니파이후서 28:26, 28.
 18. 고린도전서 12:31.
 19. 엘마서 33:22 참조.
 20. 엘마서 4:6~19 참조.
 21. Stephen D. Naudal, *Principles of Priesthood Leadership* (1999), 13; 또한 엘마서 31:5 참조.
 22. “Faith of Our Fathers,” *Hymns*, no. 84.
 23. 요한복음 3:16 참조.
 24. 니파이후서 26:24~25; 또한 니파이후서 26:33 참조.
 25. 교리와 성약 100:7.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음

이 삶에서 기쁨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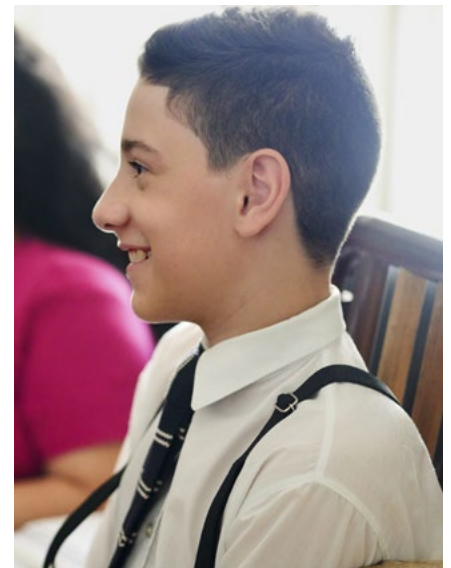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모든 일을 하라고 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명하시는 일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몇 해 전, 저희 가족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른 많은 가족들 역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아들인 태너 크리스천 런드에게 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홉 살 난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태너는 놀라운 영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너는 유쾌한 장난꾸러기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는 놀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그는 꼬마 도깨비이자 천사였고, 말썹꾸러기이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태너가 장난으로 매일같이 저희를 당황스럽게 할 때면, 저희는 태너가 자라서 선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은행 강도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세상에 이름을 떨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태너가 갑자기 극도로 건강이 나빠진 것입니다. 이후 3년 동안 저희는 고위험 치료 요법과 두 차례의 골수 이식 등, 현대 의학의 힘을 빌려 그를 살리려 애썼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는 10주 동안 의식 불명인 상태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태너는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암은 곧 재발했습니다.

태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암은 이미 그의 뺨속까지 전이된 상태였으며 강력한 진통제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브라질 상파울루 타바야오 다 세라



사모아 아피아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 아내 켈린은 가족들이 교회로 출발하기 전,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어찌 된 일인지 옷을 입고 침대에 걸터앉아 고통 속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려 애쓰고 있는 태너를 보고 놀라고 말했습니다. 켈린은 태너의 곁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너, 정말로 교회에 갈 수 있을 만큼 몸이 괜찮은 거니?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태너는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집사였고, 정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찬을 전달하는 날이에요.”

“분명 다른 누군가가 널 대신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자 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 제가 성찬을 전달할 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느껴지거든요. 제 생각엔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켈린은 아들이 셔츠의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매도록 도와주었으며,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분명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로 온 저는 태너가 집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켈린은 제게 조용히 태너가 그곳에 있는 이유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라는

그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사들이 성찬대로 다가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사들이 집사들에게 성찬기를 건네는 동안 태너는 다른 집사에게 살짝 기대어 섰습니다. 그런 후, 그는 힘겹게 발을 끌며 자신이 성찬을 전달해야 할 곳으로 갔으며,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는 동안은 의자의 끄트머리를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단순한 임무를 힘겹게 해내는 태너의 모습에 예배당의 모든 이들이 감동하여 그를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너가 집사로서 구주를 대표하며 힘겹게, 그러나 엄숙하게 한 줄에서 다른 줄로 이동하는 동안, 머리칼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의 머리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소리 없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그의 몸은 다소 상처 입고, 망가지고, 고통받았음에도 구주의 속죄 상징물을 사람들의 삶에 전해줌으로써 봉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이 태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성찬과 구주, 집사와 교사와 제사에 관해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봉사하라는 고요하고 작은 부름에 태너가 그토록 용감하게 응할 수 있도록 그를 북돋아 주었던 조용한 기적에 경탄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군대에 참여하며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라는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 모두의 힘과 능력에 대해

경탄했습니다.

집사가 성찬기를 들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만찬과 껌세마네, 갈보리, 동산 무덤에서의 성스러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¹ 그분께서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미래의 집사와 교사와 제사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속죄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며 당신의 상징물을 전달할 그때, 당신께서 제공하시는 끝없는 기적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찬 의식의 모든 상징은 우리를 속죄의 은사로 안내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한때 떼냈던 빵에 대해,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제사가 떼는 빵에 대해 깊이 숙고합니다. 또한 성찬 기도문이 어린 제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과 하늘로 엄숙하게 전달될 때, 그리스도의 구원 권능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성약을 새롭게 하며, 예수께서 성별하셨던 그때의 마실 것과 지금 성별되는 마실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짐과 고통을 가볍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께서 함께하셨다면 그분께서 서 계실 바로 그곳에 선 집사가 우리에게 성스러운 상징물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청남과 청녀들이 구주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아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께서선 선교사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하는 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 [우리가] 차차 …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² 가르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주 예수를 닮”고자³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놀라운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⁴

구주의 사명은 지금까지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아버지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기쁨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에 영감을 준 단순한 진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모든 활동과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 및 영생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자의 길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행복의 길을 보여 주는 신앙 가득한 비전을 얻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약의 길에서 침례받고 확인받아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 길의 이정표와 휴게소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지않아 정원회와 청년회에 속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통해 타인을 도울 때 느끼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는 과정에서 그들은 삶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청소년 대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와 『친구들』 잡지, 그리고 복음 생활 앱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일에 중점을 두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의 축복을 추구할 때, 그들은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기쁨을 고대할 것이며,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엘리야의 영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축복사의 축복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권능을 부여받고, 가족들과 영원히 연결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역풍과 재난에 맞서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이 주는 모든 잠재성을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구주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몇몇 청소년들은 주님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했다면 가지 않았을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운명을 좌우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긴급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손을 모아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들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수료 배지를 얻는 데 강한 열의를 보이신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위해 열성적으로 자녀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신권 및 청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청소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들을 구주께로 인도해 줄 것이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⁵

정원회 및 반 회장단 여러분, 주님의 사업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로 가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신권 열쇠를 정원회 회장님들의 열쇠와 함께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원회와 와드는 영원히 변화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키실 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잠엄한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약을 지키고, 그분의 신권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봉사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회개하고, 매일 발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기쁨과 성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시기에 마땅한 힘을 다해 열성으로 노력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됨으로써 중국에 약속된 대로 근면한 선교사, 충실한 남편과 아내,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받도록 권유함으로써 세상이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22:19.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6쪽.
3.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 길을 따라가리. 주님처럼 나도 모든 이웃 사랑하리라”(“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4. 모세서 1:39.
5.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하도록 참으로 용감하게 도운 헌신적인 부모님들과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감사를 표한다.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전에 있었던 각 활동들과 달성 프로그램 덕분에 나올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주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일, 즉 복음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 저는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따르며 한 성전
인봉을 집행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모두
충실한 귀환 선교사였으며, 그들의 부모님과
모든 형제자매가 함께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부는 열 명의 자녀 중
아홉째였는데, 아홉 명의 형제자매들은 나이
순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말입니다.

이 가족은 그들이 살아온 모든 곳에서
좋은 이웃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았던 곳 중 유독 한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는데, 신부의 어머니가 말하길
그 이유는 자기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은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가족은 그들의 기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받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이웃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웃들과 현지의 학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가족에게 필요한 옷, 신발,
그리고 다른 생필품을 모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친절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그들의 기도가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바랐거나 예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기도에 대해 받은
예상치 못한 응답과 힘든 경험을 통해
그들이 배운 교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진정 충실한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도
충실하다면 하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는
무언가를 잃거나 한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¹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²

2020년에 발표된 200주년 선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포괄적이고도 심오한 약속으로 그 서문을
시작합니다.³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속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시고,⁴ 성약하시며, 나이와 당신의
풍족한 기쁨과 선하심을 취하도록
권유하십니다.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경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⁵ 그 사랑은
아브라함의 성약, 흠어진 당신의 자녀를
모으는 일,⁶ 그리고 행복의 계획 모두를
망라합니다.

신앙의 권속에는 외인도 나그네도
없고,⁷ 부하거나 가난한 자도 없으며,⁸
무시당하거나 남겨진 “다른 이들도”
없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⁹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 한 가족, 그리고 한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선지자 조셉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바라신다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곳, 뉴욕주 팔마이라에 위치한 스미스 가족의 통나무집에서 했습니다.¹⁰

스미스 가족의 집은 원래의 토대 위에 재건되어 199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2층에 있는 이 침실은 가로 5.5m 세로 9m 높이 3m로, 1823년 9월 21일 저녁 모로나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자로서 어린 조셉을 방문했던 바로 그 물리적 공간입니다.¹¹

여러분은 선지자 조셉이 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고] … 말하였다.

[모로나이는] …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 실려 있다고 하였다.”¹²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선지자 조셉이나 다른 여하한 필멸의 남성이나 여성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¹³ 어떤 것은 조금 이르게, 또 어떤 것은 조금 더 나중에 성취되었으나, 그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¹⁴ 주님의 예언의 영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그분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일, 즉 복음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1823년에 조셉은 이제 막 독립한 국가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에 사는 이름 없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도구가 되고, 온 세상에 알려질 거룩한 경전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한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가 주장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울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2020년 10월 연차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예언에서 언급된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196개의 국가와 영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90개의 국가에 3,466개의 교회 스테이크가 있습니다.¹⁵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으며, 굳건한 입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823년 당시에 도대체 누가 2020년이 되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총 세 개의 국가에 각각 백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십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이 있는 국가가 북미에 3개, 중남미에 14개, 유럽에 1개, 아시아에 4개, 아프리카에 1개, 총 23개국 될 것이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¹⁶

러셀 엠 벨슨 회장은 몰몬경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¹⁷ 몰몬경의 증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증언했습니다.¹⁸ 오늘날 연차 대회는 100개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벨슨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138개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증거하셨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1830년 초판 5,000부로 시작되었던 몰몬경은 이제 112개의 언어로 책의 전체 또는 일부가 출판되어 약 1억 9천 2백만 부가 인쇄되었습니다. 또한, 번역된 몰몬경은 디지털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몰몬경은 전 세계에서 각각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23개의 언어 중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총 약 41억 명의 모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¹⁹

우리 각자가 참여하도록 권유받은 작고 단순한 방편으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가 2,200명인 유타주 먼로에서의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는 선교사로 봉사한 분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스테이크에서는 564명의 선교사가 미국의 모든 50개 주에서, 그리고 남극



케냐 나이로비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53개국에서 봉사했습니다.

남극 대륙에 관해 언급하자면, “땅끝”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남부 극단에 위치한 우수아이아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며, 저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목도했습니다.²⁰

『성도들』²¹ 도서 네 권의 표지를 합친 벽화는 어느 곳에서든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이 얻는 열매의 장엄하고도 세계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회원 각자의 살아 있는 간증과 복음을 따라 걷는 그들의 여정에 닿을 내리고 있으며, 그러한 회원 중에는 모로나이가 물몬경의 판을 보여 주었던 충실한 자매인 메리 휘트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²²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출간되는 세 종류의 세계적인 교회 잡지 『친구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리아호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세계적인 신앙 공동체로 와서 함께하며, 경험과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합니다.²³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생활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계속되는 회복에 관해 공부하고, 상고하고, 이를 나눈다면, 우리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 삶을 축복하는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신권 봉사를 통해 인내심이 커지고 더 친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미에서 존경받는 국제적 경영 컨설턴트가 된 한 형제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회복된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삶의 목표 없이 노숙자로 생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형제님과 형제님의 가족은 정체성과 목적과 힘을 찾았습니다.

남미에 사는 한 어린 소년은 가족이 짓고 있는 집의 창문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닭을 키우며 계란을 팝니다. 그는 십일조를 먼저 냅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서남부의 마을, 포코너스에 사는 한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은 복음을 믿는 신앙과 자립의 상징으로서 사막에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장미 덩굴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쓰라린 내전에서 살아남은 한 형제님은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전 학교 친구가 성찬기를 들고 구원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본 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교육과 고귀한 일, 자립으로 인해 가능한 봉사,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선과 행복의 방식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가장 어둡고 외롭고 불확실한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 내에서 지속되는 정의와 평등, 공정성과 평안을 이룩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하며 깊고

참된 삶의 이야기, 장소, 그리고 소속감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아들의 속죄를 통해 은혜와 기적을 구하며, 거룩한 성약으로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하고 시끄럽고 오염된 세상에는 종교적 선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되찾아 주고, 영감을 주며, 교화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달리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²⁴

아이티에 나무를 심는 일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선을 행하는 수백 가지의 예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1,8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사는 아이티의 한 지역 사회에 나무를 기증하고, 25,000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심기 위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²⁵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이 숲 재건 사업으로 이미 12만 1천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으며, 수천수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심은 이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하고, 토양을 보존하며, 미래의 흉수를 방지해 줄 것입니다. 또한 동네를 아름답게 하고, 지역 사회를 구축하며, 사람들을 먹이며, 영혼을 채워 줄 것입니다. 누가 이 나무들에서 과일을 수확할 것인지 아이티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중 80%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²⁶ 종교 단체들은 자연재해 후 즉각적인 필요 사항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식료품, 피난처, 교육, 문맹에 대한 장기적인 필요 사항에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회원 및 친구들과 교회는 지역 사회를 도와 난민들을 지원하고, 물, 위생용품,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 안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한 사람, 한 마을, 한 나무씩 일어납니다.²⁷ 모든 곳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이자 좋은 시민이 되어, 후기 성도 자선회를 통해서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사회와 이웃에 기여합니다.²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의지를 주셨으며 도덕적 책임 역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 자유로우[니라.]”²⁹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³⁰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죄와 복음의 길을 통해서라면 현세적이며 영적인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³¹ 자비롭게도, 구속을 통해 오는 이 자유는 필멸의 생을 마친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몇 년 전, 중미에 사는 한 사제는 자신이 후기 성도의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언제 어디서 살았든 상관없이 침례를 받을 기회를 주시며,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기에 예외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공정하게 느껴졌습니다.”³²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침례와 부활을 기다리는 것에 관해 언급했습니다.”³³ 성전 대리 의식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그 누구도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중”이 될 필요가 없음을 약속합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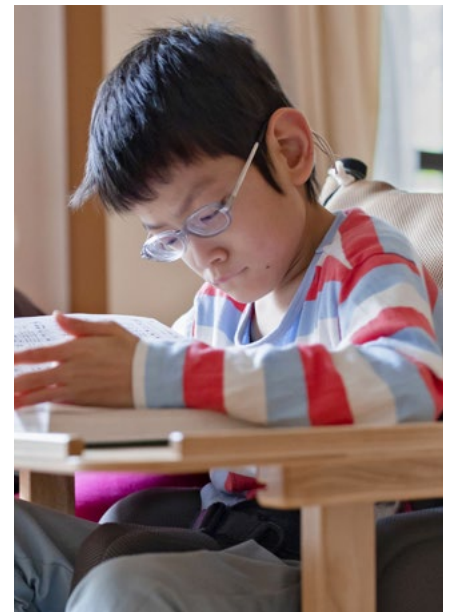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종종 예상치 못한 기도의 응답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공동체 안으로 데려와 주며, 우리의 영혼에서 어둠을 내어쫓고, 그분의 성약이 지닌 선함과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영적인 피난처와 소속감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위대한 일은 종종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회복된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고귀한 성신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계시로 받은 그분의 교리, 그리고 의식과 성약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축복을 받고 성취하라는 그분의 권유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여러분이 계속 충실하다면, 여러분은 부활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51쪽)
2. 모사이사서 2:41 참조.
3.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회복: 세상에 전하는 200주년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또한 예시로 엘마서 26:37 참조.
4. 요한계시록 14:6; 니파이전서 19:17; 22:28; 니파이후서 30:8; 모사이사서 3:20; 15:28; 엘마서 37:4-6; 제3니파이 28:29; 교리와 성약 42:58; 133:37 참조.
5. 요한복음 3:16-17; 15:12; 로마서 8:35, 38-39 참조.
6. 니파이전서 22:3, 9; 교리와 성약 45:24-25, 69, 71; 64:42 참조.
7. 에베소서 2:19 참조.
8. 교리와 성약 104:14-17 참조.
9. 에베소서 2:19.
10. 스미스 가족의 집 뒷문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 우리에게 성스러운 숲이 된 숲이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14)
11.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특정 장소에 실제로 가 보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우리와 연결해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선지자 조셉에게 모로냐이가 나타난 거룩한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여전히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12. 조셉 스미스—역사 1:33-34.
13. 아모스 3:7; 교리와 성약 1:38 참조.
14. 엘마서 37:6; 교리와 성약 64:33 참조.
15. 2020년 9월 3일 자 교회 통계: “국가와 영토”에는 괌,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등의 자치령이 포함된다.
16. 23개국에는 미국,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오스트레일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우루과이, 니카라과가 포함된다. 아시아에서 십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네 국가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일본 치바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먹을 것이 있더니

현세적으로 준비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지니고 삶의 역경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제한이 있기에, 저는 해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일정 때문에 경유지에서 일요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비행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저는 그 지역 성찬식 모임에 참석했고, 또 짧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한 열정적인 집사가 제게 다가와 제가 벨슨 회장님을 아는지, 또 그분과 악수를 할 기회가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있고 악수도 해 봤으며 감리 감독단 일원으로서 벨슨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을 일주일에 두어 번씩 만날 기회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집사는 의자에 앉으며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손을 번쩍 들고 외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러한 시련의 시기에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지상 생활의 일부로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으며, 태초부터 그분의 백성이 이러한 재앙과 시련에 대비하여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미국 유타주 프로보

- 포함된다. 파라과이에는 9만 6천 명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회원이 10만 명 이상 있는 국가에 곧 이름을 올리게 된다.
- 17. Russell M. Nelson, “The Book of Mormon: A Miraculous Miracle” (address given at the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3, 2016).
- 18. 물론경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 19. 현재 추가적인 언어로 번역되고 있어 모든 남성과 여성이 “[그들의] 방언과 ...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되리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 가고 있다. (교리와 성약 90:11)
- 20. 교리와 성약 122:1 참조.
- 21. 『성도들』 도서 네 권의 제목은 선지자 조셉이 웬트워스 서한에서 전한 영감 받은 간증에서 따온 것이다—진리의 표준: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모든 귀에 울리리라.
- 22.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 (2018), 70~71쪽 참조.
- 23. 2020년 8월 14일 자 제일회장단 서한 참조.
- 24. See Gerrit W. Gong, “Seven Ways Religious Inputs and Values Contribute to Practical, Principle-Based Policy Approaches” (address given at the G20 Interfaith Forum, June 8, 2019), newsroom. ChurchofJesusChrist.org.
- 25. See Jason Swensen, “LDS Church Celebrates 30 Years in Haiti by Planting Thousands of Trees,” *Deseret News*, May 1, 2013, deseretnews.com.
- 26. Pew Research Center, “Latest Trends in Religious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Feb. 26, 18, 2012, pewforum.org 참조. 이 “포괄적인 인구통계학적 연구는 23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진행되었으며 ... 세계적으로 58억 명의 어린이와 어린이가 종교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숫자는 2010년 기준 세계 인구 68억 명의 84%에 이르는 숫자이다.”
- 27. 종교적인 미덕과 가치관은 문명사회에 맞을 내리고 있으며 그 사회의 질을 높인다; 지역 사회를 고양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 봉사와 자원봉사를 권장한다; 또한 정의와 화해, 용서를 장려하며,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때와 그만두어야 하는 때를 알게 하고, 언제 무엇을 기억하거나 잊어도 되는지 역시 알게 해 준다.
- 28.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교회의 인도주의적 봉사를 담당하는 후기 성도 자선회(latterdaysaintcharities.org)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도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JustServe나 헬핑핸즈(justserve.org; ChurchofJesusChrist.org/topics/humanitarian-service/helping-hands)의 봉사 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간과 수단을 기여하고 있으며, 금식 헌금을 통해 기부를 하고 있다. (see “Fasting and Fast Offerings,” Gospel Topics,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이와 같은 노력은 세계적으로 수천 명을 축복하기 위한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의 관용으로 이루어진다.
- 29. 교리와 성약 98:8.
- 30. 이사야 61:1; 또한 요한복음 8:36; 갈라디아서 5:1; 교리와 성약 88:86 참조.
- 31. 여기서 언급된 자유의 소망은 심신을 약화시키는 습관이나 중독, 자기 파괴적인 행동, 세대 간의 죄책감, 또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 32. 모로나이 8:12; 또한 교리와 성약 137:10 참조.
- 33. 고린도전서 15:29 참조.
- 34. “주 이름으로 상징물”, 『찬송가』, 106장 3절.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사실상 개인적일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기는 만큼 그분의 인도를 통해 보호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훌륭한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요셉과, 그가 영감을 받아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¹

바로는 요셉의 말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 주신 것에 응답하여 즉시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두어 …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²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일곱 해 풍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라고 나옵니다.³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반드시 “임할”⁴ 재앙에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한계나 제약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영향력이 민족, 사회,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대륙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리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해고로 일할 기회가 상실되고, 건강 및 법적 문제로 일할 능력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염려한다는 마음과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세적인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을 찾는 감독과 지부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준비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삶을 재건하고 자립의 길로 들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도구와 자원을 알고 계시며, 또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경제 전반과 개인의 삶이 피폐해진 요즘 같은 상황에 자비로우신 구주께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시며 장래를 위해 음식과 돈을 비축하라고 명하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의 원리를 영원히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리가 오직 “지혜와 질서 안에서”⁵ 적용될 때, 우리는 애굽의 요셉처럼 장래에 “먹을 것이 있더라”⁶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벨스 회장님이 지난 연차 대회에서 상기시켜 주셨듯이, “주님은 노력을 값지게 여기”십니다.⁷

교회 지도자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식품과 물을 비축하고 약간의 돈을 저축함으로써 인생의 역경에 대비할 것을” 자주 권고해 왔습니다.⁸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가장 비축 물자와 재정 예비금을 확보할 때 “지혜롭게” 하며,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는 권고도 받습니다.⁹ 2017년에 발간되었으며 현재 교회 웹사이트에서 36개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이라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제1회장단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4:15] 이 계시는 주님께서 현세적 축복을 주실 것이며 … 자립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

이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적인 축복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적용하며 가족들에게도 가르치시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사모아 아피아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며 영적 및 현세적인 자립의 축복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¹⁰

이 자료에는 예산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가족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재정 위기 관리, 미래를 위한 투자, 그 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교회 웹사이트나 지역 지도자들을 통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의 원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애급의 요셉을 돌아보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풍년 동안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고서는,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것만으로는 백성들을 ‘흉년’ 내내 부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백성들은 수확하는 모든 것을 소비하는 대신 제한을 두었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임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행동해야 했고, 그 노력 덕분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¹¹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어느 때에라도” 우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며, 만물은 그분께 영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¹² 그러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토대로 모든 것을 세워야 하며, 현세적인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적으로 준비되고 자립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가능하게 하는 힘과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 삶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영적 및 현세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¹³

현세적인 준비를 위한 영적 기초의 또 다른 측면들에는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이 포함되는데,¹⁴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식품 비축과 저축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작고 단순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¹⁵ 이것은 주님께서 하지만 꾸준한 우리의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신앙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토대가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우리는 현세적인 준비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재정 관리와 가정 비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 관리의 주요 원리에는 십일조와 현금 내기, 최대한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를 피하기, 예산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기,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 비축의 주요 원리에는 식품 비축, 장소가 허락한다면 식품 비축,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따른 기타 필수품의 비축 등이 포함됩니다. “최적의 참고”는 가정이며,¹⁶ 가정은 “필요한 시기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비축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¹⁷

우리가 영적 원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찾으려 할 때, 가족과 개인을 위한 주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받을 것이며, 또 현세적인 준비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도 알게 될



일본 치바



매튜 에스 홀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신앙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항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¹⁸

형제 자매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더 나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서 현세적인 굴곡이 계속될 것을 압니다. 현세적으로 준비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더 큰 확신과 평안을 지니고 삶의 역경에 맞설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애굽의 요셉처럼 “먹을 것이 있더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¹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창세기 41:25~30 참조.
2. 창세기 41:47~5
3. 창세기 41:54.
4. 교리와 성약 1:17.
5. 모사이아서 4:27.
6. 창세기 41:54.
7. 러셀 앤 벨슨, 조이 디 존스가 인용, “특별히 고귀한 부름”,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6쪽.
8.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가족 가정 비축』 (소책자, 2007), 1쪽.
9.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1쪽.
10. “제일회장단 메시지”,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 표지 안쪽 참조.
11. 창세기 41:54.
12. 교리와 성약 29:34~35 참조.
13. 『자립을 위한 개인 재정』, 4쪽.
14. 모사이아서 4:27.
15. 엘머서 37:6.
16. 고든 비 힝클러,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62쪽.
17. “Emergency Preparedness,” Gospel Topics,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1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함” (동영상), <https://kr.churchofjesuschrist.org/exercise-faith-in-jesus-christ?lang=kor>.
19. 창세기 41:54.

하나님 아들의 훌륭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결점에 따르는 응당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필멸의 세상에서의 불운으로 인한 부당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와서 나를 따르라』 공과를 위해 물몬경을 읽던 중, 저는 엘마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통같이 것처럼 격심하고 것처럼 쓰디쓴 것은 있을 수 없]”었다는¹ 구절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격심한 고통에 관한 언급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주에 7mm 크기의 신장결석 때문에 크게 고생한 후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작고 단순한” 것을 내보냄으로써 그렇게 “큰 일”을²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엘마의 표현도 눈에 띄었는데, (‘격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물몬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인도 벵갈루루

영문판의 **exquisite**이라는 말은 보통 이례적으로 아름답거나 비견할 데 없이 장엄한 것을 묘사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 천사가 “지극히(exquisite) 흰” 성의를 입었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그]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³ 그러나 exquisite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한 극심한 강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엘마는 **격심한 고통(exquisite pain)**을 표현하면서 “극심히(greatest degree)” “괴로움을 당하다(tormented, harrowed)”, “고통을 당하다(racked)”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권위 있는 사전에서도 이 단어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⁴

엘마의 이런 묘사는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언젠가는 완전히 경험해야만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말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요구이며, 이는 하나님께서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⁵ 엘마가 자신의 “모든” 죄, 특히 타인의 신앙을 멸하려 했던 죄를 기억했을 때, 그는 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차라리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⁶

그러나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생각이 미치자,

… [그의] 마음 속에서 …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으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와 탄원 하나만으로, 엘마는 “[그의]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훌륭한(exquisite)”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⁷

참된 회개의 분명한 목적은 어떤 고통을 변화시켜 더없는 기쁨으로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⁸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는 우리 등에서 그분의 등으로 옮겨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지 죄 없는 주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 “무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극심했는지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⁹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주님은 현대 경전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을 “고난”이 얼마나 “격렬”할 것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관대함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나라.”¹⁰ 회개할 때 우리는 엘마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¹¹ 이 교리만으로도 마음이 떨릴 정도로 놀랍습니다.¹² 그러나 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격심한 고통이 죄가 아니라 본의 아닌 실수나 타인의 행동, 또는 우리의 통제를 넘어선 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시편의 의로운 저자처럼 다음과 같이 부르짖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¹³

의학이나 전문 상담, 법적 교정 조치 등이 그런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선한 은사가 구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¹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심적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위안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고, 모든 불완전함을 채우며,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늦춰진 모든 축복을 가져다줄 온전한 권능과 영적 치유제를 지니고 계십니다. 옛적의 증인들처럼, 저 또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¹⁵,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자기 백성을 …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사랑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¹⁶

지금 내 고통이 너무 극심하거나 누구도 겪어 보지 않은 것이기에 아무도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심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지녔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알거나, 또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말을 해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신권 지도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고,¹⁷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¹⁸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 주십시오. 그 과정은 그분의 방법대로 또 그분의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모든 면을 세세한 부분까지 치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과 그들의 비탄에 관해 언급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는 그들이 고난 없이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함이니라."¹⁹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지상 생활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²⁰ 때때로 우리의 중심까지도 파고드는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신성한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주께서도 친히 "고난을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²¹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라면 그런 시련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경계하십시오.

또 이와 비슷한 거짓말로서,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축복받은 길만 걷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교묘한 속삭임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 대신, 계시자 요한이 후일에 관한 장엄한 계시에서 여러분을 분명히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요한은 다음과 같은 시현을 보았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²²

그리고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요한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받게 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²³

형제 자매 여러분, 의로움 속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를 택함받은 무리와 구별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될 자격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받는 약속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한이 단언하듯이, 여러분은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²⁵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속죄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결점에 따르는 응당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필멸의 세상에서의 불운으로 인한 부당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인도 아래서, 여러분의 신성한 운명은 비할 데 없는 웅장함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며, 그 기쁨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특별하기에 여러분의 재는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²⁶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행복을 맛보고 영원히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엘마가 행했던 대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즉,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이 교회에서

그분의 복음을 통해 계시로써 알려진 하나님 아들의 훌륭한 선물을 마음으로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36:21; 강조체 추가.
2. 엘마서 37:6.
3. 조셉 스미스—역사 1:31.
4. 예를 들면 엘마서 36장 11~17절의 표현과 *Oxford American Writer's Thesaurus*에 등재된 *exquisite*의 설명 사이에 나타나는 명백한 유사성을 살펴본다. 이 출판물은 특정 전자 기기의 일반 설정에서 사진 색선에 내려받을 수 있으며, 복음 자료실 앱과 연결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 준 레이철 샌퍼드에게 감사드린다.
5. 엘마서 42:13 참조.
6. 엘마서 36:13~15 참조.
7. 엘마서 36:17~21 참조.
8. 모사이야서 25:10.
9. See Orson F. Whitney, *Baptism—the Birth of Water and of Spirit* (1934), 5.
10. 교리와 성약 19:15~16.
11. 엘마서 36:24~26 참조.
12.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13. 시편 55:4-6.
14. 모로나이사서 7:24 참조.
15. 히브리서 4:15.
16. 엘마서 7:11~12.
17. 니파이전서 4:1.
18. 예베소서 3:20.
19. Joseph Smith Translation, Hebrews 11:40.
20. 니파이후서 2:25; 엘마서 41:11 참조.
21. 히브리서 2:10; 또한 히브리서 5:8; 러셀 엘 벨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 참조.
22. 요한계시록 7:9~10.
23. 요한계시록 7:13~14; 강조체 추가.
24. 요한계시록 7:16~17.
25. 요한계시록 21:4.
26. 이사야 61:3; 조셉 스미스—역사 1:31 참조.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윌리엄 케이 잭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의 문화

우리는 각자가 속한 지상 문화가 지닌 가장 훌륭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영원한 문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경이로운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백 개의 국가와 수천 개의 집단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관습과 역사가 각기 풍부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인류에게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념할 것이 많습니다. 비록 문화가 학습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라온 특정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준 여러 가지는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화가 우리를 규정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문화의 영향력이란 굉장히 강력해서, 때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낸 약점이나 결점을 보지 못하고 조상의 관습 중 일부를 버리는 것을 매우 주저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귀중하고 거룩한 생각과 속성과 행동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알게 된 한 훌륭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이 문화적 근시안의 보편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분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했을 때였습니다. 저명한 산스크리트어 및 타밀어 교수였던 그분은 인도 남부 출신이었습니다. 형제님의 훌륭한 아내와 두 아들은 교회의 회원이었으나, 형제님 자신은 회원이 아니었고, 복음 가르침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다. 그분은 아내와 아들이 발전해 가는 모습에 기뻐했으며, 그들이 교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일들을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 형제님은 망설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는 데는 꽤 오래 걸렸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 자신의 과거와 민족과 역사의 배반자가 되는 것이라 느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와 가족의 가르침과 인도계 혈통과 유산을 깰까 두려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후 몇 달 동안 이런 문제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른 관점에 눈뜨게 되었는가를 보며 (놀라지는 않았으나) 경탄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문화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 건설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각자의 문화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사상과 관습들의 충돌로 생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최초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사실상 모든 갈등과



케냐 나이로비

혼란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최초의 문화는 그다지 오래지 않은 시간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했었던 것으로, 그 기원은 전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아담과 에녹의 문화였고, 절정의 시기에 구주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세워진 문화였으며,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모든 여성과 남성이 누릴 수 있게 된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는 모든 문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문화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수호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화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시키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삶에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단지 우주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존재하시고, 그분이 실재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간증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일יום, [그분]의 영광”입니다.”¹ 이 문화는 가치의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야알레마나



일본 오사카

평등을 옹호하며, 계급이나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이자 우리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문화에는 편견이나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이자 “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서로와 이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책임감은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애, 즉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돌봄은 이 문화의 기반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현재적 및 영적 필요 사항을 진심으로 염려하며,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애는 편견과 증오를 몰아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받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신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둔 계시의 문화를 누립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화는 선택의지의 원리를 지지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발전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며,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문화는 연구와 배움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일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합니다.

이 문화는 신앙과 순종의 문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 문화의 첫째 되는 원리이며,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에 대한 순종은 그 결과물입니다.

신앙과 순종은 자제력을 낳습니다.

이 문화는 기도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문화는 성약과 의식, 높은 도덕적 표준, 희생, 용서와 회개의 문화이며, 이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성전과 같은 우리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증거합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이자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인 신권으로 다스려지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이 더 나은 사람과 지도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배우자가 될 수 있게 하며, 가정을 성결하게 합니다.

문화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신권 권능, 기도와 자기 수양, 참된 개심, 그리고 용서가 빛어낸 문화이며, 여기에는 참된 기적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이 문화는 선교 사업의 문화로, 영혼의 가치를 크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문화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합당하고 영속적인 지위로 승격됩니다. 여성은 오늘날의 많은 문화에서처럼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온전하고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이 문화는 가족의 신성함을 인정합니다. 가족은 영생의 기본 단위 조직입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페냐블랑카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기에,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² 가정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일을 행하고,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에는 관점과 영원한 초점과 인도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에서 왔으며,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다음 생애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문화는 모든 이를 포용하며, 아무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구주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데서 생겨나기에, 우리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치유의 유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 고귀한 삶의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가장 위대한 문화의 일부가 되려면 우리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전에 몸담았던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과 재능과 지식, 곧 우리 삶과 문화의 모든 훌륭한

것을 지니고,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 그것에 “더[할]” 수 있게 하도록 권유받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³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서양의 단체도 미국의 문화 현상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전 세계의 교회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새로운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는 교회의 가족에 풍성함과 다양성과 열정을 더해 줍니다. 후기 성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 여전히 자신만의 유산과 위인들을 기념하고 예우하지만, 이제 훨씬 더 장대한 일의 일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며,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의로움과 균형을 맞추어 우리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형제님은 토론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며, 이후 그의 가족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성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을 포기하고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잠재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기념하고,

자신의 혈통, 음악, 춤, 문학, 음식, 그리고 고향 땅과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의 문화의 가장 좋은 것들을 모든 문화 중 가장 위대한 문화에 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전의 삶에서 진리와 의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가져와 그의 새로운 삶에 더하면, 결과적으로 성도들과의 유대가 깊어지고, 하늘 사회에서 모두를 하나로 단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각자가 속한 지상 문화가 지닌 가장 훌륭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여전히 가장 오래된 문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최초이자, 궁극적이며, 영원한 문화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유산은 참으로 멋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2. 제이 이 맥컬릭,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에서 인용, 154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02), xxix쪽; 고든 비 힐클리,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8-81쪽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위해
그분의 자녀와 교회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기 성도들은 그들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박해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합중국 정부의 군대가 강제로 새로운 주지사를 세우기 위해 유타로 진군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 군대가 얼마나 적대적일지 알 수 없었기에, 브리검 영은 성도들에게 대피를 명하고 성전의 기초도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분명 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왜 자꾸만 좌절되는 것인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결국 위험은 지나갔고, 성도들은 성전 기초를 흙 속에서 찾아내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개척자 건축가들은 기존의 사암 중 일부가 금이 가서 계속 성전 기초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검 영은 장엄한 솔트레이크

성전의 화강암¹ 벽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성전 기반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² 마침내, 성도들은 찬송가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를 수 있었으며,³ 그들의 거룩한 성전이 수 세대를 견뎌 낼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경을 기회로 삼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만일 이 이야기와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들린다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 목소리를 듣거나 말씀을 읽는 분 중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픔에 잠기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위안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미칠 장기적 결과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수입원을 잃은 채 배고픔과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감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이타적으로 노력하시는 수많은 분께



칠레 발파라이소 로나르바에스

존경을 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치유하고, 지원하고자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신 분들의 조용한 희생과 고귀한 노력에 우리는 절로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선함과 동정심에 대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의 영원한 축복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씨앗입니다

이 바이러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이 바이러스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기치 못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천사 대대를 더 모으거나, 비상 회의를 소집하거나, 세계 창조 부서에서 자원을 끌어다 쓸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이 전염병의 대유행이 우리가 원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기를 대비해 그분의 자녀와 교회를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경을 견뎌 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결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싹을 틔우기 전에 먼저 땅에 묻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시련에 파묻히거나 정서적인 암흑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가져다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축복은 고난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저마다의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에녹과 그의 백성은 간악함과 전쟁과 피 흘림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가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위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시온을 세우도록, 곧 “한 마음 한 뜻”으로 “의롭게 거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우셨습니다.⁴

야곱의 아들인 어린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려졌습니다.⁵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을 잊으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련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요셉의 성품을 강화하셨고 그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두셨습니다.⁶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조셉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시온이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평안을 말씀하셨고, 그 뒤에 이어진 영광스러운 계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게도 평안을 줍니다.⁷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창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는 박해와 온갖 위험과 말살의 위협 중에서도 그분의 어린 양 떼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이 예시들과 경전에 나오는 다른 수백 가지의 예시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의로운 자들이라고 해서 어둠의 골짜기를 피할 수 있는 면제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이탈리아 파두아 몬테그로토 테르메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리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고통받음을 아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⁸

연민이 가득하신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삶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병들고, 외롭고, 의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데 보내셨습니다.⁹ 그런 분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신경을 덜 쓰실까요?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충실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 전체를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 곧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최고의 나날들은 우리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대에도 계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삶을 마치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을 하기 위해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리며 선회 비행을 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고, 상상도 못한 높이를 향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필멸의 삶을 비행하는 동안 난기류가 없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계기판의 고장과 기계의 오작동, 또는 악천후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상황은 호전되기 전에 먼저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전투기 조종사이자 항공사 기장으로서는,

저는 제가 비행하는 동안 어떤 역경을 마주칠지를 선택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침착함과 냉철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을 직시한 다음 기본으로, 기초적인 복음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강화하고, 이미 가장 잘 입증된 방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끌어모으고,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분이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수많은 영감 어린 발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 성찬이 우리 안식일 예배의 중심으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도구로 『와서 나를 따르라』가 제공되었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성역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 복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연차 대회 모임도 놀라운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신다면 모든 일은 괜찮아질 뿐만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잘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주님의 사업을 방해할 걸림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의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일은 그 힘과 열정 면에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노르웨이에 사는 좋은 친구 한 명이 최근에 침례 수가 증가했다며 저와 해리엇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직 잔가지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곧 지부로, 또 와드로 성장할 겁니다!”

인터넷 광고를 클릭해 우리 교회를 발견하게 된 라트비아의 한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생각에 매우 신이 난 나머지 토론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타났으며, 첫 번째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선교사들에게 침례 받을



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동유럽에 사는 한 여성은 선교사들의 전화를 받고는 흥분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들,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으셨나요? 내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회원 간의 유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만 너무 얽매어 있었기에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눈이 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화강암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계속 사암으로만 건물을 짓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돕고, 와서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업, 그분의 방법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그분의 방법을 찾으려 권유하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과거 경험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었을]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

이르시되 그물을 배 [반대]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 말대로 그물을 반대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¹⁰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항상 드러내셨고, 앞으로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시기에 우리가 굳건한 기초 위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더 좋은 방법, 즉 그분의 방법을 찾으려 도와주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분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계속 행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살핌과 동정심 가득한 그분의 손안에 우리를 꼭 쥐고 계십니다.

저는 리셀 엠 벨슨 회장이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권유드리고 축복합니다.¹¹ 약속드리건대, 주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수고를 통해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32킬로미터 떨어진 리틀 코튼우드 캐니언(Little Cottonwood Canyon) 입구의 채석장에서 채굴된, 화강암처럼 보이는 석영 문조나이트.
2.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2권, 그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1846~1893년』(2020), 제17, 19, 21장 참조.
3.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참조. 이 위대한 찬송가 가사는 우리 시대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귀로 그 가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병든나 성하나 어느 때든지
부하나 빈곤에 너 허덕일 때나
집에서나 외국 어느 곳에서나
네 도움을 구할 때 ... 도와주시리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하리라
힘 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나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하고 근심 털어 주며
네 깊은 곤경을 ... 불태워 없애리
불같은 시험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하지 못하리라
그 불길 통하여 ... 순간만 주 앞에 나타나리라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으리
온 지옥 떨며 떨어뜨리려 하나
결단코 하나님 ...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4. 모세서 7:13-18 참조.
5.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그는 17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창세기 37:2 참조) 이후 바로 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창세기 41:46 참조) 한창나이의 청년이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분명 요셉은 교회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된다.
6. 창세기 45:4-11; 50:20-21 참조. 시편 105편 17~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품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다른 번역본에서는 18절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들은 그의 발에 차꼬를 채워 고문하였고 쇠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으니.”(Young’s Literal Translation) 나는 이 번역문이 다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요셉의 고난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장래를 위해 그에게 꼭 필요한 자질, 곧 쇠처럼 강하고 회복력이 큰 영혼을 키워 주었다.
7. 교리와 성약 121~123편 참조.
8.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린 자와 궁핍한 자, 빛은 자, 병든 자,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연민 어린 마음을 갖도록 명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며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물론서 8:39 참조)
9. 누가복음 7:11~17 참조.
10. 요한복음 21:1~6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3:17.



쉐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가 화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의 노력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든의 어머니는 그에게 할 일을 다 마치면 파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든이 가장 좋아하는 파이를, 고든만을 위해서 말이죠. 고든은 할 일을 마치러 갔고, 어머니는 파이를 구워 주셨습니다. 고든의 누나 캐시가 친구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파이를 본 캐시는 자기와 친구가 한 조각씩 먹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파이야.” 고든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구워 주셨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거라고.”

캐시는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한지. 어떻게 그걸 혼자 다 먹겠다고 할 수가 있지?

몇 시간 뒤,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차 문을 연 캐시는 차 좌석 위에 얌전하게 접힌 냅킨 두 장과 포크 두 세트, 그리고 큼직한 파이 두 조각이 올려진 접시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캐시는 고든의 장례식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얼마나 기꺼이 변화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했습니다.

1842년, 성도들은 나무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3월에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뒤 선지자 조셉은 그 모임에 자주 참석하여 그들이 성전에서 곧 맺게 될, 성스럽고 하나 되게 하는 성약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6월 9일, 선지자는 “자비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일일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작은 일을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미스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회원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회원이 그것을 느끼는 것과 같은 충만한 화합이 없다는 것이 슬픉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¹

이 짧은 문장은 섬광처럼 제 뇌리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바라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바람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때로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며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러한 “화합”을 이뤄 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화합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얻게 될까? 저는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세 가지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곱서 2장 17절에는 “너희 [형제와 자매]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모든 이와 친숙하며,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그들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물을 자비로 바꾸어 봅시다. 너희 자비를 후히 나누어 그들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하라.

우리는 흔히 재물이라고 하면 음식이나 돈과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마도 성역을 행할 때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자비일 것입니다.

저희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최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저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다. ... 여러분에 관해 나쁜 말이나 여러분을 고양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게 똑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

조셉은 1842년 6월의 그날,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최소한의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은 제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 당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 어깨 위에 메고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 말씀은 상호부조회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²

이것은 특별히 상호부조회에 전하신 권고였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서로의 이름을 지켜 주고, 자비의 은사를 베풀시다.³

배가 스윙하게 만드십시오

1936년, 워싱턴 대학교의 무명의 조정 경기 팀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에 갔습니다. 당시는 대공황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광업과 제재업을 생업으로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의 이 노동자 계층 소년들은 고향에서 마련해 준 돈으로 베를린까지의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대회는 그들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시합 중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The Boys in the Boat*(『배에 탄 소년들』)이라는 책에 나온 다음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이뤄 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설명하기도 어려운, 하지만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은 “스윙”이라고 한다. 이는 모든 선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단 한 번도 어긋나는 동작을 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선수들은 자신의 맹렬한 독립성을 통제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능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 복제 인간 같은 팀원들로 구성되어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좋은 팀이란 조화롭게 섞인 팀을 의미한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 절호의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사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 균형을 맞추는 사람 등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고루 섞여야 한다. 다른 선수보다 더 중요한 선수란 없다. 모두가 소중하다. 하지만 경기를 잘하려면, 저마다 다른 이들의 필요와 역량에 맞추어야

한다. 팔이 짧은 사람은 조금 더 길게 뻗어야 한다든지 팔이 긴 사람은 조금 더 짧게 잡고 당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불리한 점이 아니라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배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며, 고통은 온전히 환희로 바뀐다. 좋은 “스윙”은 한 편의 시를 연상시킨다.⁴

이 팀은 어마어마한 난관을 헤치고 완벽한 스윙을 선보이며 우승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도 짜릿했지만, 그날 선수들이 저마다 맛보았던 그 단합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서둘러 나쁜 것을 치워 버리십시오

야곱서 5장에 나오는 훌륭한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심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그 나무는 못 쓰게 되어 들쭉날쭉을 맺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여덟 차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그의 종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조금 더 두고 보소서.” 이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리라. ... 내가 이를 조금 더 두고 보리라.”⁵

그런 뒤 자신의 작은 포도원에 들레를 파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희는 좋은 것이 자라는 데 따라서 나쁜 것을 쳐 버[리라].”⁶

단합은 마법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하며, 우리가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서둘러 나쁜 것을 치워 버릴 때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단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야곱서 5장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종들이 나아가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포도원의 주도 그들과 함께 일하더라.”⁷

우리는 누구나 깊은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못 쓰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가장 깊은 심연까지 미치며, 우리가 그분을 청할 때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해 자비를 구합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이해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⁸ 우리가 하나가 되면, 즉 우리가 파이 한 조각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을 서로에게 맞추어 완벽하게 스윙을 이뤄 내면,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좋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서둘러 나쁜 것을 치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약속

우리는 아직 원하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있게 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룹에서 추구하는 변화는 이론으로 주장하는 활동보다는 매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활동적으로 노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지닌 백성인 시온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⁹

성약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 영향력은 친구와 함께 공부할 때, 자녀를 재울 때,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동료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발휘됩니다. 우리는 편견을 없애고, 단합을 이룰 힘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와 청년회는 그저 하나의 공과반이 아닙니다. 상호부조회와 청년회를 통해 저마다 다른 여성들이 모두 한배에 타서 스윙을 이뤄 낼 때까지 노를 젓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전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 주십시오. 성약을 통해 우리는 성역을 행하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미국 유타주 프로보

힘들어하는 이들을 부축하고 업고 함께 가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상충할 때가 많기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여성들은 사회를 바꿀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화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의 노력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영적 확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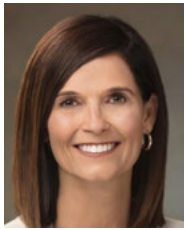
신권에 관한 1978년 계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편견의 짐을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하기를, 또 우리가 서로 올바르게 동행하기를 바라는 저의 기도와 축복을 제 말을 듣는 모든 분에게 전합니다.”¹⁰

이러한 선지자의 축복에 의지하고 개인으로나 집단으로 함께 노력하여 이

세상이 더욱 단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대를 초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기도의 말씀으로 제 간증을 마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¹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inutes and Discourse, 9 June 1842,” p. 61, Joseph Smith Papers,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minutes-and-discourse-9-june-1842/1.
2. “Minutes and Discourse, 9 June 1842,” p. 62, Joseph Smith Papers,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minutes-and-discourse-9-june-1842/2.
3. 크리 엘 코포드 장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안전합니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참조.
4. See Daniel James Brown, *The Boys in the Boat: Nine Americans and Their Epic Quest for Gold at the 1936 Berlin Olympics* (2013), 161, 179.
5. 야곱서 5:50-51.
6. 야곱서 5:66.
7. 야곱서 5:72.
8. 교리와 성약 38:27.
9. 모세서 7:18.
10. 러셀 엠 벨슨, “다리를 놓으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2월호, 51쪽; 강조체 추가.
11. 요한복음 17:21.



베키 크레이븐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계속 변화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겸손히 그분께 돌이키면, 그분은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녀가 물건 가격보다 더 큰 액수를 내면, 점원은 그 사람에게 차액(change)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고대 미 대륙에 살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크나큰 축복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¹ 그분은 사랑 어린 속죄를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얻을 길을 마련하셨습니다.²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의 계명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할 때, 그분은 우리를 즉시 축복하시며, 이로써 우리는 늘 그분께 빛을 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 가치를 다 해야 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값을 치르신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change)입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습관,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해 치르신

크나큰 짓값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시장의 구매자는 물건값을 지불한 후 점원이 주는 차액을 받아 가는 반면,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차액을 간직하기를, 즉 계속해서 변화하기를 바라십니다.(여기에서 영어 원문 keep the change는 본래 '차액을 가지다'라는 뜻이나, 크레이븐 자매는 change

의 중의성을 이용해 '계속 변화하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옮긴이)

베냐민 왕의 말씀을 들은 후,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 주의 영이 우리 안에 …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³ 경전에는 그들이 즉시 완벽해졌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하려는 그들의 소망이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겪은 마음의 변화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개심은 엄청난 노력과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기꺼이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 일어납니다. 그런 후에야 주께서 … 씻김과 변화의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⁴ 우리의 노력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주의 능력이 결합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거듭납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

어린 시절에 저는 제가 영생이라는 목적을 향해 위로 곧게 뻗은 길을 따라 걷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언행을 할 때마다 저는 그 길에서 미끄러져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사다리꼴과 미끄럼틀이 그려진 보드게임을 하는데 제 말이 미끄럼틀이 그려진 칸에 걸려, 출발점으로 되돌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를⁵ 이해하고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패턴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라는 주님의 권유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영감을 주며, “그 신앙과 회개가 …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줍니다.]”⁶ 회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릴 때,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겠다는 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러한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며 끝까지 견딤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변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시도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청녀 주제에 나오는 다음의 문구에는 영감 받은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 회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발전하려 노력한다.”⁷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변화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와 관련하여 변화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 자신의 성품을 다듬는 일에서 분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변화하려 애쓰는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겸손히 그분께 돌이키면, 그분은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에서 비롯되는 변화하는 힘에 더하여,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때 성신이 우리를 지지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성신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권 축복, 기도, 금식, 성전 참석을 통해 도움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하는 가족, 지도자, 친구들 역시 우리가 변화하려 노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여덟 살 때 저는 오빠 리와 함께 자주 이웃집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오빠가 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오빠는 부러진 팔 때문에 혼자 힘으로 나무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없으니 나무 위에서 노는 게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 몇 명이 오빠를 아래에서 받치고, 몇 명은 안 다친 팔을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그 덕에 오빠는 별 어려움 없이 다시 나무에 올라왔습니다. 팔은 부러졌지만, 오빠는 팔이 낫는 동안 다시 저희와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나무에서 놀던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나무 그늘에서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과 관련된 많은 축복을 누립니다. 누군가는 안전한 성약에서 떨어져 나가, 견고한 복음 나무 위로 다시 오르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와 우정을 누리는데 동안 치유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여기서 조금 부드럽게 끌어 주고 저기서 조금 받쳐 준다면 어떨까요?

혹 여러분이 나무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부디 여러분이 성약으로 돌아와 그 축복을 누리도록 다른 이들이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

둘러싸여 있는 동안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을
마주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은
말합니다. “어쩔 녀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제가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움찔하곤 합니다. 바로 어제보다도 조금은
달라졌다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제가
친절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더욱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에 좀 더 빨리 대응하고,
조금 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 근처 산을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등산로를 걸을 때면 자주 신발
안에 작은 자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털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멈춰 서서 신발을
털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통을 참으며 산행을
하는지 저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약의 길을 걸을 때에도 좋지 않은
습관이나 죄, 나쁜 태도 등의 자갈이 우리의
신발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갈을
빨리 털어 낼수록 우리의 지상 여정은 더욱
기쁠 것입니다.

변화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금 털어 낸 그 성가신
자갈을 다시 신발에 집어 넣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나비가 다시 고치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습관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품성을
다듬어 좀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4:9 참조.
2. 모사이야서 3:5~12 참조.
3. 모사이야서 5:2.
4. Henry B. Eyring, “We Must Raise Our Sights,”
Ensign, Sept. 2004, 18.
5. 니파이후서 31:21; 제3니파이 27:13~21 참조.
6. 힐라맨서 15:7.
7. 청년 주제, ChurchofJesusChrist.org.

우리는 올해 초부터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인명 손실과 소득 상실로
인해 전 세계의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진, 화재, 홍수
및 여러 기상재해로 사람들은 무력감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절망, 비탄을 느끼며 삶이 과연 전과 같아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부러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 루디와 저는
아이들에게 그럴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저희에게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새 피아노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중고 피아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남편은 피아노를
선물하여 저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녀들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하고
나자 오래된 피아노에는 먼지만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면서 저희는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
피아노를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둘 다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왜 새 피아노가 필요하죠?”



미국 유타주 프로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를 사면 되죠!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피아노를 프로그램화하면 찬송가, 태버네클 합창단 노래, 초등학교 노래 전체, 기타 다른 노래들까지 해서 4,000곡 넘게 연주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의 영입 능력이 뛰어난 것만은 확실합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새 자동 피아노를 구매했고 며칠 후 건장하고 힘센 인부 두 분이 집에 피아노를 배달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피아노 자리를 알려 드리고 길을 비켜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소형 그랜드 피아노였는데 인부들은 피아노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분리한 뒤 가지고 온 짐수레 위에 피아노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저희 집은 약간 경사가 진 곳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날 일찍 눈이 와서 주변이 질척거리고 젖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예상이 좀 되시나요?

인부들이 경사길에서 피아노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아노는 그만 미끄러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무척 크게 났습니다. 피아노가 짐수레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잔디가 움푹 패일 정도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괜찮았습니다.

동그랗게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피아노는 다시 가게로 가져가고 담당자에게 전화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곧 남편과 담당자는 새 피아노를 배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착하고 너그러운 남편은 담당자에게 그냥 훼손된 부분만 고쳐서 다시 가지고 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새 피아노를 보내 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고쳐서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나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나무 부분은 한 번 부러지면 절대 전과 같이 소리를 못 냅니다. 새 피아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조금 부러지고, 금이 가고, 훼손돼서 다시는 전과 똑같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점에서 우리 모두 이 피아노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때, 어떤 일로 상처를

받거나 부러졌다 해도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의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 삶으로 불러오는 이 과정은 우리를 그저 그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두 고침을 받고 온전히 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 피아노처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통에 잠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평안과 위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훌륭한 은사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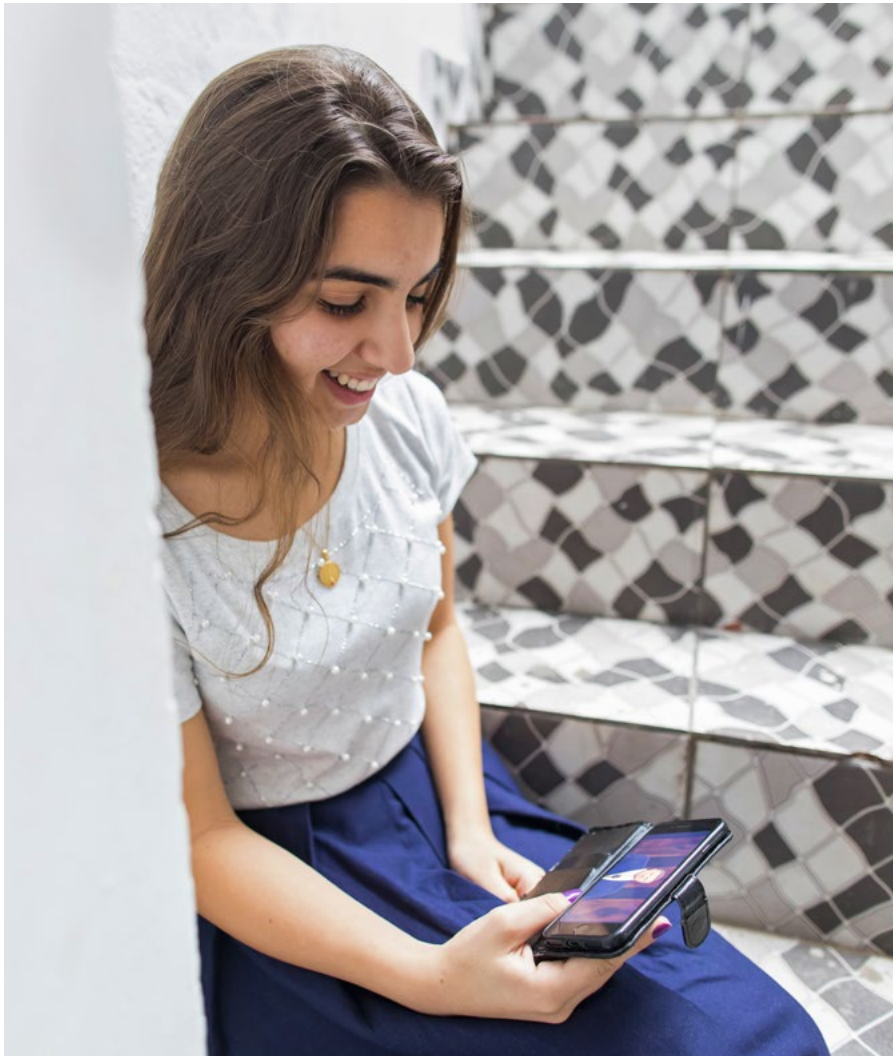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그분께 나아가 부러진 곳을 치유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하신 권능과 ...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을



브라질 상파울루

딛고 일어서도록 돕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²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면서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위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³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물론경에서 엘마와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지워진 짐으로 압도당할 때, 그들은 그 짐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짐을 없애 주시는 대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모사이야서 24:14~15)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님은 구주의 치유하고 짐을 덜어 주시는 능력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속죄의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구주의 도우시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치유하고 진정시키는 영향력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구주께서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시라고 간증했습니다.(이사야 25:4) 이사야는 슬퍼하는 자들에 관해 선포하면서 구주께서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이사야 61:2),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이사야 25:8; 또한 요한계시록 7:17 참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이사야 57:15),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이사야 61:1; 또한 누가복음 4:18; 시편 147:3 참조) 권능을 지니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도우시는 권능이 너무나 광대하기에 그분께서는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이사야 61:3)

이 약속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희망이 솟구칩니까! ... 그분의 영은 치유하고, 정제하고, 위로하며, 희망 없는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추악하고 악랄하며 가치 없는 것들을 지대하고 장엄한 영광을 지닌 무언가로 탈바꿈시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필멸의 재를 영원의 화관으로 변화시키는 권능을 지니고 계십니다.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자 위대한 치유자,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친구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분께 의지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이고 그분께서 다시 권능과 영광으로 이 지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지상으로 돌아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위대하신 치유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6쪽.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복음 주제, topics.ChurchofJesusChrist.org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52쪽. ChurchofJesusChrist.org.
4. Tad R. Callister, *The Infinite Atonement* (2000), 206–7.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달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엠 엠 라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랜드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라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이비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철심인 회장단



페트리 키야본



칼 바버



로버트 시 게이



터렌스 엠 Jensen



호세 에이 데제이라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브렌트 에이저 Jensen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시온의 자매들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시온 백성을 만드는 일에서 필수적인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역사상 놀라운 이 시대에 말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매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순간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취될 영광스러운 약속 또한 알고 있기에 우리 마음은 기쁨과 확신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그분의 딸로서¹,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중요한 시간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실 것입니다. 에녹 성 백성들처럼 살 수 있도록 집합하여 준비한 백성들에게 구주께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히 순결하게 되어 하늘로 들리워 올라갔습니다.

에녹 백성들에게 다가올 일과 때가 찬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해 주님께서 밝히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오려니와 그 날 이전에 하늘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흑암의 휘장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보전하리라.

또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할 곳, 거룩한 성으로 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 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임이요, 그 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에 너와 너의 모든 도성이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이겠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또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요, 그곳은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에서 나아올 것이요, 천 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²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과 손녀, 그리고 여러분이 보살핀 여성들은 구주와 영광스럽게 함께할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새 예루살렘에서 화평 중에 거하게 될 시온 백성을 만드는 일에서 필수적인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상호부조회 초기 시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³

여러분에게는 그런 놀라운 잠재력이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과 복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뒤로 물러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히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모든 프로그램이 좌절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각자 거룩한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⁴

현재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서는 구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맡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 할머니로서, 자매와 이모 및 고모로서, 교회의 교사와 지도자로서, 그리고 특히 신앙의 본보기이자 헌신적인 수호자로서 가족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시대 이래로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들은 다른 시대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다른 경륜의 시대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에는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⁵

이 경륜의 시대는 다른 시대와 구별됩니다. 주님께서 에녹 성의 백성과 같이 되기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시온 백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이 만연하고 어둠과 반항, 전쟁과 멸망이 가득했으며, 지구가 물로써 깨끗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충실했습니다. 그는 ‘주를 보았으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했습니다.(모세서 7:4)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회개를 외치시고자 그를 보내셨고 ‘아버지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모세서 7:11) 에녹은 성약을 맺고 참된 신앙을 지닌 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으로 신앙이 두텁게 되었기에 ‘주가 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니, 그들이 의롭게 거[했으며] 높은 곳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습다].’(모세서 7:18) ...

경전에는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부르신 후, 에녹이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본 치바

일컬어지는 한 성읍을 건설하였’고 그 시온은 ‘하늘로 들리워’ 갔으며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때로부터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퍼졌’다고 나옵니다.(모세서 7:19, 21, 69) ...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불러오실 때 ... 하늘로 들리워 갔던 그 시온이 다시 돌아올 것이며 시온에 거하는 주민은 그 이후에 건설될 새로운 예루살렘과 연합할 것입니다.”⁶

과거가 이후에 있을 일의 전조라고 한다면, 구주께서 오실 그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중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깊이 헌신하는 여성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가 어떠한 여러분이 그 시온에 거할 준비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단합을 끌어내는 일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절반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경에는 시온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구주에게서 가르침과 사랑, 축복을 받은 후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⁷

저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은 다툼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또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 안에 심어 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움을 진작할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작은 지부의 회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제 형이 유일한 아론 신권 소유자였고, 제 아버지는 유일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셨습니다.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개종자이셨는데, 그분의 남편은 자매님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하셨고, 집에 신권 소유자가 없는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와 그 자매님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돌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짧게나마 미리 시온을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뉴멕시코 앨버커키의 작은 지부에서도 신앙이 돈독한 여성들의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부 회장님의 아내, 지방부 회장님의 아내,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새로 전입하거나 개종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앨버커키에서 자매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 깨달으며 2년을 지내고 떠나던 일요일에 그곳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곳에 성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사한 곳은 보스턴 근방이었고, 그곳에서 지방부 회장단에서 봉사했는데, 저희는 두 개 주에 걸쳐 여기저기 흩어진 작은 지부들을 감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 많고 인자한 자매님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써 여러 번의 논쟁을 해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을 떠나던 일요일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메스추세츠주의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 장소는 당시 지방부 회장님이 사셨던 곳과 가깝습니다. 회장님께서 신앙이 깊고 사랑 많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에 스테이크 회장으로, 그 후에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은사를 지닌 하나님의 딸이 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시온 백성으로서 함께 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큰 사랑과 순결함을 지니도록 그들을 복돋을 영적 능력을 갖추고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을 위해 조직된 첫 번째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모토가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무한한 속죄가 지닌 온전한 영향력을 믿는 신앙을 통해 여러분과



파테말라 산루카스 사카테페케스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대해 온 약속된 시온에 사는 경이로운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이 축복했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온의 자매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있는 주님 왕국의 주민이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실 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며, 여러분은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 주님이 약속하신 시온이 되도록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킬 때 우리에게 앞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5:1 참조.
2. 모세서 7:61~64; 강조체 추가.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11쪽, 강조체 추가.
4. 고든 비 힝클리,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67쪽.
5. 러셀 엠 넬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6쪽, 강조체 추가.
6. Bruce R. McConkie, “Building Zion,” *Tambuli*, Sept. 1977, 13; emphasis added.
7. 제4니파이 1:15.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담대하라, 기뻐하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면할 박해와 어려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¹ 그리고 다음과 같이 큰 확신을 주시며 그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전하는 구주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한 궁극의 좋은 소식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보내셨던 그 세상에도 필요했던, 확신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고린도후서 4:8~9)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역시 “사방으로 옥여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권능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교리와 성약 3:1) 주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보라, 오 너희 나의 종들이,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그런즉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주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 증거하라.”(교리와 성약 68:5~6)

주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6)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교리와 성약 58:4)

자매 여러분, 박해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 주어진 약속들은 오늘날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약속들은 소중하며, 필멸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복음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하게 생활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줍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필멸의 삶에 흔히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반대 세력이나 역경은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신성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²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반대 세력이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 속에서 충실하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필멸의 삶과 마찬가지로, 필멸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유타주 프로보

삶에 속한 역경 또한 일시적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처참한 전쟁에 앞서 벌어진 논쟁에서, 현명하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오랜 지혜를 청중에게 상기시켰습니다.³

필멸의 삶의 이러한 역경 때문에 담대하고 기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아시다시피 역경은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수백만 인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에서 비롯된 여러 파괴적인 영향 속에 고통을 겪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현재 미국에서는 수백만 사람들이 적대와 갈등의 시기를 거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신이 다가오면 이런 적대와 갈등이 오래 찾아왔던 것 같지만, 우리 중 가장 연륜 있는 분들은 이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다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많은 역경으로 개인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가난, 인종차별, 질병, 실직, 실망, 엇나간 자녀, 결혼 생활에서의 불화 또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죄로 인한 결과 등이 그런 고통의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며, 복음의 원리와 약속, 그리고 우리 노력의 결실로부터 기쁨을 찾으라는 하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⁴ 이 권고는 선지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경험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역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빈곤과 박해, 좌절을 겪고 가정에서까지 슬픔을 맞보다 결국 순교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는 동안,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은 미주리에서 쫓겨나며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조셉이 위안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교리와 성약 121:7~8)

선지자 조셉은 이 개인적이고 영원한 권고 덕분에 자신의 쾌활한 천성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충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이후 지도자들과 개척자들을 강하게 했고, 우리 역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회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무지에 보금자리와 교회를 세워야 하는 난관을 만났습니다.⁵ 첫 번째 개척자 무리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밸리에 도착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개척자들은 그 적대적인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 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직도 평원을 횡단하는 중이거나, 횡단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느라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여전히 희망과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기도 전인 1849년 10월의 연차 대회에서는 많은 선교사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남태평양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⁶ 바닥까지 치달았다고 생각할 상황에서, 개척자들은 새로 더 높이 도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3년 뒤에는 다시 98명의 선교사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한 지도자는 선교 사업 기간이 “대체로 길지 않은 시간일 것[이며] ...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고작해야 삼 년 내지 칠 년 정도에 지나지 않”을



브라질 상파울루

것이라고 했습니다.⁷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은 여러분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진, 화재, 홍수, 태풍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앞서 살아간 이들의 어려움보다 덜하다는 사실에 자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이 확신을 주십니다. “답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모 너희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8:18)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일이 개척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는 1830년 4월에 주신 계시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인도를 따르면 “지옥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6)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6:34)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품은 채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교리와 성약 25:13),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교리와 성약 59:15) 성약의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집을 떠나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은 대부분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미국 유타주 프로보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교리에는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 교리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행동에 힘과 확신을 줍니다. 이러한 인도와 깨달음, 그리고 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약속받은 은사입니다. 회개의 은사를 포함하는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 부모와 다시 만나 함께 승영을 영위할 영원한 운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머무르며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고난을 겪고 계시지 모릅니다. 극심한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면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맞서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 삶은 본래 어렵게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⁸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하늘의 목적지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3~16장 참조.
2. 니파이후서 2:11 참조.
3. Abraham Lincoln, address to the Wisconsin State Agricultural Society, Milwaukee, Sept. 30, 1859, in John Bartlett, *Bartlett's Familiar Quotations*, 18th ed. (2012), 444.
4. 교리와 성약 6:31 참조.
5. See Lawrence E. Corbridge, “Surviving and Thriving like the Pioneers,” *Ensign*, July 2020, 23–24.
6. See “Minute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6 October 1849,” General Church Minutes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7. George A. Smith, in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ug. 28, 1852, 1,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8. Richard G. Scott, *Finding Peace, Happiness, and Joy* (2007), 248–49.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준비를 갖춘 분들과,
이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잊지 못할 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을 제 마음속에 자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은 굳건한 8백만 명의 여성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많은 수의 여성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힘을 지니셨습니다. 저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이 시기에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족한 물품이나 새로운 직장을 갑작스레 찾아 나서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은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이웃을 두루 살피 주셨습니다. 일찍 귀환한 선교사들도 있었고, 자신의 가정을 선교사 훈련원으로 만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및 친구와 교류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성역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고, 수백만 개의 보호용 마스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신 여성 분들께 진심 어린 연민과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주시는 모든 분께 찬사를 보내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녀 여러분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각종 논쟁으로 넘쳐나지만, 수많은 청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구주의 빛을 나누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야말로 영웅다운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대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자신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시온 군대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25년 전인 1995년 9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지니셨던 그 희망을 구현하고 계십니다.¹ 그분이 이 중요한 선언문을 발표하실 대상으로 교회의 자매님들을 택하셨다는 점은 무척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 통해, 힝클리 회장님은 주님의 계획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올해 무엇을 배우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면 미래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사뭇 암울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시대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 기절[할 것이며]”²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³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⁴ 인류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⁵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경륜의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시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마지막 날의 … 사업은 매우 중대[하고,] …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으며, 그 영화는 견줄 수 없 … 다”라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⁶

여러분은 지난 몇 달을 영화롭다라는 단어로 묘사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대한 암울한 예언과 영광스러운 선언,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께서서는 다음의 단순하지만 놀라운 위안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⁷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는 그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태도를 뒤바꿀 만한 약속입니다. 최근에 저는 깊은 간증을 지니신 한 여성 분이 전염병과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발생한 지진을 동시에 겪으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그 말씀이 음식 비축에 대해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간증에 대해 말한 것인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둘 다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와 우리의 미래를 신앙으로 맞이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준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 주님의 선지자들은 필요한 시기를 위해 음식과 물을 비축하고 비상금을 모아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그러한 지혜로운 권고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행동으로 옮기시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적, 정서적 준비에 대해 더욱 염려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로나이 대장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그는 자신들보다 더욱 강하고 규모도 컸으며 포악했던 적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로나이는 다음의 세 가지 필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첫째로, 그는 백성을 도와 자신이 “방호 장소”라고 불렀던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⁸ 둘째로, 그는 “백성의 마음이 주 … 께 충실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⁹ 그리고 셋째로, 그는 자신의 백성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¹⁰ 이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봅시다.

원리 1: 안전한 장소를 마련한다.

모로나이는 독을 쌓아 올리고 보루를 만들고 벽을 쌓아 니파이인 도시를 강화했습니다.¹¹ 그들에게 쳐들어온 레이맨인들은 “자신들의 방호 장소를 예비한 니파이인들의 지혜로 인하여 심히 놀랐”습니다.¹²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혼란이 거세질 때, 우리는 자신에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이 거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성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인도 벵갈루루

최전방의 방어선이 됩니다.

또한 시온의 스테이크는 “폭풍우를 ... 피할 ... 피난처”입니다.¹³ 그 이유는 스테이크가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신권 권세를 행사하는 분들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승인하신 분들의 권고를 꾸준히 따를 때, 여러분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주님의 집인 성전은 다른 어떤 장소에도 견줄 수 없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자매 여러분은 그곳에서 맺는 성스러운 신권 성약을 통해서 오는 신권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¹⁴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족은 영원에 걸쳐 인봉됩니다. 성전에 갈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 올해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여러분이 받은 엔다우먼트는 그분의 권능을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간단히 말해, 안전한 장소란 여러분이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소입니다.¹⁵ 성신이 함께할 때, 진리가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에 반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한 장소로 만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권 권능과 성전 성약 및 축복을 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저의 권유도 재차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리 2: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마음을 준비한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수명과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굳이 그런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냐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에 진도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이 유서 깊은 성전은 모로나이 천사상의 나팔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¹⁶



브라질 상파울루

솔트레이크 성전의 물리적인 토대가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굳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토대도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을 뒤엎는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습니다.¹⁷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¹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를 기억”하도록 힘써 노력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게 됩니다.¹⁹ 더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은 커지게 됩니다. 신앙으로 배운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다수가 우리를 비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마다, 또는 성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반기는 오락이나 이념에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은 커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규칙적으로 몰몬경에 몰두하는 것만큼 신앙을 쌓는 데 효과가 좋은 방법도 드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만큼 강력하고 명확하게 간증하는 책은 없습니다.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 시대를 보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교리와 진리를 업선했습니다. 몰몬경은 후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쓰인 생존 지침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궁극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충실한 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것은 그중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만일 우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²⁰ 저는 여러분이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울 때, 삶에서 더 많은 인도와 무한한 영의 은사를 받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원리 3: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모로나이 대장은 자신의 백성을 꾸준히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다. 그는 절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다.

대적은 절대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준비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자립할수록, 사탄의 끊임없는



파테말라 파테말라시티

공격을 막아 낼 준비를 더 잘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데 능숙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²¹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올해에 다시금 이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심어 주는 여러분의 노력은 앞으로 수 세대에 걸쳐 보상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기대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후기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셨기에 지금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사업의 영화로움을 이해하고 그 영화로움을 이루도록 돕기를 열망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수월할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준비를 갖춘 분들과, 이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기를 단순히 견뎌 내지 맙시다.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 험난한 시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평온한 시기보다 우리의 영향력이 훨씬 더 깊숙이 미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준비를 결코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실 것이며],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랄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²²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하도록 준비하실 때, 이러한 약속들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과 확신을 전하며,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이 선언문과 함께 전한 말씀에서,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여러분이 지닌 힘과 여러분의 충실함, 신앙,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 깊이 신앙으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하기로 한 결심에 감사드립니다.”(“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98쪽)
2. 누가복음 21:26; 또한 교리와 성약 45:26 참조.
3. 마태복음 24:24; 조셉 스미스—마태 1:22 참조.
4. 교리와 성약 1:35.
5. 교리와 성약 1:17 참조.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험난해질 것이다. (디모데후서 3:1~5 참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12쪽.
7. 교리와 성약 38:30.
8. 엘마서 49:5; 50:4 참조.
9. 엘마서 48:7.
10. 엘마서 49~50장 참조.
11. 엘마서 48:8 참조.
12. 엘마서 49:5; 강조체 추가.
13. 교리와 성약 115:6.
14. 러셀 엠 넬슨, “영적인 보화”,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76~79쪽 참조.
15.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가르쳤다. 성신은 “사람이 마음에 품은 모든 간절할 소망을 이루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줍니다]. … 영으로 충만할 때면 제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날의 사소한 문제들이 전혀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리 영혼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이 위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46쪽.)
16. See Daniel Burke, “Utah Earthquake Damages Mormon Temple and Knocks Trumpet from Iconic Angel Statue,” Mar. 18, 2020, cnn.com.
17. 모사이야서 5:15.
18. 교리와 성약 88:118; 강조체 추가.
19. 모로나이사서 4:3.
20. 교리와 성약 42:61.
21.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앙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공으로 돌리면서 이러한 사실을 시사했다.(디모데후서 1:5 참조)
22. 엘마서 58:11.



일요일 오전 모임 | 2020년 10월 4일

엠 러셀 뱌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이러므로 너희는 ...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 요청을
세계 각국에 계신 모든 분께로 확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마지막
주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¹

그분의 재림 전 “장차 올
일” 가운데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 [그리고] ... 곳곳에 기근과
[역병,] 지진” 등이 있습니다.²

교리와 성약에서도
구주께서는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동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뉴스는 폭력 기사로 가득하고, 온라인은
부도덕하며 모욕적인 내용으로 도배되어



케냐 나이로비

있습니다. 묘지와 교회, 회교 사원, 유대교
회당, 그리고 종교적 성지들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전염병이 사실상 지구촌 전역을
뒤덮은 가운데,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백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학교 졸업식,
교회 예배, 결혼식, 선교 활동 등 인생의
여러 중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치되고
고립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황은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었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중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열정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시위도 보았고,
분노한 군중의 폭동도 보았습니다.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빛어지고 있는
갈등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을 겪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걱정과 괴로움을 아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까이서,
가슴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기도할 때면,
저는 주님께서 비탄과 고통,
외로움, 슬픔이라는 짐을
진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은 물론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여러분께 대해 연민과 슬픔을
느끼며, 여러분을 위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며칠간 미국 북동부를 방문해 미국 및 교회의 사적지들을 둘러보고, 선교사와 회원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고, 정부와 기업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에서 열린 큰 모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권고해야겠다는 영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 이 나라와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대한 나라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⁴

또한 과거에 그랬듯, 미국과 세상의 많은 나라가 또 다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⁵

이것은 제가 준비해 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석한 이들에게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유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낌에 따라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 요청을 세계 각국에 계신 모든 분께로 확대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 누구에게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 신앙을 행사하여 여러분의 조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10월 매사추세츠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하늘의 영감과 인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치나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와 치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자 모든 치유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국가와 그 안의 도시와 마을과 동네는 물론 각 개인의 영혼에 임할 수 있는 그 평화와 치유 말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현재의 세계적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더 온전히 의지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란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앞에 놓인 난관을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영감을 구하는 것은 이 힘든 시기를 자신 있게 헤쳐 나가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내용과 또 당신이 직접 하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기도문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⁶

기독교 전반에 걸쳐 자주 암송되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직접 간구하는 것이 합당함을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⁷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빈부와 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생물학적 문제에 맞서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용감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기도의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⁸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당신이 가르치신 바를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⁹

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족과 지역 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든 이를 이루려는 각오를 굳게 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 도움과 위안,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소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 드린 후, 무릎을 펴고 일어나 자신과 타인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¹⁰

경전에는 기도와 행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믿는 자들의 사례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물문경에는 이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노스서에 대해 “그의 짧은 기록 중 약 2/3는 기도 즉, 일련의 기도를 서술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그가 받은 응답의 결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¹¹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1820년 봄, 조셉 스미스가 부모님의 통나무 집 근처의 숲에서 처음으로 소리 내어 기도한 것을 기점으로, 기도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었는지에 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와 영적 인도를 구했던 조셉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 조셉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한 충실한 후기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메리 필딩 스미스와 같은 충실한 여성들의 기도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리노이에서 날로 늘어 가는 박해를 벗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감하게 가족을 이끌고 이 안전한 솔트레이크 밸리로 왔으며, 그녀의 가족은 이곳에서 영적, 현세적으로 번성했습니다. 메리는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한 후, 열심히 일해 어려움을 이겨 내고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복돋우며,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세계를 하나로 결속해 줄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 세계적 전염병을 종식시킬 백신과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에 한층 더 헌신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골방에서, 매일 산보하는 중에, 가정에서, 와드에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¹²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표하여,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도록 교회를 인도할 영감과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동기가 되어 우리도 발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권능을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에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막 손에 시술을 받았었습니다. 제 손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오른 데다 통증까지 심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통증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로 주님께 일에 집중하여 일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내 생각이 명료해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제 앞에 놓인 시급한 일들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지금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메쿨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인도를 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 이웃, 지역 사회,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축복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임을 강하게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는 기도하신 다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¹³ 그분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시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위안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도 화평과 위로와 안전과 서로 봉사할 기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¹⁴

기도의 권능은 참으로 위대하며,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권능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21:36; 강조체 추가.
2. 마태복음 24:6, 7.
3. 교리와 성약 88:91; 강조체 추가.
4. M. Russell Ballard, in Sarah Jane Weaver, “President Ballard Pleads with Latter-day Saints to ‘Pray for This Country’ as United States Is at ‘Another Crossroad,’” *Church News*, Oct. 21, 2019, thechurchnews.com.
5. See Weaver, “President Ballard Pleads with Latter-day Saints.”
6. 마태복음 6:9~13.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은 13절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음에 주목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버려두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6:14)
7. 누가복음 18:1~8; 21:36; 에베소서 6:18; 니파이후서 32:9; 제3니파이 18:15, 18~21; 교리와 성약 10:5; 19:38; 33:17; 61:39; 88:126; 90:24.
8. 마태복음 5:44. (영문 성경 마태복음 5:44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이 한글 성경 해당 구절에서는 번역이 누락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제3니파이 12:44를 인용함—옮긴이)
9. 누가복음 23:34.
10. 엘마서 34:27~29 참조.
11. Sharon J. Harris, *Enos, Jarom, Omni: A Brief Theological Introduction* (2020), 18.
12. 엘마서 33:3~11; 34:17~27 참조.
13. 사도행전 10:38.
14. 누가복음 21:36, 강조체 추가; 또한 제3니파이 18:15 참조.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잠잠하라 고요하라

구주께서는 우리 주위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세찬 파도가 우리의 소망을 가라앉히려 위협할 때에도 화평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한 아름다운 호수에서 며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오후에 자녀 넷이 구멍조끼를 입고 배 갑판에서 물속으로 뛰어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언니 오빠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있는 힘껏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코를 잡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물 밖으로 튀어나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제 딸은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구멍조끼가 제 역할을 해 준 덕분에 안전하게 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손을 뻗어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딸을 다시 갑판으로 끌어 올려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물이 차가워서였거나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딸은 갑판으로 다시 올라왔고 우리는 딸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안고 그런 용기를 낸 것에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삶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다급하게 “도와주세요!” “구해 주세요!” “제발 제 기도를 들어 주세요!”와 같은 말들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² 갑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비유로써 가르치셨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났느니라”³ 그들은 바닷가를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뒤편에서 누울 자리를 찾으시고는 금세 잠드셨습니다. 곧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물이 거의] 가득하게 되었다.”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경험이 많은 어부였기 때문에 태풍 속에서 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뢰받는, 참으로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과 개인의 이익과 가족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을 따라 배에 함께 탔다는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음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가 폭풍우 가운데 있었고 거의 가라앉기 직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폭풍우에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으려고 제자들이 얼마나 오래 애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⁵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⁶

그들은 그분을 “선생님이여” 다른 말로 하면 “주여”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⁷

예수께서 배의 계신 곳에서 잠을 깨사 바람을 꾸짖으시며 성난 바다더러 이르시되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참으로]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⁶ 언제나 훌륭한 교사이셨던 예수께서는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간단하지만 사랑이 담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⁹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¹⁰

우리는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 중에 있을 때 “선생님이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도와주소서.”라고 울부짖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는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지니는 성향 또는 필멸의 존재로서 받게 되는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 또한 끔찍한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절규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¹¹

세상의 구주께서는 필멸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시기에, 우리 주위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세찬 파도가 우리의 소망을 가라앉히려 위협할 때에도 화평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신앙, 참으로 아주 작은 신앙을 지닌 것으로 드러난 자들에게¹²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권유를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¹³ “나의 이름을 믿[으라].”¹⁴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¹⁵ 그분은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¹⁶,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 서로 사랑하라”¹⁷, “항상 나를 기억”하라.¹⁸ 예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¹⁹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우에 흔들리는 배에서 갑판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며 물을 빼느라 바빠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돛을 조절해서 작은 배를 조금이나마 통제해 보려고 애썼을 모습도 그려집니다. 그 순간 그들의 온 정신은 생존하는 데 있었고, 급하고도 간절하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상파울루

그리고 우리의 국가, 지역 사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기치 못한 시련들로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인내심과 이해력의 한계까지 시험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파도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멀리 보지 못하며 초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험난한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시험받을 뿐 아니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세우고 키우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과 부지런함으로 시험하여 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의심하기보다는 믿기를,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기를, 반항하기보다는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커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정결케 됩니다.²⁰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신앙은 완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완전한 지식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다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¹ 혼란의 시기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굳건한 결심과 회복력을 줍니다. 이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중요치 않은 일들을 걸러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약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낙담할 때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어깨를

펴고 결연하게 앞으로 다가올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원과 위안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청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치지 않는 신앙을 통해 인내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다”라고 경건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²²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이 신앙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하여 그러한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이 닥칠지라도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집중시키십시오. ... 이 소중한 아들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과 잠재력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²³

저는 최근에 네 살배기 아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어떻게 도와주시니?”라는 질문에 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왜냐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른들도 사랑하세요.” 다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슬프거나 짜증 날 때 도와주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도와주세요.”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²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²⁵

최근에 벨슨 회장님께서 “참으로 구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며,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신앙이 커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²⁶

자매 형제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의 권능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위대하고도 귀중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와 슬픔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제자들과 함께하셨듯, 우리의 배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그분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²⁷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마가복음 4:1.
 2. 마가복음 4:1.
 3. 마가복음 4:35~36.
 4. 마가복음 4:37.
 5. 마가복음 4:38.
 6. 마태복음 8:25.
 7. 모사이야서 3:8.
 8. 마가복음 4:39.
 9. 마가복음 4:40.
 10. 누가복음 8:25.
 11. 교리와 성약 121:1.
 12. 앨머서 32:27 참조.
 13. 마태복음 11:28.
 14. 이터서 3:14.
 15. 교리와 성약 19:23.
 16. 제3니파이 18:11.
 17. 요한복음 13:34.
 18. 제3니파이 18:7.
 19. 요한복음 16:33.
 20. 니파이후서 2:8 참조.
 21. 닐 에이 맥스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8쪽.
 22. 누가복음 11:2. (한국어 성경에는 해당 표현이 번역되어 있지 않아 같은 표현이 언급된 누가복음 22:42를 인용함—옮긴이)
 23. 러셀 엠 벨슨,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시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34쪽.
 24. 제3니파이 9:22.
 25. 요한복음 3:16.
 26. 러셀 엠 벨슨,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14쪽.
 27. 마가복음 4:39.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찾으라

유혹과 싸우는 데는 평생 지속되는 근면함과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찬송을 시로 읊으며 이같이 선언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¹

이 시에 나타난 대구법을 통해,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지니신, 모든 지식을 아시는 신성한 속성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진실로 우리 영혼의 모든 면면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² 이생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시는 구주께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분을 찾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³ 그렇게 할 때,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야알레마나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서 어둠의 영향력을 막을 수 있다는 약속을 얻습니다.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그분의 것에 일치시켜야 합니다.⁵ 경전에서는 이 개념을 “주 안에 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⁶ 이런 행동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매일 선한 모든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⁷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습니다.⁸ 구주께서는 1831년 2월에 친히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⁹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더라도 부적절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에 계속 담아 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 소망에 영향을 주어 이생에서 훗날의 우리의 모습을 빚어 내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게 될 것도 그로 인해 결정될 것입니다.¹⁰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욕망이 결과의 등급을 결정짓[기도 함]니다.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라는 성구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¹¹

고대 및 현대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영적 견인력을 잃고 혼란 속에 방황하며 삶에 환멸을 느끼지 않도록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마치 금속 물체를 들고 자석에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은 금속 물체를 끌어당겨 단단히 붙잡습니다. 자석은 오직



브라질 상파울루

금속 물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자석이 멀리 있는 금속 물체에 힘을 행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때 유혹은 점차 약해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 결과적으로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들자니 매우 충실한 교회 회원 하나가 오래전에 제게 이야기해 준 경험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자매님이 잠에서 깨었을 때 예전에는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부적절한 생각이 불현듯 마음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황했지만, 자매님은 자신과 그 생각을 향해 “안 돼!”라고 외치고, 그 반갑지 않은 생각을 떨쳐 내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선한 것을 생각하며 빠르게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이 도덕적 선택의지를 의롭게 행사했을 때 그 부정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이 즉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요청하면서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구주께 나아오라고 그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모로나이는 굳건한 결의로 하나님께 구하여 유혹에 지지 않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¹²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그 원리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이러한 신성한 원리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한 조정을 하려면 구주께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필멸의 욕망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데는 평생 지속되는 근면함과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젠든 우리의 노력을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자신들이 품는 생각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약속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네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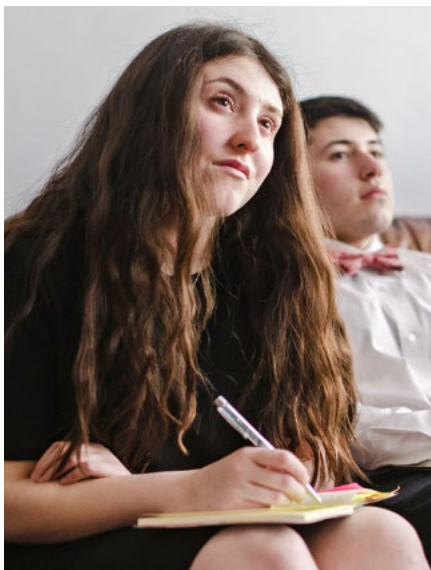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리라.”¹³

이 권고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장식하며 순수한 소망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로나이 또한 백성들에게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¹⁴ 탐욕이란 단어는 무언가를 향한 갈망과 부적절한 욕망을 의미합니다.¹⁵ 그것은 개인이 선을 행하고, 친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등의 행위보다 이기적인 행위나 세상의 소유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어두운 생각이나 악한 욕망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로 영혼에 스미는 가장 육욕적인 감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정들을 “더러운 것과 호색과 … 원수 맺는 것과 … 분냄과 당 짓는 것과 … 투기와 …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¹⁶ 탐욕의 이런 모든 악한 면 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적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혹할 때 우리를 속이는 비밀 병기가 바로 탐욕이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영혼의 구주에게 의지하고 모로나이의 권고를 따를 때 우리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칠레 발파라이소 페냐블랑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더욱 빠르게 성숙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성신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의 유혹은 점점 우리에게 대한 힘을 잃게 되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유혹에 사로잡혀 반복되는 불의한 행동을 떨쳐 버리기 힘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올 방법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소중한 회원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범법을 저지른 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눈에 띈 것은 그의 눈에 담긴 슬픔이었지만, 얼굴에는 분명 희망의 빛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겸손하고 변화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그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으로 생활했으며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온 부적절한 생각 하나를 그냥 두었고, 그 후 다른 부적절한 생각들이 잇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조금씩 더 허용하게 되자, 그것은 그의 마음에 뿌리를 박고 깊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적절치 않은 욕망에 따라 행동했고, 이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모든 것에 등을 돌리는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어리석은 생각이 머물 자리를 내어 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유혹이 자신의 인생에서 적어도 한동안은 너무도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처럼, 그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왔고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¹⁷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쌓았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결국에는 주님의 무리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저와 그 형제님은 우리를 향한 구주의 구속하시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짧은 만남의 끝에 우리들의 감정은 고무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저는 그가 제 사무실을 나갈 때 그의 얼굴이 찬란한 기쁨으로 빛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여러 작은 유혹에 저항한다면, 심각한 범법을 피하는 데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블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선 아주 작은 범법에 빠지지 않고서는 크나큰 범법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깨끗한 들에 갑자기 잡초가 무성해지지[는] 않[습니다.]”¹⁸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신성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꾸준히 저항하는 것이 중요함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훼방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들었습니다.¹⁹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구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의 마음에 정결하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 바로 그 순간 “안 돼”,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 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결과로 비롯된 행동은 어떻게 우리를 구주께 가까이 있게 하고 성신이 우리 삶에 지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가족 문제와 의견의 불일치, 부정적인 감정과 성향, 불의와 학대, 악한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비극과 사악한 행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올해 4월 연차 대회에서 주신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통해, “그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유혹과 고통과 연약함에 맞설 힘이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삶이 폭풍이 점점 더 거세게 몰아치는 시기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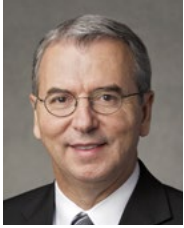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께서 주시는 약속은 구주께서 직접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삶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안 돼”, “물러가라”라고

말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르시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²¹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제가 영원토록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을 담아,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담아 이 진리를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편 139:1~3.
2. 경전 안내서, “전지”,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또한 마태복음 6:8; 니파이후서 2:24; 제3니파이 28:6; 교리와 성약 6:16 참조.
3. 시편 119:2; 이사야 45:22; 모사이야서 7:33; 교리와 성약 6:36 참조.
4. 요한복음 8:12 참조.
5. 교리와 성약 68:4 참조.
6. 빌립보서 4:1.
7. 빌립보서 4:8 참조.
8. 빌립보서 4:7.
9. 교리와 성약 43:34.
10. 잠언 23:7; 예레미야 17:10; 니파이후서 9:39; 모사이야서 4:30; 엘마서 12:14;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11. 닐 에이 맥스웰, “우리들의 마음의 욕망에 따라”, 『성도의 빛』, 1997년 1월호; 또한 마태복음 22:14; 교리와 성약 95:5 참조.
12. 물몬서 9:27~29 참조; 또한 모사이야서 2:41 참조.
13. 교리와 성약 121:45~46.
14. 물몬서 9:28 참조.
15. 경전 안내서, “탐욕”,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16. 갈라디아서 5:19~21.
17. 누가복음 15:17.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펠스 터블유 김볼』(2006), 106쪽; 또한 사무엘하 11장 참조.
19. 마태복음 4:10~11.
20. 러셀 엠 넬슨, “그의 말을 들으라”,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90쪽.
21. 사무엘상 13:14 참조.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칠십인 회장단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천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연차 대회에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천사가 휘장 저편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천사 같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만큼 하늘이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없습니다.”(“천사의 성역”,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0쪽)

저는 휘장의 이편에 있는 천사들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천사들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일깨워 줍니다.

제가 언급할 첫 번째 천사들은 제가 청남이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두 자매 선교사님들, 빌마 몰리나 자매님과 이보네트 리비티 자매님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한 교회 활동에 초대받았고, 그곳에서 이 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단순한 활동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부모님과 남매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선교사가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건물에서 선교사와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그 작은 방이 저의 “성스러운 숲”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제게 복음을 소개하고 한 달 뒤에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열 여섯 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성스러운 행사의 사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동생과 제가 그 활동에 참석했을 때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사람이 저입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생활방식이 이제 막 바뀌고, 가족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십

대였던 제가 교회에 활동적으로 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 새로운 친구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종종 외로움을 느꼈고 낙담했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종교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확신도 없었지만, 저는 3일간 열리는 청소년 대회에 참가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 대회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모니카 브란다오라는 또 다른 구원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브라질의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곧 제 주의를 끌었고, 운 좋게도 저를 친구로 받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는 제 외면보다 내면을 봐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의 친구가 되었기에, 전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고, 이후에 여러 청소년 활동 모임에 즐겁게 참석하면서 그녀의 친구들은 곧 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교회에 개종한 후 몇 년간의 중요한 시기에 만난 천사들 덕분에 저는 성약의 길에 남아 있을 힘을 얻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제가 이 새로운 삶에 동화되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 좋은 친구들은 큰 도움이 됐지만, 저를 지지해 주는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지 못했기에, 제 개심의 과정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복음에 관해 소통하는 것이 저의 개심의 과정에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줄 또 다른 두 명의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저의 새벽 세미나 교사이셨던 레다 베토리 자매님이셨습니다. 수용적인 사랑과 영감을 주는 수업을 통해, 자매님은 제게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모로나이사서 6:4)을 주셨고, 그것은 제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또 다른 천사는 청남 회장이셨던 마르코 안토니오 푸스코 형제님이셨습니다. 형제님은 제 가정 복음 교육 선임 동반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경험도 부족하고 걸음도 남들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게 신권 정원회 모임과 가정 복음 교육 방문에서

가르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은 제게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한 것보다 저를 더 믿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천사들과, 그리고 중요한 시간인 개종 후 몇 년간 만난 많은 이들 덕분에 진리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약의 길에 남아 있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같던 어린 소녀 모니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둘 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좋은 친구, 교회에서의 책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이 그러한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가입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습관이나 행동을 끊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중하게 아끼던 신념을 버리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독, 그리고 심지어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개종자의 생애에 이런 어려운 시간이 닥치면 그들을 키워 주고 강화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88년 3월호, 5쪽)

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개종자 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곧 친구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개종자와 청남”,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47쪽)

제가 왜 여러분과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저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개종자나 잠시 방향하다가 교회를 다시 찾아오신 분,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고 애를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큰 가족의 일부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나 계속해서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방식과 전통을 바꾸려고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고리와 성약 84:88)

이 경험들을 나누는 두 번째 목적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 즉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들,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 다른 생활방식을 가진 이들이 금방 적응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며, 기꺼이 돕고자 하는 천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이들의 삶에서 기꺼이 천사가 되고자 자원하는 이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기꺼이 이러한 천사들 중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를 위해 회장의 이편에서 보내신 사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분께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천사의 일에 첫 번째로 참여하는 자들로서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얀 셔츠나 정장을 입지도, 표준 안식일 복장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실이나 교실 뒤편에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느끼면서 말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약간 극단적이거나 사용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계속 나와야 할까? 내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언젠가는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게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 천사들이 필요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안락하고 편안한 경계를 벗어나 그들을 끌어안아 줄 천사들,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설명하려면] ‘천사 같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천사의 성역”, 30쪽)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의 손길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이 후기를 위해 성별된 거대한 천사의 군대입니다. 기꺼이 봉사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는 기회를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누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그분들을 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천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길에 두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제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두신 많은 천사들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제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하도록 돕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 성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이자 믿음의 동료인 여러분께 제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으로 우리 삶이 혼란에 빠지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잃는 비극 가운데서도 신앙과 용기를 보여 주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포함합니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감사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늘 우리 앞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겸손하게 선언하신 그분이 계십니다.¹ 우리는 서로에게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과 영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²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맑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십니다. 그분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뒤에 장엄하게 일어나시어,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필멸의 죽음 이후에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비할 데 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으며, 이로써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삶의 폭풍이 일 때 평안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닻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내면의 이러한 영적 확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반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며, 그분의 이름이 선포된 지 수 세기가 지났음에도 그분을 믿는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유럽의 용감한 성도들은 수십 년에 걸쳐 자국에서 믿음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³ 안타깝게도 이곳 미국에서도 신앙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3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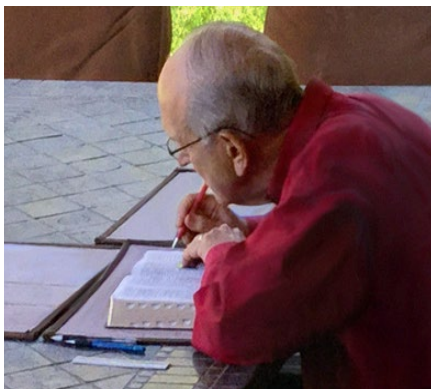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⁴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기독교를 떠날 사람의 수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사람의 두 배 이상 될 것이라고 합니다.⁵

물론 우리는 각 개인의 선택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⁶ 저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⁷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신의 믿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준비

그 답의 일부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전 여러 달 동안 주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넬슨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부름받기 일 년 전에 하신 말씀에서 주제별 안내서(Topical



구주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넬슨 회장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파테말라 산루카스 사카테페케스

Guide, 번역되지 않은 자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조 성구 2,200개를 더 깊이 공부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⁸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열린 4월 연차 대회에서 회장은 수십 년 동안 헌신적인 제자의 길을 걸었는데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공부한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웬디 넬슨 자매님이 그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회장은 “나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요? 92세의 연세에 다른 사람이 되셨다니요? 넬슨 회장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구주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의 회상에 관해 공부하다 보면, ...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

...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됩니다].”⁹

구주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⁰

할 일과 근심거리와 해 볼 만한 여러 시도와 노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우리의 희망이자 구원이신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구주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넬슨 회장이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넬슨 회장은 교회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 즉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며 강화하고 영화롭게 해 주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영에 이르게 하는 그 권능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 권능의 근원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¹¹ 넬슨 회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확한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사소한 일로 보일지라도, 이는 전혀 사소한 일이 아니며 세상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준비에 따른 약속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이 넬슨 회장이 하셨던 것처럼 준비할 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 더 자주 그리고 덜 주저하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훨씬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친구에 대해 말할 때처럼 그분에 대해 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은 우리 말을 묵살하거나 우리와 논쟁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우리의 말을 기꺼이 경청하고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분에 대해 덜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헌신적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함

우리의 가정에 구주의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신앙이 사그라지는 자녀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킬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¹²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의식적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가르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 우리는 왜 기도해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기억나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자꾸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¹³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함

이 성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라는 말도 나옵니다.¹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삶의 경험이나 다른 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가

가족이든 봉사든, 성전이든, 또는 최근의 선교 사업이든, 우리가 예배 모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은 한 남성에게서 받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여 열일곱 명의 간증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구주에 대해 언급하는 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¹⁵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과장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를 일깨워 줄 내용이기엔 인용합니다.”¹⁶ 그런 다음, 옥스 회장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반 토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함

주변 사람들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기꺼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¹⁷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거나 선교사들과 만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할 때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사려 깊은 태도로 그저 그분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 책임에 대해 더 생각합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님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주말에 대해 물으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른 “주 예수를 닮으려고”라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던 것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¹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진절하게 간증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놓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시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이 나누십시오. 대부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겠지만, 구주에 대해 말하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주의 다음 약속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 ...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¹⁹ 우리에게는 팔로워에게서 “좋아요”를 받는 것보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²⁰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합시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실상 몰몬경의 모든 페이지가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증거합니다.²¹ 그분의 속죄와 은혜에 관한 지식이 그 책의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신약전서의 동반자로서 구주께서 왜 우리를 구하려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의 믿음과 동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신약전서에 대한 공통된 믿음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우정과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²²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들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빛을 나눌 때, 그분의 빛과 그분의 특별한 구원의 권능이 기꺼이 마음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밝게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³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키움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그려 볼 때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집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재림은 숨이 멎는 듯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위엄과 영광 속에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실 것입니다. 단지 몇몇 천사들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이들은 밸런타인 카드에서 볼 법한, 라파엘이 그린 앵두빛 불의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천사로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²⁴ 감옥 문을 열고,²⁵ 오랫동안 기다려 온 그분의 탄생을 알리고,²⁶ 켈세마네에서 그분을 위로하고,²⁷ 그분의 승천에 대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안심시키고,²⁸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을 열기 위해²⁹ 보내진 이들입니다.

우리가 회장 이편에 있던 저편에 있던 끌어 올려져 그분을 영접하는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³⁰ 이것이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구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신성을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고양해 주시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께 주님의 손길이 임하며 그분이 계시의 은사를 통해 인도받고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음에 그려 볼 때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커집니다.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의 권고를 열망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그분의 영광스러운 다음 약속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³¹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4:6.
2. 마태복음 11:28.
3. See Niztan Peri-Rotem, “Religion and Fertility in Western Europe: Trends across Cohorts in Britain, France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May 2016, 231 – 65, ncbi.nlm.nih.gov/pmc/articles/PMC4875064.
4. “미국 성인 중 [65퍼센트가]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한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12퍼센트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전체 인구 중 아무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 즉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한 종교가 없다고 칭하는 이들의 비율은 2009년

- 17%에서 현재 26%로 증가했다.(Pew Research Center, “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at Rapid Pace,” Oct. 17, 2019, pewforum.org)
5. See Pew Research Center,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 – 2050,” Apr. 2, 2015, pewforum.org.
6. 마가복음 9:7; 누가복음 9:35; 또한 마태복음 3:17; 조셀 스미스—역사 1:17 참조.
7. 모세서 2:9~11 참조.
8. 러셀 엠 넬슨,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참조.
9.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0~42쪽
10. 교리와 성약 6:36.
11.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8쪽.
12. 닐 앤더슨,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3. 니파이후서 25:26.
14. 니파이후서 25:26.
15. Dallin H. Oaks,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June 6, 1993), 7, speeches.byu.edu.
16. 델린 에이치 옥스,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1990년 4월호.
17.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39쪽.
18.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7~18쪽 참조;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참조.
19. 마태복음 5:11~12.
20. 베드로전서 3:15.
21. “[물론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약속된 메시야에 대한 자신들의 간증을 기록하며 평균적으로 1.7절당 한 번꼴로 그분의 이름을 여러 형태로 언급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101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다. ... 정전의 한 구절이 보통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물론경에서는 평균 두 문장당 한 번꼴로, 여러 형태로 언급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된다.”(Susan Easton Black, *Finding Christ through the Book of Mormon* [1987], 5, 15)
22. “속죄를 뜻하는 atone이나 atonement라는 단어가 흠정역 신약전서에는 어떤 형태로든 오지 한 번만 나오지만 물론경에는 35번이나 나옵니다. 물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으로서 그분의 속죄에 대해 귀중한 빛을 밝혀 줍니다.”(러셀 엠 넬슨, “속죄”,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23. 미국에서 기독교를 떠나는 이들의 연령은 더 젊다. “침묵 세대(Silent Generation: 1928~1945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옮긴이)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며(84%), 베이비 부모의 3/4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칭한다.(76%)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중 절반만이(49%)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며, 4/10은 종교적 ‘nones’(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신조어—옮긴이), 1/10은 비기독교로 분류된다.”(“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pewforum.org)
24. 요한복음 12:46.
25. 다니엘 6:22 참조.
26. 사도행전 5:19 참조.
27. 누가복음 2:2~14 참조.
28. 누가복음 22:42~43. 참조.
29. 사도행전 1:9~11 참조.
30. 교리와 성약 13편; 27:12~13; 110:11~16; 조셀 스미스—역사 1:27~54 참조.
31. 데살로니가전서 4:16~17; 교리와 성약 88:96~98 참조.
32. 마태복음 10:32.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연차 대회에서 받은 훌륭한 메시지와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로 봉사해 온 36여 년간, 저는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역과 그들의 이름², 그들의 삶과 아내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으며 그들의 혈통을 따라 계속 이어진 성약³, 열두 지파의 분산, 또한 우리 시대의 집합에 관한 여러 예언들을 포함하여 그 교리에 관한 모든 것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공부하고, 그것에 관해 기도하고, 관련 성구들을 모두 흡족히 취했으며, 주님께 제 이해력을 넓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학자 두 분의 도움으로 저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⁴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개념은 제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⁵ 우리는 모두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파라나 쿠리치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향력이 되시게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야곱은 자신이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 이름지었던 장소에서⁶ 중대한 문제로 고심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의지는 시험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⁷로 바꾸셨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 선언된 모든 축복이 또한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후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쳤으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⁹ 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의 기록처럼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이스라엘]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¹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집합은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시게 할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수 세기 동안 선지자들은 이 집합에 관해 예언해 왔으며,¹¹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서곡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재림 이전에 있을 이 집합은 그 자체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적인 용기를 고취하는, 하나의 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또는 “후기의 성약의 이스라엘”¹²의 일원으로서, 이 중추적인 사업을 도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¹³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킨다는 것은 물론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지칭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든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 손자며느리 중 한 명이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질의 아버지는 금식과 기도, 신권 축복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질은 아버지를 잃음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아내 웬디는 제게 질의 상황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질의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오직 한 단어였다는 사실을 질에게 말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단어는 근시안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후에 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기적을 약속해 주셨으면 했어요. 저는 할아버님께서 왜 근시안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계속 질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근시안적이라는 말이 “눈앞의 현상에만 사로잡힘”을 의미한다는 것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시안적이라는 말을 통해 저는 멈추고 생각하고 치유받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은 제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워 주어요. 또한 제 관점을 넓혀 영원한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요. 신성한 계획이 있으며, 제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 계시고, 저를 사랑하시며, 보살피 주신다는 사실도요. 근시안적이라는 말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제 소중한 손자며느리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질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선택함**으로써, 질은 평안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염두에 둘 때 선교사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인도되도록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인도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본 적은 없으나 그분들과 그분들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배우고자 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로 인도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약의 자녀”¹⁴로 태어났지만, 그때 이후로 성약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음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항상 느꼈던 이들에게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충만함과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는 복음의 그물은 크고 넓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태생적으로든 입양을 통해서든 개심을 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¹⁵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한 이스라엘의 자녀¹⁶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저마다 성스러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 진리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특정 인종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교리는 명백합니다. 그분은 “검거나 회거나, 맴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¹⁷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피부색으로 여러분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총애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는 피부색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인종 차별과 편견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회원들께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근절하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성약이 여러분이 매일 행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다른 어떤 야망보다도 중요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뜻을 그분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시겠습니까?**¹⁸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독신이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깨트린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흠 없이 지켜 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고자 노력할 때 하늘은 그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정치없이 헤매거나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나 교회에 대해 진지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삶을 인도하고 성약의 길에 굳건히 남도록 도와줄,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진리를 찾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닥칠 때, 행여 지치거나 외롭거나 오해를 받는 순간에 그런 유혹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참으로 많은 열정이 수월해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을 가장 잘 가꾸는 법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읽으며,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어울릴지를 알게 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신앙과 용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¹⁹ 개인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며,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실행하려면 매일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한 이 교통하는 때에²⁰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공격을 감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한층 대담해진 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힘을 모아 이스라엘의 집합을 돕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 보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시니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성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성약을 기억하셨[느니라].”²¹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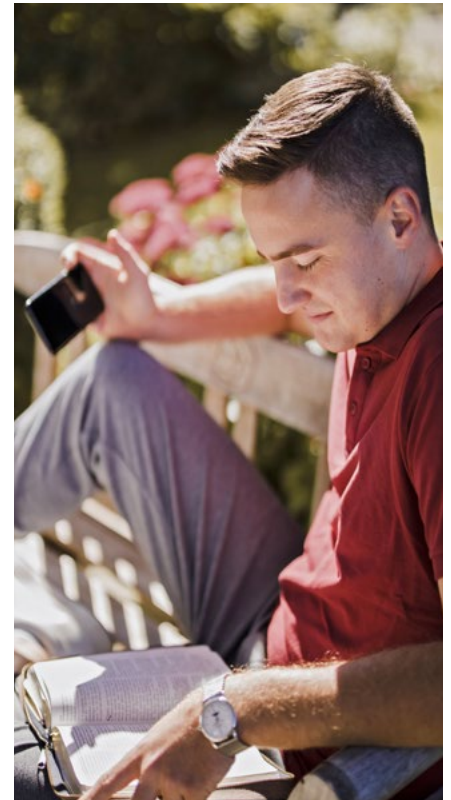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자녀의 싸움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되, ... 삼사 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²²

앞으로 여섯 달 동안 경전을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성약의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관해 가족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약속들이 성취되도록 생활하고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도록 선택할 때,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²³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약의 자녀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나는 사도로 봉사한 36년 동안 전했던 800여 차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적어도 378 차례 이상 말씀했다.
2. 히브리어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고귀한 이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 때, 그 이름은 “한 백성의 아버지”라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실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운명이었다. (창세기 17:5; 느헤미야 9:7 참조.)
3.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세상의 구주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것이고, 특정 땅이 상속될 것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모든 나라가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성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 (경전 안내서, “아브라함의 성약” 참조)
4. See Bible Dictionary, “Israel.”
5. 경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천 번 이상 등장한다. 이스라엘은 야곱의(이스라엘의) 자손인 열두 명의 아들과 그 딸들을 의미할 수 있다. (창세기 35:23~26; 46:7 참조)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한 장소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적 용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6. 창세기 32:30 참조.
7. 창세기 32:28 참조.
8. 창세기 35:11~12 참조.
9. 더 알아보려면, 경전 안내서, “이스라엘의 흠여짐”을 참조한다.
10. 이사야 54:7.
11. 이사야 11:11~12; 니파이후서 21:11~12; 모사이야서 15:11 참조.
12. See *Encyclopedia of Mormonism* (1992), “Covenant Israel, Latter-Day,” 1:330–31.
13. 우리가 이스라엘의 집합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서는 집합의 대상을 몇진 방식으로 묘사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총괄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출애굽기 19:5; 시편 135:4, 당신의 “보석”(말라기 3:17; 교리와 성약 101:3),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부르신다. (출애굽기 19:6; 또한 신명기 14:2; 26:18 참조)
14.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다음 성약을 의미한다.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제3니파이 20:27) “성약의 자녀”라는 말은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부모가 성전에서 인봉받았다는 의미이다.
15.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아브라함서 2:10; 또한 로마서 8:14~17; 갈라디아서 3:26~29 참조)
16. 모든 충실한 회원은 축복사의 축복을 요청할 수 있다. 축복사는 성신의 영감을 통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집에서 어느 혈통에 속하는지 밝혀 준다. 그것은 꼭 그 사람의 인종, 국적, 또는 유전적 기질에 대한 선언이 아니다. 그보다는 선인된 혈통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된다.
17. 니파이후서 26:33.
18. 모사이야서 15:7 참조.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은 기꺼이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심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저마다 자기 나름의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말했듯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의 마음과 소망을 시험하실 것이다. (존 테일러의 회상,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31쪽 참조)
19. 모사이야서 3:19 참조.
20. 디모테후서 3:1~13 참조.
21. 니파이전서 17:40; 강조체 추가.
22. 교리와 성약 98:37; 또한 시편 31:23; 이사야 49:25; 교리와 성약 105:14 참조.
23. 물몬서 9:11.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시험받고 입증하고 연마되어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우리의 성약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 얻게 될 가장 큰 축복은
본성의 변화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삶이 유달리 힘들고 불확실해 보일 때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이 그런 때일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인 동시에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음을 당신께 입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어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은 제 가족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제가 여덟 살쯤 되었을 때, 현명하신 어머니께서는 형과 저에게 집 뒤뜰

정원에서 함께 잡초를 뽑아주고 하셨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저희가 살았던 뉴저지는 비가 자주 오고 땅은 뽁뽁한 진흙으로 된 곳이었습니다. 잡초는 채소보다 더 빨리 자랐습니다.

제가 잡초를 뽑았을 때, 뿌리는 뽁뽁한 흙 속에 단단히 박혀 있고 이파리만 뜯겨 나온 것을 보고 느꼈던 좌절감을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형은 금세 저만큼 앞질러 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애쓸수록 저는 더 뒤처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동정심 대신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당연히 어렵지. 원래 그런 거야. 삶은 시험이란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의 제 삶에서도 늘 그럴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의 자녀들에게 필멸의 삶이라는 기회를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셨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¹

여러분과 저는 하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해 시험받고 이를 입증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런 애정 어린 권유에도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아알레마나

불구하고, 루시퍼는 영의 자녀 중 3분의 1을 설득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장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모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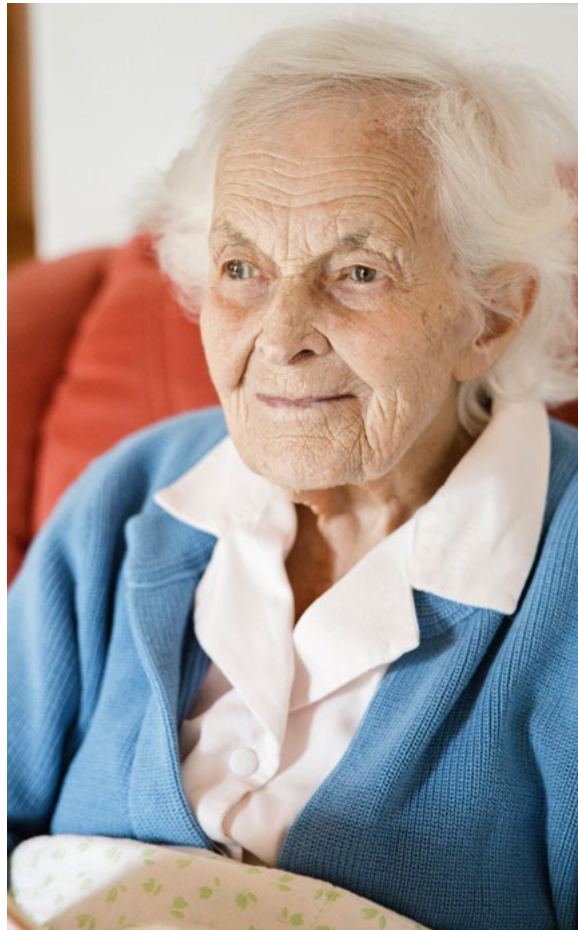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세에서 어떤 필멸의 약점이 있더라도 또 어떤 악한 힘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선한 힘이 압도적으로 더 클 것임을 틀림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분들께 다시 돌아와 그분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곧 그분들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라는 말씀을² 읽거나 들었을 때 성신이 확인해 주는 그 사랑을 느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의 땅을 향해 헤매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지상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간헐 자[를 위해] 옥”을 열어 주셨습니다.³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조셉 스미스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동안 한 가지 교훈을 배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되는 신앙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험을 겪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나 살인자들의 손에 던져지고 사형이 네게 선고될지라도, 네가 깊은 물에 던져질지라도, 물아치는 큰 파도가 너에 대하여 음모를 꾸밀지라도, 맹렬한 바람이 네 원수가 될지라도, 여러 하늘이 흑암을 몰아오고 모든 원수가 힘을 합쳐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⁴

여러분은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성장해야만 그분의 면전에서 가족들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를 가능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구주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여 그분께 나아가겠다고 신앙을 통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구주의 모범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지침이 됩니다. 그분 또한 예외 없이 자신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해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와 미래에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짐을 없애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힘과 위안과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에 직면하든지 우리를 도울 방법을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구주로부터 우리는 자양분을 받고 위로를 얻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⁵



인도 벵갈루루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방법 중 하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⁶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하고, 그분의 권세를 받은 중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고, 그런 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므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셔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신의 은사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그분은 대부분 제가 다음으로 내디딜 한두 걸음 정도만 알려 주셨습니다. 드물게 먼 미래를 살짝 보여 주신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에서도 저는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에 관한 인도를 받았습시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⁷

우리가 고난을 겪는 동안 우리의 성약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할 때 얻게 될 가장

큰 축복은 본성의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키는 편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이 치르신 속죄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구주께 나아오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고난에 따른 이러한 약속된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입증할 기회, 즉 구주와 하늘 아버지처럼 되기에 필요한 충분히 힘든 시험을 통과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알아차리고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혹독하게 시험받는 중에는 그렇게 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줄 때, 우리 등에 힘이 생기고 어둠 속에서 빛이 감지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미 숨을 거두셨을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형 집행자들을 보며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⁸ 그분은 이 세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요한과 슬픔에 찬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며 시련을

겪는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⁹

가장 성스러운 그날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고, 이로써 이 생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의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충실함을 입증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전역의 교회에서 그런 모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을 겪으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견디고 노력함으로써 더욱더 구주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닮아 갑니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디프테리아에 걸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척수막염을 앓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은 함께 외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질병에서 비롯되는 시련의



브라질 상파울루

영향력을 체감하며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심지어 병상에 누워 지내실 때에도 어머니는 주님께 충실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침실 벽에 유일하게 걸려 있던 그림이 구주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목소리가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건강 잘 챙기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분은 스펜서 더블유 김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시련과 충실함에 관해 말씀하신 뒤,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밀드레드 자매님이 그 큰 고통을 그렇게 오랫동안 겪으셔야 했던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자매님을 조금 더 연마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많은 충실한 회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연마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자신의 짐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짐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그러한 연마의 시간을 견디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지도자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오늘날 이 세상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아브라함서 3:25~26.
 2. 모세서 1:39.
 3. 교리와 성약 138:42.
 4. 교리와 성약 122:7.
 5. 엘마서 7:11~12.
 6. 마태복음 11:28~29.
 7. 교리와 성약 58:3~4.
 8. 누가복음 23:34.
 9. 요한복음 19:26~27.



제러미 알 야기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모두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인내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기쁨도 커집니다.

2년 전 제 막내 남동생 채드는 회장 너머로 떠났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내인 스테파니와 어린 두 자녀 브레이든과 벨라, 그리고 나머지 가족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채드가 죽음을 앞둔 그 주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들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호된 시련을 겪는 동안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구주께서 지니신 치유의 권능은 우리에게 빛과 이해,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5쪽)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다시 채드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브라질 상파울루 타바아오 다 세라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야알레마나

알고 있지만, 그가 곁에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그해에는 마치 검은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을 더 자주 방문하면서 위안을 구했습니다. 다음 찬송가의 가사는 당시의 우리 마음을 대변합니다. “새벽 밝아오고 세상 깨어나니 어두운 밤 구름 사라져 버리네.”(“The Day Dawn Is Breaking,” *Hymns*, no. 52)

우리 가족은 2020년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2019년 11월 말에 『와서 나를 따르라』 교재에서 신약전서의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 한 주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야고보서 1:2 [학습 보조 자료]) 우리는 새로운 한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는 소망으로 2020년에는 “모두 기쁨으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아주 강했기에 지난 성탄절에는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크게 쓰인 티셔츠를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 더 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 위기가 몰아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인내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숙고해 보는 시간을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인내야말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3:19)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6장에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란 지연, 곤란, 반대, 고통 등에 대해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인내할 때, 여러분은 시련을 견뎌 내고, 조용히 그리고 소망을 지닌 채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20쪽)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 중 하나였던 가나안인 시몬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통치에 강력히 반대했던 유대인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열심당 운동은 로마인과 그에 협력하는 유대인 및 사두개인에 대한 폭력을 옹호하여, 식량을 탈취하고 그들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여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see *Encyclopedia Britannica*, “Zealot,” britannica.com) 가나안인 시몬은 켈롯, 즉 열심당원이었습니다.(누가복음 6:15 참조) 무기를 들거나 군대를 인솔하도록, 또는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키도록 구주를 설득하는 시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 7, 9)

시몬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지지하고 옹호했는지 모르지만, 경전은 구주의 영향력과 모범을 통해 그의 초점이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가 삶에서 추구하는 노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구주께서는 우리가 “거듭나 …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27:25)

오늘날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노력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6:21) 충실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함”을 또한 잊지 맙시다.(히브리서 10:36)

신앙의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내는 것같이, 우리가 인내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기쁨도 커집니다.

지난 3월 제 둘째 딸 에머는 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처럼 의무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귀환했고, 새로운 임무 배정을 기다리는 선교사도 많았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봉사할 임지로 떠나기 전에 성전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로님과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딸 에머와 동반자는 처음 몇 주 동안 정서적으로 지쳤으며, 눈물로 보낸 순간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조금밖에 주어지지 않고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에머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딸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네덜란드에 있는 에머의 친구들에게 한 명씩 온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또한 『와서 나를 따르라』 가족 공부를 확장하여 그들도 매주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플로어, 로라, 렌스케, 프리크, 베나민, 스탈 그리고 무하마드 모두가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친구 중 몇몇은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제3니파이 14:13) 다른 친구들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에 관해 배우고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1:9)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매주 우리는 성약의 길 위에서 함께 진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일을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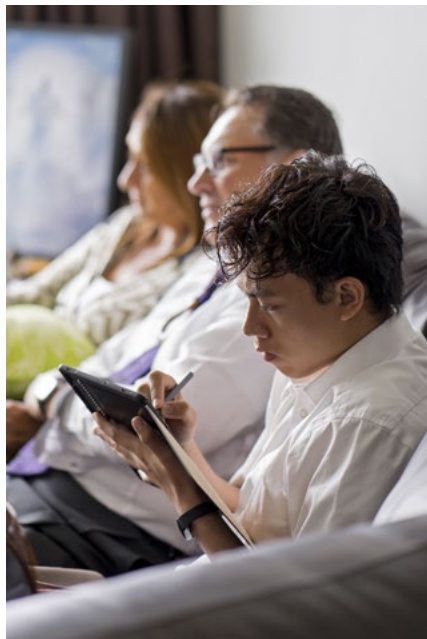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동안 와드의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야고보서 1:4)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어 주는 현대 기술과 『와서 나를 따르라』와 몰몬경 공부를 통해 가족들의 신앙이 커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특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 그리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14쪽)

하나님과 거룩한 성약을 맺는 곳인 성전은 일시적으로 닫혀 있지만,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곳인 가정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성전 성약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공부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 [우리에게] 부여될 축복[으로] ...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10:9)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고 기회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넬슨 회장님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우리 회원들의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기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가 실제로는 증가했습니다. ... 우리는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Russell M. Nelson’s Facebook page, post from Aug. 16, 2020, facebook.com/russell.m.nelson)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안심하라’입니다.(마태복음 14:27)

때로 우리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바라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조금해지기도 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야 자기 백성과 더불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자 365년간 애쓰고 나서야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7:49 참조)

제 남동생 채드는 우리 부부가 유타 옥든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에서 해임된 지 불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5년 당시 저희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살고 있었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선교부는 417개에 달했기에, 유타 북부로 부름받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동생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고, 동생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은 후였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며 우리가 기쁨을 찾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성결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고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주의를 기울일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모두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고난과 실망의 시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 해 전 어느 날, 일본의 아미미오라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 아주 작은 지부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동반자와 저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아시아를 방문할 것이며 일본 전역의 회원과 선교사가 도쿄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에 와서 선지자의 말씀을 듣도록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와 동반자는 지부 회원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은 12시간 동안 배를 타고 동중국해를 건너 일본 본토로 간 뒤, 다시 15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도쿄로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께서 거리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동반자와 제가 도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지부의 회원들은 도쿄행 배에 올랐지만 저와 제 동반자는 섬에 남았습니다. 이후 며칠 간은 고요하고 공허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후기 성도와 선교사들이 지역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우리는 작은 예배당에서 단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며칠 후 대회에서 돌아온 지부 회원들은

김볼 회장님께서 도쿄 성전 건립을 발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저의 개인적인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원들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도쿄 성전 건립이 발표되던 순간 회원과 선교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쁨에 넘쳐 동시에 박수를 쳤던 순간도 생생히 전해



미국 유타주 오렘

주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그 역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느꼈던 그 실망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는 가운데 저는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제가 선교사 시절에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실망감과 슬픔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이 가속화되던 올해 초, 제일회장은 “교회와 회원들이 훌륭한 시민이자 훌륭한 이웃이 되겠다는 결심을 충실히 나타내 보일 것”이며,¹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²

그에 따라 전 세계에서 교회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교회 선교사의 절반 이상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교회의 모든 성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성전 인봉을 비롯하여 산 자의 의식을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정보다 일찍 선교 사업에서 돌아오거나, 일시적으로 해임되었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다시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정부와 교육계는 학교를 잠정 폐쇄하였으며, 그 여파로 학생들의 졸업식과 스포츠 경기, 그리고 사교, 문화 및 교육 행사들은 모두 조정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사와 공연, 스포츠 시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장례식을 치르지도, 따뜻한 추모 모임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픈 실망과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삶이 이토록 망가진 듯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선지자 니파이는 중년이 되어 그의 작은 판에 기록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삶과 성역을 되돌아보며 그가 얻은 중요한 깨달음을 몰몬경의 가장 앞 구절에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도 숙고해 봐야 할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나 니파이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라는 친숙한 구절에 이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³

몰몬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니파이가 겪은 많은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겪은 그 고난들을 인정한 후에, 니파이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실망의 시기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 주십니다.

최근 저와 아내는 600여 명의 호주 선교사들과 화상으로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정도 외출이나 이동에 제한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숙소에서 지내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신약전서, 몰몬경, 그리고 교리와 성약의 인물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유를 제한받고 간혀 있어서 할 수 없었던 일보다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었던 일들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차꼬를 차고 감옥에 간혀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간증했으며, 심지어는 간수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⁴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파테말라 파테말라시티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⁵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 가르”쳤습니다.⁶

힐라만의 아들들인 니파이와 리하이는 학대당하고 감옥에 던져졌으나, 그 후 불기둥에 둘러싸여 보호받았으며, 주님의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은] ... 참으로 [간수들의] 영혼에까지 꿰뚫”었습니다.⁷

엘마와 앰올레크는 앰몬아이하에서 “그[들]의 말을 믿고, 회개하며, 경전을 상고하기 시작”한⁸ 많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 후에 조롱당하고, 음식과 물 없이 주리고, 별거벗겨지고, 결박되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말입니다.⁹

마지막으로, 리버티 감옥에 수감된 조셉 스미스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나, “이 ... 일이 ... 네 유익이 될” 것이며¹⁰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¹¹

이 인물들은 니파이가 알았던 사실, 곧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도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지난 몇 개월에 걸친 어려운 시기 동안 회원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어떤 방식으로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검색이 있기도 전에 여러 조정 사항을 발표하여 이후에 찾아온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살아 계신 선지자의 선견자적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 역시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원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년 전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교회란 집회소에서 하는 무언가이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의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가 필요[하며] ... 우리의 ... 건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¹² 참으로 예언적인 조정 사항이 아닙니까! 집회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을 실천해 왔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시기 동안 확립된 가정 중심의 복음 공부와 학습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입은 두 번째 예시는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에 관한 계시입니다.

2018년에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변화로서 성역을 소개하셨습니다.¹³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에게 성역을 베푸는 기술을 연마할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성역자와 청년, 청년,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뻗어 전자 기기를 활용한 메시지와 연락, 대화, 정원 관리, 음식, 성찬 의식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 동안 푸드뱅크와 노숙인 쉼터, 이민자 지원 센터에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아 상황을 돕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은 의료 관계자들을 위한 마스크 제작 요청에 응하여 수백만 장의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축복을 받은 마지막 예시는 **성전 의식이 다시 제공되면서 찾게 된 큰 기쁨**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선교사 부름을 받은 케이틀린 파머 자매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실에 매우 기뻐하나, 성전에

가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엔다우먼트를 예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모든 성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속상한 소식에 이어 그녀는 자신이 선교사 훈련원(MTC)에 가는 대신 집에서 화상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실망스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케이틀린은 영성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몇 달 동안, 파머 자매는 단 한 번도 성전 참석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에 성전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케이틀린은 가정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 이렇게 물으며 아침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혹시 오늘이 기적이 일어나 성전 문이 다시 열리는 날일까요?”

지난 8월 10일, 제일회장단은 케이틀린의 지역에 있는 성전이 그녀가 선교부행 새벽 비행기를 타기로 한 그날부터 산 자의 의식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성전에 참석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희망을 거의 내려놓은 채, 케이틀린의 가족은 혹시라도 그동안 기도해 온 기적이 실현될 길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마이클 벨링가 성전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비행기 출발을 몇 시간 앞둔 새벽 두 시, 파머 자매와 가족은 성전 문 앞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파머 가족 여러분,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그들을 미소로 반겨 주는 성전 회장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이 끝나자, 그녀와 가족들은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다음 가족을 위해 서둘러 움직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공항으로 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칠레 그레이터발파라이소 비야알레마나

몰았고 파머 자매는 시간에 딱 맞춰 선교 입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의 성전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면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던 성전 의식들은 그간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격려와 열의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시에 그가 불법적인 체포를 피해 나부의 집에 은신하면서 고난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기록했다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 하늘에서 온 자비의 소리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의 소리요, 죽은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기쁨의 소리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

...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지어다.”¹⁴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겪었던 슬픔과 실망감, 외로움, 놓쳐 버린 기회들이 되 돌아보면서, 그 위로 특별한 축복과 더욱 커진 신앙과 간증이 드리워 있었음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애편아이하와 여러분의 리버티 감옥이 이생과 다음 생에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성별되리라고 믿습니다.¹⁵ 우리 역시 니파이처럼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친히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무한한 속죄의 일부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¹⁶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자 위안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일회장단 서한, 2020년 4월 16일.
2. 제일회장단 서한, 2020년 5월 19일.
3. 니파이전서 1:1.
4. 사도행전 16:24~33 참조.
5. 사도행전 28:23.
6. 사도행전 28:31.
7. 힐라맨서 5:30.
8. 엘마서 14:1.
9. 엘마서 14:22 참조.
10. 교리와 성약 122:7.
11. 교리와 성약 122:9.
12.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쪽.
13.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쪽.
14. 교리와 성약 128:19, 22.
15. 니파이후서 2:2 참조.
16. 교리와 성약 122:8 참조.



이탈리아 파두아 두에 카라레



밀튼 카마르고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넉 달 전, 경전을 공부하면서 엘마가 엠몬아이하에서 펼친 선교 사업에 관해 읽던 중, 저는 『와서 나를 따르라』에 나와 있는 이런 제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에 관해 읽는 동안(특히 엘마서 9:19~23 참조),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을 생각해 본다.”¹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 온라인 교재에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저는 열여섯 개의 축복을 적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구주께서 베푸신 자비와 저를 위해 치르신 속죄의 희생이라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젊은 시절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로서 구주를 대표할 수 있었던 축복과, 이후 저의 사랑하는 영원한 동반자 패트리샤와 함께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 선교부에서 522명의 강하고 훌륭한 선교사들과 봉사할 수 있었던 축복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날 적었던 축복 중 많은 부분은 저와 아내 패트리샤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오면서 함께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 부부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되었던 것, 그리고 세 명의 훌륭한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 열세 명의 손주를 얻은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원리 안에서 저를 길러 주신 의로운 부모님도 생각났습니다. 특히 제가 열 살 무렵, 다정하신 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닿으려면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 엄마 기도가 끝나면 네가 해 보렴.” 어머니는 제가 원칙을 배우고 연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 밤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뜻을 듣고 알 수 있는 이 은사도 제가 받은 축복 목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권유

부활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구주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유를 반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14:7~8; 또한
 마태복음 7:7~8 참조)

우리의 선지자이신 러셀 엠 벨슨
 회장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두려움,
 약함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소망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받은 느낌을 기록하고,
 여러분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 개월에
 걸쳐, 수 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²

벨슨 회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³

계시가 우리의 영적 생존에 그토록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속임수와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참된 것과 그른 것,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은 가혹하기도
 하며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안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하라

주님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사모아 로토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과 신앙을
 드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지자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머리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느낌을 기록하는 것은 받은 것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억해 내고, 되새기며,
 다시 한번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계시가
 참되다고 믿어요. 또 성신이 제가 행해야
 할 모든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도 믿어요.⁴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제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걸 믿기는 쉽죠.⁵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항상 그런 강도로 성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저 또한
 영으로부터 오는 그 강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고, 따라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자주 느끼게 될
 음성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주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란다.” 항상 모든 것을 알아야 하거나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확신과 용기와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신은 실재하며, 성신이 주는 크고 작은
 느낌도 실재합니다.

찾으라

주님께서는 또한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시험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과 같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노력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찾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노이마르크트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겸손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8:30)

두드리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신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한 아름다운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깨어나 일해 봅시다 말로써만 하지 말고 선행은 한량없이 기쁘고 사랑과 큰 의무의 축복일세”⁶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님은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신도 더욱 사랑하도록 도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분께서 가장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⁷

엘마의 모범

자신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와서 나를 따르라』의 그 단순한 제언을 통해 저는 감미로운 영을 느꼈고,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는 엘마와 엠몬아이하에서 펼친 그의 선교 사업에 관해 계속 읽으면서, 엘마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훌륭한 모범을 보였음을 발견했습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나오니다. “엘마가 영으로 많이 수고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영을 … 백성들 위에 부어 주실 것…을 구하였더라.” 그러나 그 기도는 그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고 엘마는 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엘마가

“슬픔에 눌러” 포기하려던 참에, 한 천사가 다음과 같은 전갈을 전했습니다. “엘마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기뻐할 일이 크이니.” 천사는 그에게 엠몬아이하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했고, 엘마는 “속히 돌아”갔습니다.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관해 엘마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과 기도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거나 슬픔에 눌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안과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시거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노력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속히 우리의 계획을 그분의 계획과 일치시킨다면, 그분께서는 엘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폭넓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선지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직접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위안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엘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뻐할 일이 [큘]”니다.(엘마서 8:1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2020 물문경』(2019), 91쪽.
2.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에서 인용함.
3.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6쪽.
4. 니파이후서 32:5 참조.
5. 교리와 성약 9:8 참조.
6.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찬송가』, 182장.
7. “나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가 #그의말을들으라: 게릿 더블유 공 장로”(동영상), ChurchofJesusChrist.org.
8. 엘마서 8:10~18 참조.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고결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그분께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격려받습니다.¹ 아마 여러분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지?”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²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³ 미가는 풍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 드릴까”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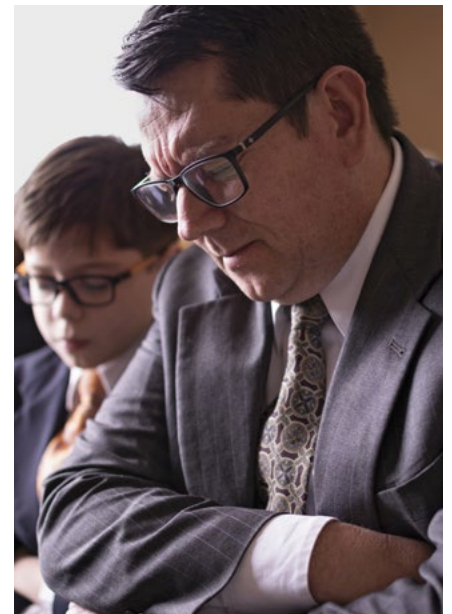
엄청나게 많은 제물조차도 짓값을 치르기에 충분할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⁴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⁵ 미가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엄청난 희생 제물로도 가장 작은 죄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만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거할 가망이 없습니다.⁶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 힘만으로 충분히 행하거나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⁷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⁸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⁹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¹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에 관해 미가가 제시한 방침에는 서로 관련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결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그분께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사랑함으로써



과테말라 산루카스 사카테페케스

다른 사람들에게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¹¹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며, 변함없이 참으로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¹² 정의로운 사람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과 성약을 맺으며, 또한 그 성약을 지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회개하며, 계속 노력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모세의 율법이 더 높은 율법으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과 … 번제”를 “바치지” 말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¹³ 침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고 사용할 때, 우리는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누릴 수 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¹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희생은 그러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¹⁵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닐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지니신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자비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시며, 또한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미가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 사유하시며 …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¹⁶ 하나님처럼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며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기원전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학자 힐렐 장로에 관한 일화에서 강조됩니다. 힐렐의 문하생 중 한 명은 모세 오경과 613개의 계명 및 랍비의 주해를 아우르는 토라의 복잡함에 격분했습니다. 그 문하생은 힐렐에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 내에 토라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힐렐은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레위기에 나오는 다음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¹⁷ 그런 후 힐렐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대가 당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말게나. 이것이 바로 토라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네.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나.”¹⁸

다른 사람을 항상 고결하게 대하는 것은 자비를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 전 제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응급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환자인 잭슨 씨는 예의 바르고 유쾌한 사람으로, 병원 직원들도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알코올 관련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여러 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잭슨 씨는 알코올 섭취로 인한 체중염으로 진단되는 증상이 생겨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면하고 존경받는 의사인 코헨은 교대 근무가 끝날 무렵 잭슨 씨의 상태를 진료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헨은 다음 교대 근무자인 존스에게 잭슨 씨를 입원시키고 그의 치료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명문 의과 대학 출신인 존스는 이제 막 대학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된 훈련은 종종 수면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존스는 아마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야간에 다섯 번째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그녀는 코헨에게 큰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잭슨 씨가 결국 이 상황을 자초해서 곤경에 처한 것인데도 자신이 많은 시간을 들여 그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코헨의 단호한 답변이 거의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선생님,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병원에서 훈련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지적을 들은 존스는 잭슨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열심히 그를 보살폈습니다.

잭슨 씨는 그 후에 사망했습니다. 존스와 코헨 모두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상파울루

존스는 훈련에서 중요한 순간에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판단하지 않고 잿슨 씨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¹⁹

지난 세월 동안, 그 교훈은 세계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며²⁰, 모두가 도움과 치유를 받기 위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²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으며, 그들을 고결하게 대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가르치셨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북돋아 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합당하지 않다 여겨진 이들에게 성약을 베푸는 이유로 당신을 흠잡던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²² 그런 독선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²³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고결하게 행동하며 정의를 행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의 바르며, 인생관이나 신념의 차이가 진정한 친절과 우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할 것입니다.²⁴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비를 사랑합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특히 불우한 사람에게 연민을 보입니다. 그들은 자애롭고, 친절하며,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사회 및 경제적



일본 치바

지위, 부족, 씨족, 또는 국가적 차이와 같은 특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과 이해로 대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대체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²⁵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중추가 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에도 “은혜에서 떨어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²⁶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승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필멸의 여정 동안 계속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미 회개한 잘못들을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생각하며 고통받거나,²⁷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지도 모른다는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향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²⁸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의 성품에 동화시키며,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성약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²⁹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 것입니다.³⁰ 여러분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³¹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자 구주주로서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켈리 알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

1.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7~69쪽 참조.
2. 모사이아서 2:41.
3. 미가 6:6.
4. 미가 6:7.
5. 에베소서 2:8; 니파이후서 31:19; 엘마서 22:14; 42:14; 제3니파이 18:32; 모로나이서 6:4; 교리와 성약 3:20 참조.
6. 제3니파이 27:19 참조.
7. 엘마서 41:8;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8. 고린도전서 15:22; 엘마서 11:42~45 참조.
9. 신앙개조 제3조.
10. 미가 6:8; 엘마서 41:14. 교리와 성약 11:12, 신앙개조 제13조에서 비슷한 훈계 참조.
11. 마태복음 22:35~40 참조.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한다. 러셀 엠 넬슨,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69~71쪽. 델린 에이치 옥스, “두 가지 큰 계명”,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73~76쪽.
12. 에스겔 18:8~9 참조.
13. 제3니파이 9:19~20; 또한 교리와 성약 59:8 참조.
14. 니파이후서 32:5 참조.
15. 니파이후서 2:7 참조.
16. 미가 7:18~19.
17. 레위기 19:18.
18. See Babylonian Talmud, Shabbat 31a:6; see also jewishvirtuallibrary.org/rabbi-hillel-quotes-on-judaism-and-israel. 주목할 만한 것은, 힐렐 장로는 사도행전 5:34에 언급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였고 가말리엘은 다소 사람 사울의 스승이었다는 점이다. See Isidore Singer, ed., The Jewish Encyclopedia (1903), “Gamaliel I.,” 5:558–59.
19. 잭슨, 코헨, 존스라는 이름은 그들의 실명이 아니다.
20. 니파이후서 26:33.
21. 모사이아서 23:7.
22. See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D-1 [1 August 1842–1 July 1843],” 1459, josephsmithpapers.org.
23. 누가복음 15:1~2 참조.
24. 모사이아서 4:13.
25. 모세서 7:33 참조.
26. 교리와 성약 20:32~34.
27.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참조.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회개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 … 속죄는 얼마나 어렵든, 오래되었든,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속죄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합당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며, 여러분이 삶의 방향으로 선택한 길을 추구하도록 도와줍니다.”
28. Lectures on Faith (1985), 38.
29. 모사이아서 2:41.
30. 엘마서 19:6 참조.
31. 교리와 성약 11:13 참조.

지속적인 권능

오직 신앙과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권능을 얻게 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을 복습하면서, 저는 그분이 말씀에서 자주 사용하신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단어는 권능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사도로 지지받으신 후 첫 연차 대회에서 권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¹ 그분은 이후로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권능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선지자로 지지받으신 이후로 권능의 원리, 특히 하나님의 권능의 원리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역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² 회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을 우리 삶에 불러오는지,³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인 신권이 어떻게 그분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는지⁴ 가르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간증하셨습니다.⁵

저는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이 주신 도전 과제가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부여받은, 혹은 장차 부여받게 될 지식과 권능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받아들여 그분의 권고대로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이미 부여받은, 혹은 장차 부여받게 될 지식과 권능에 대해 유익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성신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⁷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파테말라 산루카스 사카테페케스

하나님의 권능이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⁸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 마음과 온 영혼까지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마음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간증과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과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분의 권능을 얻게 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손슨 자매와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자녀가 악기를 배우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레슨을 받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악기 연습을 매일 하는 경우에만 받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희 딸 제일린은 친구들과 놀러 갈 생각에 들떠서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연습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제일린은 그 시간보다 1분도 더 하고 싶지 않아서 타이머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딸아이의 피아노로 가는 길에 전자레인지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이머를 맞추는 대신 전자레인지 조리 시간을 30분으로 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 버렸습니다. 20분쯤 연습을 한 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하려고 부엌으로 온 제일린은 전자 레인지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일린은 곧장 제가 일을 하고 있던 뒷마당으로 달려와서 집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급히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정말로 전자레인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저는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 뒤로 손을 뺀 전원 코드를 빼고, 그 선으로 불이 붙은 전자레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영웅이 되어 그 위기에서 집을 구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불타는 전자레인지가 몸에 닿지 않게 하려고 전원 코드로 빙빙 돌리며 뒷마당으로 갔고, 다시 한번 전자레인지를 빙 돌려서 잔디밭 위로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호스로 불길을 끌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전자레인지는 에너지를 흡수해 줄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데, 내부가 비어 있으면 기계 자체가 전자레인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가열이 되고, 결국 불이 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화염 속에서 파괴되어 잿더미가 됩니다.⁹ 저희 집 전자레인지가 통째로 불탔던 이유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간직한 이들은 대적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내보내는 불화살을 흡수하고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¹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확신이 견디지 못하여 빈 전자레인지처럼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과 함께 영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대적을 이기고 그가 제게 던지는 그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바울이 가르친 주님의 다음 약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¹¹

우리는 어린아이였던 구주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음]”을¹² 압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음]”도¹³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역을 시작하셨을 즈음에는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¹⁴ 사실도 압니다.

구주께서는 준비를 통해 권능이 커지셨으며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¹⁵ 우리도 구주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더 깊게



미국 유타주 오르

함으로써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집회가 제한되어 정기적인 성전 참여가 불가능해진 이 시기에, 저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 계속 공부하고 더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기도에서 약속된 대로 우리는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가게 됩니다.¹⁶ 하나님께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에는 유효 기간이 없으며, 전염병이 퍼지는 시기에도 우리가 그 권능을 이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오직 우리가 성약을 지키지 않고 그 권능을 계속 받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경우에만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선교부 지도자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희생과 준비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뒤 성전 참여자 지원 기금을 통해 성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있는 한 공항에서 라오스에서 온 충실한 성도 스무 분을 만나 그분들이 방콕에 있는 다른 공항으로 가서 홍콩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회원들은 마침내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어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훌륭한 성도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와 관련된 권능이 더해진 모습을 그들에게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분명히 “[그분]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성전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¹⁷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이 권능 덕분에 그들은 자국에서 교회 회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견디고, 라오스에서 주님의 왕국을 계속 건설하며 “심히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¹⁸ 품고 앞으로 나아가갈 힘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우리 각자는 삶에서 나아가야 할 분명하고 한결같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의지했습니까? 이러한 성약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품게 되고, 또 우리의 충실함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겠다는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¹⁹ 간증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벨슨, “영적인 힘의 근원을 보호함”,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참조.
2. 러셀 엠 벨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8~70쪽 참조.
3. 러셀 엠 벨슨,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112쪽.
4. 러셀 엠 벨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68~69쪽 참조.
5. 러셀 엠 벨슨,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리아호나』, 2020년 5월호, 115쪽 참조.
6. 러셀 엠 벨슨,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115쪽.
7. 교리와 성약 9:7-9 참조.
8. 리차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쪽.
9.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음식물이나 액체류를 뜨겁게 데운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런 파동을 흡수할 무언가가 전자레인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레인지가 이 파동을 대신 흡수하게 된다.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의 조리실을 뜨겁게 데우고, 흡수될 대상을 찾는다. 결국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에서 마이크로파를 만드는 마그네트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그네트론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전력을 계속 전자레인지의 다른 부분으로 보낸다.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면, 마그네트론과 전자레인지의 다른 부품들이 손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부품들이 과열되어 불이 날 수도 있다.”(Abacus Appliance Service Corporation, “Will I Destroy My Microwave If It Runs Empty?” Aug. 16, 2012, abacusappliance.com; see also Julie R. Thomson, “13 Things You Should Never Put in the Microwave,” June 13, 2014, huffpost.com)
10. 니파이전서 15:24 참조.
11. 디모테후서 1:7.
12. 누가복음 2:40.
13. 누가복음 2:52.
14. 누가복음 4:32.
15. 마태복음 4:1~11; 누가복음 4:1~14; 교리와 성약 20:22 참조.
16.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17. 교리와 성약 109:22.
18. 교리와 성약 109:23.
19. 마태복음 28:18 참조.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이란 그분의 팔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 비록 얼마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폐회 말씀을 우리 모두가,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연차 대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도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에 너무도 치진 나머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중 몇 분은 이미 그렇게 머리카락이 빠져 버렸지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오래가고 있다는 것에 다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도움의 손길이 더디지만 한 것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시련을 견디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버거워서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왜 아직 도움이 오지 않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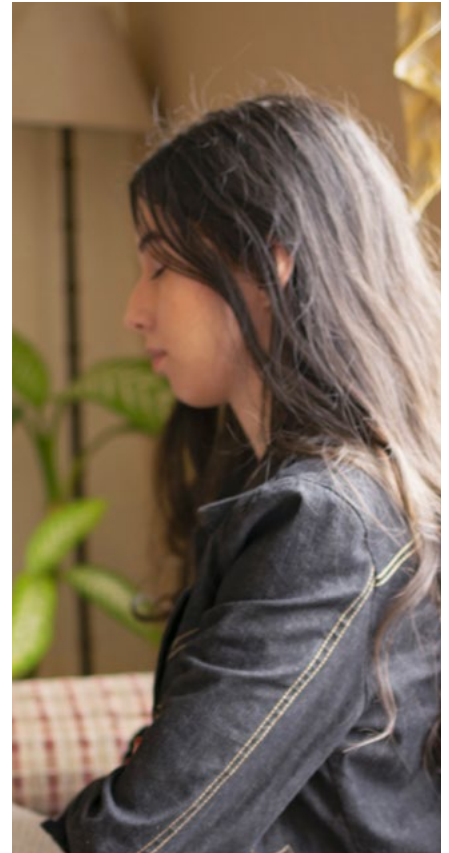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을 기울여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최악의 한파 중 하나로 기록된 어느 겨울, 축축하고 어두운 감방에서 울리는 누군가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리버티 감옥 깊숙한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오 주님, 얼마나, 정말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의 고통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전염병이나 감옥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많이 겪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이웃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메시지는 결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거나, 자신의 결혼 관계가 조금 더 해의 왕국을 닦기를 바라는 많은 분의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치료 불가능할지도 모를 심각한 건강 문제에 원치 않게 직면하신 분들이나, 치료제가 없는 유전적 결함과 평생 싸워야 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서 및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과,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힘겹고 끝없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주께서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가난한 이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의 기도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자녀가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한 경제적 및 정치적, 사회적 염려는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인 염려는 물론이고 고통스러운 공공 문제 역시 우리가 다루기를 분명히 바라시지만, 살다 보면 소소한 개인적인 문제에서든 전 세계적인 큰 문제에서든, 최선의 영적 노력과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기도로도 우리가 영원하던 승리를 끝내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기까지 우리가



과테말라 산루카스 사카테페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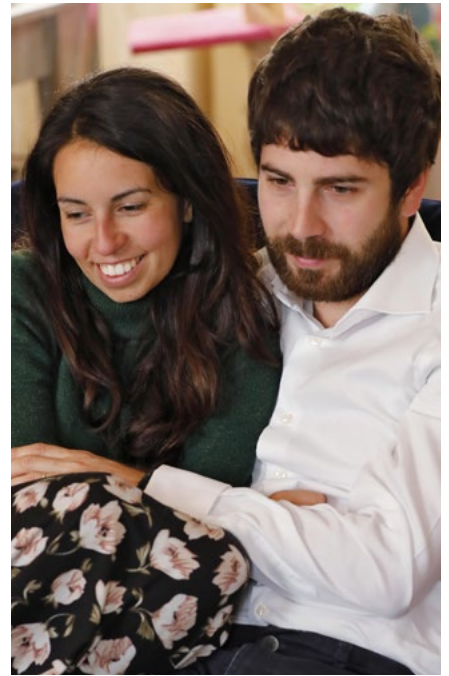
함께 노력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도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건대,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었으며, 우리가 바라는 때에 기대했던 방법으로는 아닐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한 연민을 지니신 부모가 취할 만한 방식으로, 그분이 염두에 두셨던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즐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 하시는² 하나님은 신성한 존재로서 해야 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당신 자녀들의 행복과 궁극적인 영생을 돌보신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팔로 가르시고,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1세기판 갈매기들이 어디선가 날아오게 해서 성가신 21세기판 메뚜기 떼를 모두 먹여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즉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잖아 우리의 필멸의 여정에서 때와 절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지휘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정표를 우리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받기를 기다리던 병약한 남성처럼 즉시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³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기다리며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사람도 있습니다.⁴ 니파이와 리하이처럼 신앙 덕분에 자신을 둘러싼 화염으로부터 보호받은 이들이 있는 반면,⁵ 아빈아다이처럼 자신의 신앙 때문에 화형당했던 이도 있습니다.⁶ 또한 바알의 제사들을 대적하여 증거하기 위해 하늘에서 즉시 불을 불러온 바로 그 엘리야가⁷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까마귀 발톱으로 전달되는 빈약한 것들로 한동안 연명하며 견뎌야만 했던 엘리야와 동일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⁸ 제 생각에 그것들은 맛있는 식사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요점은 바로 신앙이란 그분의 팔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⁹ 비록 얼마간의 고난이 있더라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이탈리아 파두아 사오나라

점입니다. 인생에서 최선의 것은 모든 고통을 피하는 것이며, 아무도 어떤 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라 믿게 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¹⁰ 그러나 그런 믿음은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지 못할 것입니다.¹¹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을 제가 감히 조금 고치고 확장하여 인용하는 것에 사과드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충만하고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세상을 천진난만하게 조용히 살아가면서” 느긋하게 레몬 차 한 잔을 훌쩍이며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가장 훌륭한 미덕을 모두 제게 주시고, 슬픔이나 비애, 고통이나 반대는 제게 주지 마시옵소서. 부디 아무도 저를 싫어하거나 배신하지 않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신에게서 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실 주님, 당신께서 신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으셨던 모든 경험을 제가 겪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의 험난한 고행길이 끝나면, 제가 당신께 나아와 당신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미국 아이다호주 슈거시티

그곳에서 제가 안락한 기독교 신앙의 구름 위를 유유히 떠다니며, 제 능력과 성품이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자랑하게 하시옵소서.”¹²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위안을 주지만, 보통은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함과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긴 여정이며, 때로는 바위투성이입니다. 걸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경의 엘마서 32장은 이런 진리를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이 훌륭한 대체사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씨앗을 심듯이 우리의 마음에 심는다면, 또 만일 우리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양분을 주고, 격려하며 충분히 돌본다면, 그 씨앗은 훗날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난게 감미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먹으면 더는 목마르지도 주리지도 않는 상태에 이를 것이라 가르칩니다.”¹³

이 훌륭한 32장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씨앗에 양분을 주어야 하며, 씨앗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¹⁴ 엘마는 우리가 수확할 날이 “머지않아”¹⁵ 올 것이라 말합니다. 엘마가 그의 놀라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청중에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함과 인내로써 가꾸며,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¹⁶

코로나바이러스와 암, 의심과 낙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시련 등, 이런 짐들을 언제쯤이면 내려놓게 될까요? 답은 “머지않아”입니다.¹⁷ 그 기간이 짧을지 또는 길 것인지는 항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오래전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은밀한 동산에서, 또 아주 공개된 언덕 위에서 약속되었습니다.



이제 대회를 끝내기 위해 앞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리셀 벨슨 회장님이 온 생애를 통해 보여 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¹⁸ 슬픔에서 벗어나고 또 비애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머지않아, 조만간 이 축복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간증하며,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회복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1~2.
2. 시편 121:4 참조.
3. 요한복음 5:2~9 참조.
4. 민수기 32:13; 신명기 2:7; 여호수아 5:6 참조.
5. 힐라맨서 5:20~52 참조.
6. 모사이아서 17장 참조.
7. 열왕기상 18:17~40 참조.
8. 열왕기상 17:1~7 참조.
9. 교리와 성약 123:17 참조.
10. See Rankin Wilbourne and Brian Gregor, “Jesus Didn’t Suffer to Prove a Philosophical Point,” Christianity Today, Sept. 20, 2019, christianitytoday.com.
11. 에베소서 4:13.
12. 제프리 알 홀런드가 고쳐 인용한 닐 에이 맥스웰의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7쪽.
13. 엘마서 32:42.
14. 엘마서 32:40; 강조체 추가.
15. 엘마서 32:42.
16. 엘마서 32:43; 강조체 추가; 또한 엘마서 32:41~42 참조.
17. 엘마서 32:42.
18. 이사야 40:31; 강조체 추가; 또한 이사야 40:28~30 참조.



러셀 엠 넬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

새로운 일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권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이틀간의
연차 대회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저도
홀런드 장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셨듯 모든 메시지와 기도와 음악에
주님의 영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연차 대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걱정하시는 것들, 또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신 일들을 제가 이해하게 해 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면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예견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도
감추어지지 않는 경륜의 시대입니다.¹
세상이 요동칠지라도,²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즐거운 기대를 안고”³ 미래를 고대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제의 기억에 매달려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하지는 맙시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제반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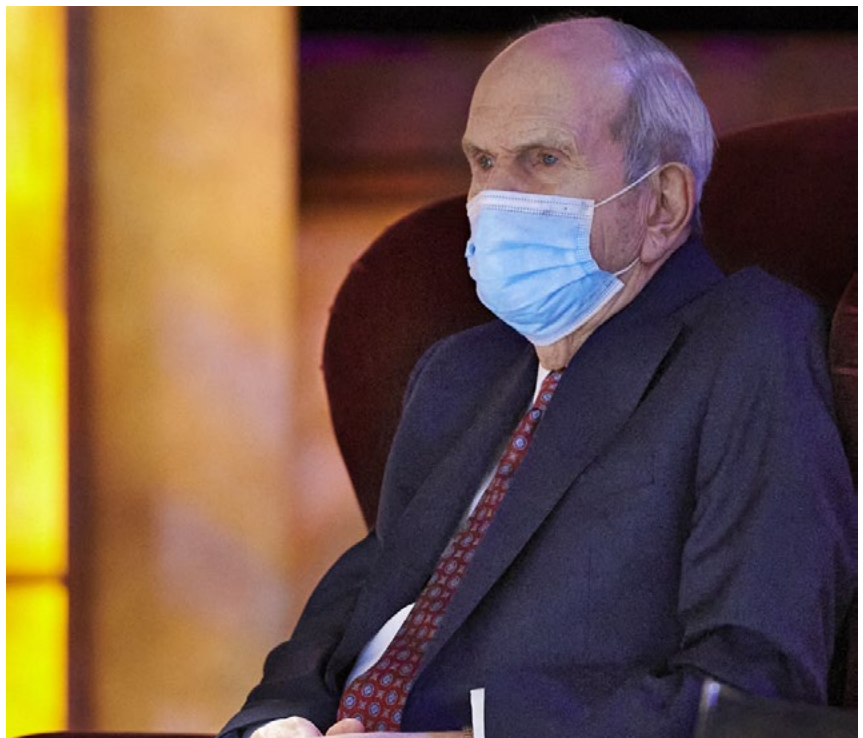
인도하고 계시며, 이 교회는 그 신성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
각자도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일상”에
관해 자주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으로 삼으십시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점점 더 정결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을 돌보고 성역을 베푸십시오.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부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된 상태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⁴

성전이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식과 성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준비하게 됩니다.⁵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성전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중하게 조율하여 단계적으로 성전 운영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성전이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몇 달 동안에만 수천 쌍이 인봉을 받았고, 또 수천 명이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합당한 교회 회원이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조상들을 위해 봉사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 여섯 곳이 세워질 장소를 발표하겠습니다. 키리바시 타라와, 바누아투 포트빌라, 유타 린던, 과테말라 그레이터과테말라시티, 브라질 상파울루리스트,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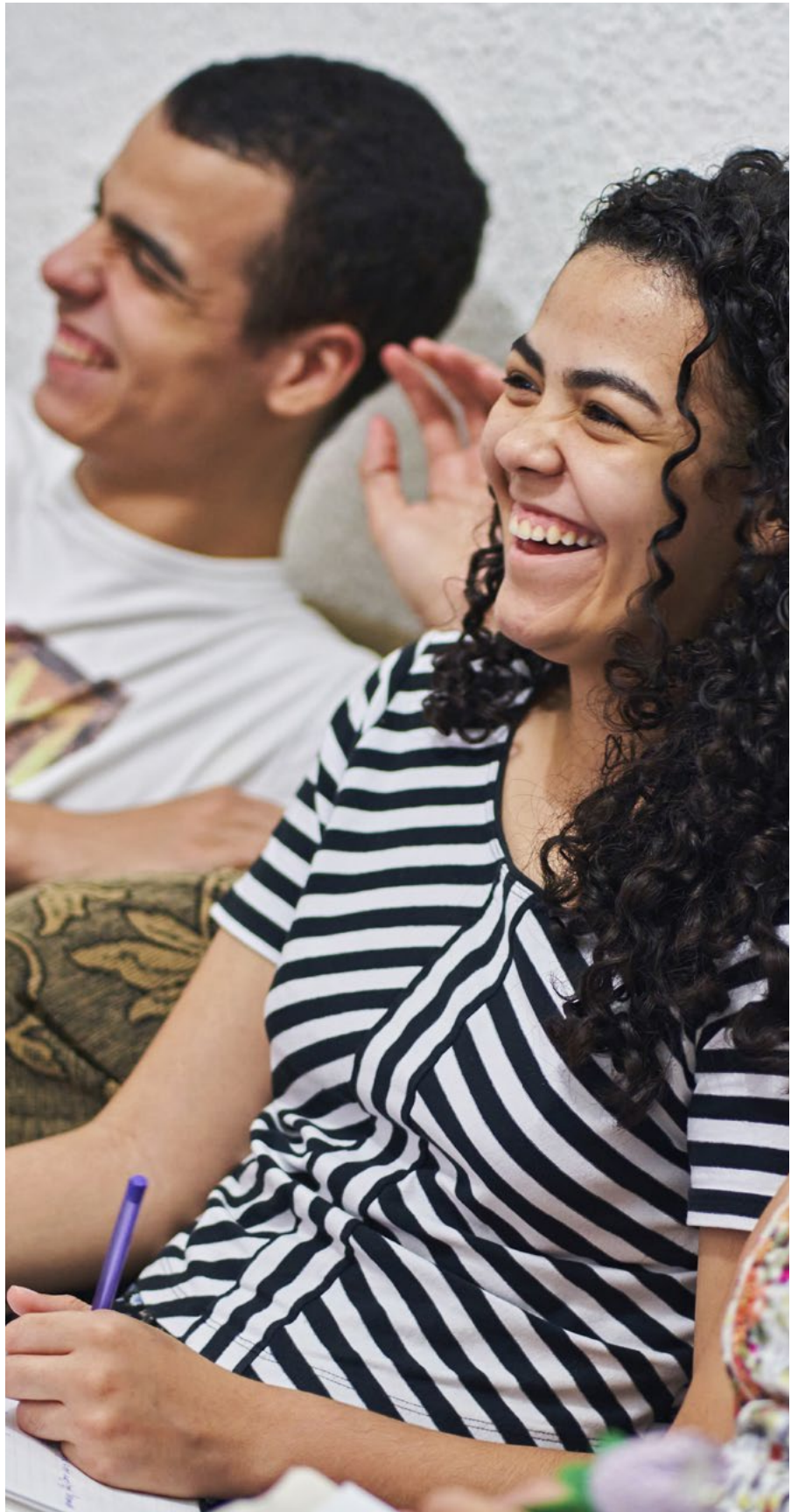
우리가 이 성전들을 세우고 정비하는 동안, 여러분 각자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스스로를 세우고 정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강은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합니다.⁶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과 능력이 더 커지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많은 축복이 아낌없이 내려져, 더 큰 용기를 품게 되고, 개인적인 계시가 늘어나며,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준비하라는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26~29 참조.
2. 교리와 성약 45:26; 88:91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12쪽.
4. 엘마서 12:24; 34:32 참조.
5. 교리와 성약 14:7 참조.
6. 빌립보서 4:7 참조.



브라질 상파울루 타바아오 다 세라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지도자 변경에 관한 발표

20 2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회장단, 칠십인 총관리 역원, 감리 감독단의 새로운 일원과 네 명의 새로운 지역 칠십인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되었으며,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가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되고 명예직에 임명되었다. 클레이튼 장로가 맡았던 칠십인 선임 회장은 이제 패트릭 키아론 장로가 맡는다.

딘 엠 데이비스 장로는 감리 감독단 제1보좌에서 해임된 후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이 데이비스 장로를 대신하여 감리 감독단 제1보좌로 지지받았다. 또한 엘 토드 버지 감독이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되고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이전에 와델 감독이 맡았던 직책)로 지지받았다.

엔리케 알 팔라베야 장로와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가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되고 명예직에 임명되었다.

이 지도자들의 약력은 이 페이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해임된 47명의 지역 칠십인과 새로 부름을 받은 네 명의 지역 칠십인도 발표되었다.(30쪽 참조) ■

가족 중 하나가 오랜 세월 교회를 떠나 있는 경험을 하며,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가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한 가지는 이것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주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가 주는 치유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

닐슨 장로는 당시 가족과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던 중 탕자의 비유가 전과는 다르게 와 닿는 경험을 했다.

“웬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집에 남아 있는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 저는 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합니다.(로마서 3:23 참조) 우리는 모두 우리를 치유해 주는 구주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으며, 누군가 우리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¹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가 해임되고 명예직에 임명된 후, 그 뒤를 이어 브렌트 헤치 닐슨 장로가 2020년 10월 3일에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되었다.

닐슨 장로는 1954년 12월 8일에 미국 아이다호주 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 핀란드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1978년 6월에 마샤 앤 브래드퍼드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닐슨 장로는 1978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 학사 학위를 받고, 1981년에 유타 대학교에서 법무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아이다호주 트윈폴스의 법률 사무소에서 30년 가까이 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했다.

닐슨 장로는 태평양 지역 및 필리핀 지역 회장단 보좌, 필리핀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선교사부 집행 책임자로 봉사했다.

2009년 4월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기 전까지 그는 와드 청남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아이다호 지역의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주

1. 브렌트 에이치 닐슨, “탕자를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3쪽.



딘 엠 데이비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던 1989년 당시 딘 엠 데이비스 장로는 차를 몰고 퇴근 중이었고, 그의 자동차는 지진의 여파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간이 흐른 뒤 해당 지역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 보던 그는 우리 삶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집이나 일터, 성스러운 예배의 집을 일부러 모래나 잡석 위에 짓거나 적절한 도면이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웁시다.”¹

데이비스 장로는 2012년 4월부터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했으며, 2020년 10월 3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되었다. 데이비스 장로는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이 2015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를 받을 때까지 그의 제2보좌로 봉사했다. 이후 그는 스티븐슨 장로의 후임으로 감리 감독 부름을 받은 제럴드 코세 감독의 제1보좌로 지지되었다.

딘 마이런 데이비스는 1951년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루과이/파라과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1973년에 달라 제임스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다섯 자녀와 열일곱 명의 손주를 두었다.

그는 1995년 7월부터 교회에서 근무하며 특별 프로젝트 부서의 관리 책임자로서 특수 목적 부동산, 성전 설계 및 성전 건축 책임 등의 직무를 담당했다. 교회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에 있는 High Industries 주식회사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Bechtel Investments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스탠퍼드 대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고급 경영자 과정을 마쳤다.

데이비스 장로는 푸에토리코 산후안 선교부 회장, 선교부 회장 보좌,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 보좌, 스테이크 집행 서기, 고등평의원, 그리고 여러 차례 감독단으로 봉사했다. ■

주

1. 딘 엠 데이비스, “견고한 기초”,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 11쪽 참조.



엘 토드 버지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18개월 전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던 엘 토드 버지 감독이 감리 감독단 제2보좌로 지지되었다. 그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 딘 엠 데이비스 감독의 후임으로 봉사한다.

1984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은 버지 감독은 배인&컴퍼니 일본 지사, 씨티은행, N.A., GE 캐피털 일본 지사 및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사에서 근무했고, 2003년에 도쿄 스타 은행의 사장 겸 CEO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다. 그는 하와이 항공사의 이사회 일원이기도 했다.

버지 감독은 이직을 고민하던 시절에 귀중한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의 한 멘토는 그에게 “재계에는 고결함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가 재계에서 일한다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줄 많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 감독은 사회 생활을 통해 실제로 업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기회를 맞았다. 그가 일본에 복음을 나누기 위한 문을 열었던 것도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버지 감독은 젊은 시절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후에는 일본 도쿄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이 주는 좋은 소식은 슬픔과 시련이 없는 삶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과 의미가 가득한 삶, 즉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앨마서 31:38]”¹

로런스 토드 버지는 1959년 12월 2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로리 케이프너를 만났고, 두 사람은 1981년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버지 감독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집행 서기, 스테이크 청남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

주

1. 엘 엘 토드 버지, “변함없고 꺾이지 않는 신뢰”,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47쪽.



간단하고 빠른 선교사 소개 시스템

회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편하고 쉽게 자신의 친구와 선교사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선교사 소개 시스템이 최근에 개선되었다. 개선된 소개 절차는 친구를 소개하는 회원과 선교사가 신속하게 연결되게 해 주며, 이를 통해 선교사와 회원은 선교사 복음 토론에 회원의 친구가 가장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여러분의 친구나 지인이 선교사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여러분은 단순히 회원 도구 앱이나 ChurchofJesusChrist.org/referrals에서 소개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여러분은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연락처 정보와 메모를 남길 수도 있다.
2. 양식이 제출되면 소개 과정을 돕도록 지명된 자매 선교사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자매 선교사는 소개받은 사람을 해당 지역에 배정하고 여러분이 그 지역 선교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 해당 지역의 선교사들은 소개받은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연락처 정보도 받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소개한 친구의 상황과 필요 사항을 선교사들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친구가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원한다면 여러분이 선교사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다.

칠십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소개 한 건 한 건을 모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들은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의 친구를 어떻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배웁니다. 회원과 선교사가 함께 일할 때,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쌍방향 도구는 현재 33개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

ChurchofJesusChrist.org/referrals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거나 친구를 소개할 수 있다.

교회 잡지에 일어난 변화

2021년 1월부터 교회 잡지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리아호나』는 전 세계 성인 독자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공용 잡지로 거듭나고, 전 세계의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잡지도 각각 출판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전용 기사 및 현지 제작 자료들은 각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에 관한 통찰력과 자원을 확장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엔사인』이라는 명칭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잡지는 (『뉴이라』 대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어린이를 위한 잡지는 계속해서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될 것이다.

잡지와 관련된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안겨 줄 것이다.

-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잡지를 구독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 일부 지역과 언어에서는 예전보다 기사들을 더 자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전 세계 교회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를 통해 동일하고 통합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

이러한 변화에 관한 의견들을 알고 싶다면 39~40쪽을 참조한다.



새로 발표된 여섯 곳의 성전

러셀 엠 벨슨 회장이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여섯 곳의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성전은 다음과 같다.

- **키리바시 타라와.** 키리바시는 국제 날짜 변경선 근처에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로, 32개의 환초로 구성된 국토를 가지고 있다.
- **바누아투 포트빌라.**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있는 약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 **미국 유타 린던.** 린던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있다.
- **과테말라 그레이터과테말라시티.**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는 곧 4개의 성전이 있게 된다.
- **브라질 상파울루리스트.** 이번에 발표된 성전은 브라질의 12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이 성전은 남미에 있는 이 국가의 두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벨슨 회장이 2018년에 교회 회장이 된 이래로 건축 계획을 발표한 새로운 성전은 모두 49곳에 이른다. 현재 발표되었거나 건축 또는 운영 중인 교회의 성전은 230곳이다. ■

성전 의식에 관한 발표

제일회장단은 2020년 7월 20일에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의 변경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성전의 성스러운 가르침, 약속 및 의식은 고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성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르침의 방법은 영감 어린 계시를 통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으며, 그러한 변경은 회원들이 성전 내부에서 배우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최근에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스러운 약속, 즉 성약을 맺는 것은 성전 경험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교적인 성약을 맺는 데 수반되는 상징적인 행위(기도, 침수로써의 침례, 결혼식에서 손을 맞잡는 것 등)에 친숙하실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게 성전 성약을 맺을 때도 단순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수반됩니다.

모든 이들을 사려하고 성전에서 배움을 얻는 경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에 성전 엔다우먼트 의식의 변경 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성전 의식은 성스러운 것이기에, 이러한 변경 사항에 관해 추측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회원들과 친구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보다는 교회 회원들이 성전으로 돌아가 성스러운 성전 사업에 완전하게 참여할 그 날을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로써 고대하도록 권유드립니다.” ■





성전 기도 명부 온라인 시스템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여 기도 명부에 올리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ChurchofJesusChrist.org/temples의 성전 정보 페이지에서 기도 명부 링크를 클릭하여 성전 기도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회원 도구 모바일 앱의 '성전' 항목을 통해서도 이름을 제출할 수 있다. 회원들이 제출한 이름은 해당 성전(또는 운영 중인 가장 가까운 성전)으로 보내진다.

여러 종교의 신도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병들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권고하신 예가 여럿 나온다. 성전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지키고 있는데, 성전에서 회원들은 신앙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기도 명부에 적힌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일반 지침서』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은 현재 개정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선정된 자료의 번역본이 21개 주요 언어로 곧 공개될 예정이다.

새 지침서의 영어판은 2020년 2월에 디지털 형태로 출간되었으며, 3월과 7월에도 개정된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38개 장 가운데 총 16개 장이 재작성되어 출간되었다. 남은 장의 경우, 길이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하는 개정 작업이 향후 몇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연차 대회가 끝나고 거의 곧바로 32장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와 38.6의 일부인 “도덕적 사안에 관한 정책”(32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영어 이외의) 21개 언어로 출간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부분을 출간하기 위한 번역 및 준비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자료는 최종적으로 35개 언어로 제공될 것이다.

지침서는 교회 웹 사이트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자료의 주요 독자는 교회 지도자이다. 개정된 지침서는 『지침서 제1권』(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용)과 『지침서 제2권』(모든 지도자용)을 대체하며, 모든 지침서의 정보는 하나의 출판물로 통합된다.

새 지침서의 구성은 구원과 승영 사업을 근간으로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때 초점을 맞추는 다음 네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
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본다.
3.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다.
4.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킨다.

이 장들은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정책,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살피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침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 및 정책 조정에 발맞춰 내용을 갱신하고 수정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지침서에 포함된 유연성과 적용의 원리는 지도자와 회원들이 여러 규모의 회중과 다양한 전 세계 성도들의 공동체에 원리 및 교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찬송가 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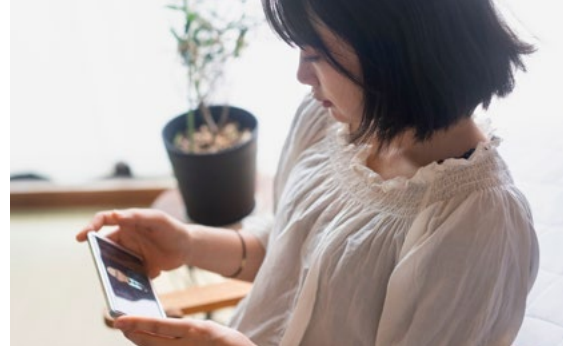
2018년 6월, 교회는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 개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성스러운 음악에 대한 의견과 함께 직접 만든 찬송가, 노래 및 가사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의 5만 명의 회원이 교회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성스러운 음악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포함 대상으로 고려 중인 다른 종교의 선정곡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려주었다.

또한 66개 국의 회원들이 보내 준 음악도 1만 6천 건 이상 접수되었다. 회원들이 직접 만든 찬송가와 노래는 재능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국제 단체와 교회 본부의 개정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신성한 음악을 통해 구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간과 재능을 제공해 준 전 세계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제출되고 제안된 모든 곡이 세심하게 고려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찬송가가 나오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와서 나를 따르라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기



일본 오사카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교회 본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영감 어린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매달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필요와 영의 인도에 기초하여 모임에서 토론할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한다. 때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토론할 말씀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전한 말씀을 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토론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회원들이 선정된 말씀을 미리 읽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8.2.1.2, 9.2.1.2,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가르칠 준비를 함

다음의 질문은 교사가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 연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가? 연사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원리는 우리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연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경전 구절을 인용했는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을 만한 다른 경전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구절은 말씀의 미주나 경전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회원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회원들이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주님의 일과 이 말씀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4. 모임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토론이 더 훌륭히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나 비유, 음악 및 예술 작품을 포함하여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연사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5. 연사가 권유한 것이 있는가? 회원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행동하려는 소망을 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활동 아이디어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배움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장르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그룹별로 토론한다.**
회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별로 연차 대회 말씀의 각기 다른 부분을 배정해 준 뒤 읽고 토론하게 한다. 그런 후 각 그룹이 배운 진리를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또는 연차 대회 말씀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읽은 회원들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배운 점을 서로 이야기하게 할 수도 있다.
- **질문에 답한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어떤 복음 진리를 찾았는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유와 약속된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인용문을 나눈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 중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영감을 준 인용문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역 대상자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이 인용문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격려한다.
- **실물 공과를 한다.**
몇몇 회원에게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미리 부탁한다. 모임에서 그 물건들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 **가정에서 가르칠 공과를 준비한다.**
회원들에게 짝을 지어 연차 대회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밤 공과를 계획해 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 가족과 연관지을 수 있을까? 성역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 **경험을 나눈다.**
연차 대회 말씀 내용 중 몇 구절을 함께 읽는다. 회원들에게 그 구절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강화해 주는 예를 경전 혹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 **성구에 관해 배운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서 언급된 성구를 읽어 보라고 한다.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그 성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토론하게 한다.
- **답을 찾는다.**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만든다.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복음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에 초점을 둔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 31~32쪽 참조) 그런 다음 회원들이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하여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한다.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토론하게 한다.
- **구절을 찾는다.**
회원들에게 말씀을 훑어보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찾은 구절과 그 구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무언가를 만든다.**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영감을 주는 짤막한 구절을 찾아 포스터나 책갈피를 만들어 보게 한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기회를 준다. ■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기 위한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면, 복음 자료실의 연차 대회에 있는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참고한다.